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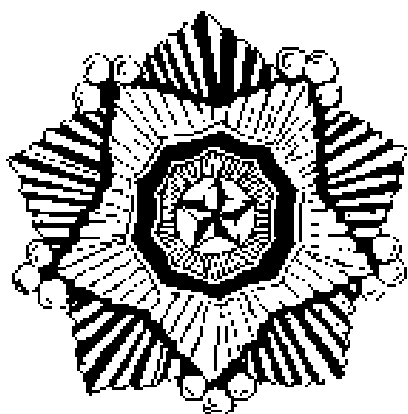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조선문학



7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0(2011)년 제7호

(루계 제 765 호)

◇◇◇◇◇◇◇◇◇◇◇◇

차 례

◇◇◇◇◇◇◇◇◇◇◇◇

김일성장군찬가	4
꽃의 바다 만수대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금수산기념궁전은 농장벌가까이에 있다	5
한생	6
주체문학의 대강	7
수령님의 부채바람	7
이 하늘 이 땅은...	8
그리움의 해는 지지 않네	18
총서형식의 혁명소설이 개척되기까지	19
명당자리	20
영원한 봄노래	20
피줄기	21
선생님처럼	21
친위전사의 총대	22
장군님과 김철녀인들	23
노우하우	25
백두산위인들의 령도따라 발전해온 《조선문학》잡지의 65년	26
령도자와 우리의 《조선문학》	28
《조선문학》잡지와 나	30
회억과 기대	31

《조선문학》 잡지와 더불어	32
첫 인연을 더듬어	33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의 새로운 높이를 지향하여	35
오, 나의 선군조국이어	39
나의 생활속에	39
나는 사랑할수밖에 없어라	40
별에 대한 생각	41
지적소유권	42
마를줄 모르는 샘	43
아름답다 너인이어	52
돌격대의 첫날, 백날	53
나는 총검을 달랠수 없다	55
조국해방전쟁주제 소설작품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성격 창조	56
승리자들에게 축하를	59
작가의 고충에 대한 생각	60
내 고향 사람들	61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62
나의 파견장	73
애국의 마음은 보석처럼 빛나네	73
바쁨, 굶픔	73
별하늘-아름다운 랑만의 세계	74
《편지를 읽어주세요》	75
우리 집 웃총어머니	76
작가 현진건과 그의 소설문학	76
썩어빠진 미국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장편소설 《도금시대》	78

김일생 장군 찬가

리 찬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우리의 절대의 환영에 장군은 장군이 아니신듯
우리의 무쌍의 광영에 장군은 위원장만으로도
족하신듯
장군은 인민을 위한 한때도 심히 귀중히 여기고
장군은 인민속에 특별한 인민됨을 완강히 거절
한다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된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장군의 파사로운 초양은 이미 령세한 논밭우에
드리우고
이제야 중천에 혁혁한 장군의 백광은
온갖 불순물을 불사르며 불사르며
얼어붙었던 굴뚝마다 칠연을 치솟군다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주체35(1946)년 4월

꽃의 바다 만수대

김 용 엽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절 온갖 꽃 피여 향기풍기는
오오, 만수대 만수대

어느때 올라도
여기선 볼수 있구나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

다 볼수 있구나
먼 나라 광야의 향긋한 꽃이며
대양과 대륙을 넘어 안고온
세상 화려하고 진귀한 꽃들을

아, 해님같은 그 영상 그리워 그리워
요람같은 그 품을 못 잊어 못 잊어
따르고 받드는 온 나라 온 세계의 마음들
끝없이 꽃으로 피고피는 백화의 이 절정

정녕 송이송이 눈부신 저 아름다운 꽃들은
가슴마다 넘쳐나는 그리움의 분출
심장마다 타고르는 충정의 불길
열화같은 흙모의 세계가 아니라

그 마음 안고 나도 피운 꽃송이
드리고나면 또다시 드리고싶어
람스런 꽃송이도 위훈의 꽃송이도
더 활짝 피우리라 맹세로 불타는 이 언덕

오! 스치는 바람결에도
천만 꽃향기 천하를 진동시키는
만수대 만수대
하늘가에 설레이는 꽃바다 꽃바다여

오늘도 우리 수령님
지구의 령봉에 높이 서시여
예나 다름없이
무궁토록 만발하는 화원을 보고계시여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생체험에 의하면 노래는 혁명적락관주의의 상징이고 혁명승리의 상징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인간생활에는 시도 있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생활에 시도 없고 춤도 없고 노래도 없다면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숙영지에서도 울리고 가설무대들에서도 울리고 전장에서도 울리였습니다. 노래소리가 높다는것은 사기가 높다는것을 의미하며 사기가 높은 군대는 싸움에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래소리가 높아야 혁명대오가 흥하고 강해집니다. 노래소리가 높은곳에 반드시 혁명승리가 있습니다.》

《나는 락관주의를 주장하며 락천적인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것이 내가 중시하고있는 좌우명의 하나입니다.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어떤 동요나 편향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올수 있는것은 이 락관주의의 덕입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은 농장벌가까이에 있다

박 세 일

네벌김매기 한창인 농장벌
제초기를 몰아가다가도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우리 농장벌과 가까이에 있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

그럴 때면 가슴 울렁이누나
어버이수령님 집무실창문을 여시고
작황좋은 이 벌을
마음 흐뭇이 바라보시는것만 같아

그리고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이 벌에까지 들려오는듯싶구나
나라에 쌀이 많아야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고
쌀이 많아야 강성대국건설도 앞당겨진다고

정녕 마음속 생각만이 아니였구나
금수산기념궁전가까이에 우리 농장이 있음은
대대로 농사짓는 가문에서 탄생하신 수령님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의 현지지도도
농촌의 어느 밭머리였던가

이렇게 농장벌 지척인 집무실에서

구수한 낱알익는 냄새도 맡으시며
흠만지는 농민들의 근면한 모습에서
보다 풍족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신 수령님

때로는 명예농장원이 되시어
자신께 차례진 분배뚝으로
농장에 트랙또르도 보내주시고
온 나라 농장벌과 잇닿아있는
집무실 정원까지도
시험포전으로 가꾸신 수령님

내 이제 가을이 오면
수령님 그리며 가꾼 황금이삭
마음속에 안고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달려가려니

아, 준엄한 전화의 날
수령님모신 최고사령부가
최전선 전사들과 함께 있었듯이
오늘도 수령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온 나라 농장벌 가까이에 있어라

한 생

김 형 준

...여기
해빛 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어버이수령님 계시다

방금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듯
문밖엔
달아오른 차바퀴를 식히고있는
승용차...

이제 수령님께서
잠시의 휴식도 아까우신듯 시계를 보시며
—부관동무 어서 차를 준비하시오
농촌으로 나가봅시다
라고 말씀하실듯

아, 만경대고향집에서 시작된
혁명의 장장 수억만리 로정에
인민과 혁명을 위한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며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그 시간에 만태엽을 하시던 수령님

또다시
려장을 갖추시고 먼길을 떠나시려는듯
정녕 수령님은
세월에 사신분 아니라
세월이 수령님을 따라섰습니다

쉬임없는 사색과
불멸의 한생을 말해주는
온 누리를 짝 채운 현지지도의 로정도는
멈춤없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또다시 기록하며 이어지려니

애국 애족 애민의 한생이었기에
수령님은 흘러간 반만년력사를 거슬러
단군을 우리앞에 찾아주시었고
수령님은 먼 앞날의 조선의 모습을
인류앞에 뚜렷이 보여주신분

수령님의 위대한 사색은
어제와 오늘과 래일속에 펼쳐지고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은
이 땅을 주체의 락원으로 더 아름답게 가꾸신다
수령님은 오늘도 일을 하시거니!...

하여
밤이 깊으면 밤이 깊어
수령님 그리는 마음 별이 되어 빛나는 땅
자라나는 이 나라 후손들의 눈동자에
수령님의 영상 태양의 모습으로 새겨지는 땅

아, 이 땅의 모든 창조물
그리고 휘황한 미래
먼먼 앞날까지 명시된 설계도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수령님의 예지
그것은 수령님 확신하신 주체의 강성대국

물어보자 력사여
참으로 수령님은 위대하셨다고
참으로 수령님같이신분 없으셨다고
현재에서 과거에로 불멸의 한생총화를
우리 어찌 서둘러 지을수 있단 말인가

아닐진저
위인의 생은 무한한 생
그이는 세기를 앞당겨 사신분
그이는 미래에 사신분
그이는 영원한 우리의 수령으로 되신분

오! 김일성
그이의 존함이 조선이 되고
그이의 한생이 조선의 력사가 되었기에
불멸의 위업으로 그이는 영생하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그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거니

...여기
해빛 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어버이수령님 계시다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다. 그런데 문학에서는 추상적인 인간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을 그려야 하는것만큼 로동계급의 수령을 추상적인 존재로 그려서는 안된다.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자기의 고유한 생리를 가지게 된다.》

《작가는 수령이 개인이 아니라는 사상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작품에서 수령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의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품모와 현실에서 살아숨쉬고 활동하는 위인으로로서의 인간적품모를 다같이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답 시

수령님의 부채바람

문 동 식

조선전쟁에서 미제가 항복했다는
참으로 통쾌하고 희한한 통신에
세계가 발뒤축을 세우고
조선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라보던
그날은 1953년 7월 어느날

그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우리 장군님
작전대앞에 앉으시여
한장두장 보고제시였네
판문점에서 찍은 수십장의 사진을

그것은 정전협정조인식장에 들어선
패전장군들과 《유엔군》대표들의
이모저모 가련한 물결을 찍은
그야말로 볼만 한 사진들이었네

금시 까무라칠듯 비칠거리며
조인장에 들어서는 흠빛이 된 그 낮짝
어깨의 별이 쏟아질듯 축 쳐진 어깨
비지땀이 번들거리는 이마며 두볼...

가련한 표락서니 담긴 사진들
한장두장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
넓은 작전대우에 주련이 퍼놓으시며
통쾌하게 말씀하시였네

—자, 모두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종이범 미국이요
그러시곤 크게 웃으시는 수령님따라
장령들과 작전참모들

장쾌하게 터치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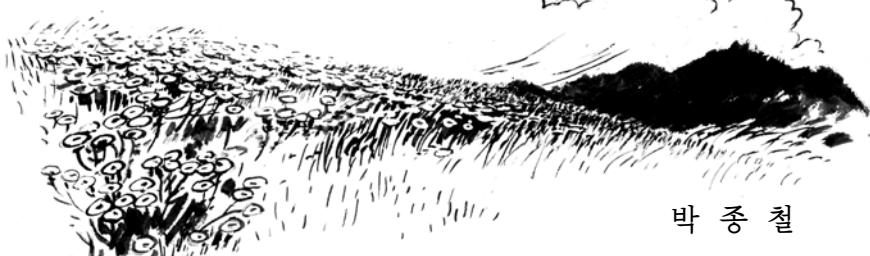
바로 이때 우리 수령님
전승의 열풍이 뜨거워선가
손에 드신 부채를 흔드시였네
사진들은 마가울 락엽처럼 날려
작전대우에서 방바닥에 떨어져 덩굴 때

그것을 가소롭게 보시던 수령님
—패전을 모른다던 미군장군들
작은 부채바람에도 날려가다니
그렇게 가벼운 장군이었던가?
이렇게도 땅바닥에 덩굴고싶던 미국인가?
그러자 또다시 터치는 웃음 웃음소리

수령님 부채를 조용히 접으시며 말씀하셨네
—미국이란 나라 장군나리들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요
5천년력사국 조선민족앞에
거만한 코대를 쳐들고 달려들다니...

그날 작전실에서 일어난진
우리 수령님의 시원한 부채바람
그 부채바람에 웃음폭포 쏟아지던
아, 그날은
악의 제국 미국을 발밑에 굽어보며
온 조선이 승리자의 웃음을 터친 날이였네
조선의 웃음따라 전세계가 기쁨의 환희 터친
미제가 처음으로 무릎꿇은 대경사의 날이였네

이 하늘 이 땅은...



박 종 철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실창가에 서시여 밖에서 들려오는 각종 음향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었다. 정원의 나무잎 살랑이는 소리, 새들의 우짇음소리와 함께 멀리 건설장쪽에서 차들이 달리는 소리, 호각소리, 방송소리, 노래소리들이 간간이 들려온다.

그것은 그대로 하나의 대교향곡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 소리들에서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힘찬 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듣고계시었다.

온 나라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장엄하게 울려오는 천리마대고조의 노래를 듣고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악단의 총지휘자이기도 하시며 연주가이기도 하시다. 그만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오는 그 모든 음향과 곡조, 리듬, 음색들을 가려들으며 조화를 맞추면서 위대한 대교향곡을 창조하고계시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주먹을 불끈 쥐시며 심호흡을 한번 하시었다.

지금은 모든것이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천리마대고조의 시대이다. 모든것이 여기에 따라서야 한다. 여기에 발을 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이의 시선이 천천히 집무탁우에 놓인 문건으로 향하시었다. 좀전까지 보시던 문화성에서 올라온 문건이다.

...력사학자들이 안악제3호고분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학술보고서를 발표하였는바 그것을 놓고 세계 고고학계가 법석 떠들고있다. 고구려의 유구한 문화와 강대성에 대하여 하나같이 인정하면서 이처럼 귀중한 고적을 가지고있는 조선인민에 대한 찬사와 부러움을 터치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의 일부 고고학자들만은 보고서가 발표되자 그것이 고구려의 고분이 아니라 무덤안에 썩여있는 《동수》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무덤이라고 우겨대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술보고서를 내놓은 우리 나라 일부 학자들의 태도이다. 발굴조사에도 함께 참가했던 그들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그것을 부정할만 한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있는것이다. ...

(안악제3호고분이 고구려의 무덤이 아니라구? 우리 학자들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신심이 없어한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교향곡의 힘찬 선율속에서 뒤섞인 서투른 불협화음을 들으신것처럼 자꾸만 그리로 마음이 쏠리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우리 학자들이 신심이 없어한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

위대한 수령님께서 깊은 사색에 잠겨 집무실안을 천천히 거니시는데 서기가 들어와 력사연구소 소장이 왔다고 알려드리었다. 이어서 머리가 반백이 넘고 허리까지 약간 굽은듯 한 체소한 사람이 문가에 나타났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보시자 반색을 하시며 그앞으로 마주나가시었다.

《리학무선생, 반갑습니다. 하고싶은 말이 있어 내가 좀 오라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 그간 옥체건강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신채 인사를 드리는 그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혀주시었다.

《문화성에서 올려보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것이 방금전까지도 죄스러움으로 몸둘바를 몰라하던 리학무소장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는 의자 한끝에 의지했던 몸을 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수령님, 죄스럽고 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굴된 고분입니까. 또 그 가치가 얼마나 진귀한 것입니까. 한것을 저 섬나라 왜놈들이 고구려고분이 아니라고 학술적으로 걸고들었습니다. 무덤에 썩여진 60여자의 목서와 그안에 있는 동수라는 이름때문이지요. ...》

그가 설명을 했다.

그것은 수령님께서도 알고계시는것이였다. 즉 무덤의 주인공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 서쪽전실 입구 량쪽에 각각 한명씩의 시종무관인 장하독(벼슬이름)이 그려져있는데 그 한쪽 장하독의 머리우에 동수라는 이름과 함께 60여자로 된 그의 략력이 밝혀져있는것이다. 그 략력이래야 이것저것 많이 쓰고있지만 최고관직이 4품관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의 동수는 이전에 고구려와 한창 싸우던 선비족사람으로서 그 나라 왕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고구려로 도망해온 망명객이다. 말하자면 적대국의 신하가 고구려로 망명하여 오래동안 복무해온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무덤에 나타난것을 구실로 동수의 무덤이라 는것이다.

《안악3호무덤이라면 발굴당시 나도 가보아서 더러 알고있습니다. 선생도 그때 발굴대의 기본성원의 한사람이었으니만치 생생히 기억하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것을 본 첫순간에 이것은 고구려무덤이다, 무덤의 형식이나 거기에 그려진 벽화들의 내용전체가 고구려의 생활을 담고있다 하고 찬탄하지 않았습니까. 행렬도의 웅장화려한 모습과 〈성상변〉이라고 썩여진 기발만 보고서도 그것이 고구려의 어느 왕의 행차라고 대번에 짐작했었지요.》

《그렇습니다.》

리학무는 수령님말씀에 무조건 공감이라는듯 자리에서 섰고 일어선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손을 들어 그를 자리에 앉히시며 계속하시였다.

《그런데 거기에 반박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자들이 왜 주저한단 말입니까?》

《학술적으로 볼 때 무덤안의 일체 문물은 피장자(무덤에 묻힌 사람)에 해당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것입니다. 그런만큼 동수라는 이름을 떼어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연필뒤등으로 문건우에 톡톡 가볍게 그루를 박으시며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역시 학술적인 문제라는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요인들은 작용하는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의 고고학이라는

것이 청소한데다가 몇명 안되는 학자들마저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만 한 권위와 논거를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그중에는 이번에 동수 운운의 주장을 내놓은 일본의 오가자키 다카시에게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더 말씀을 하지 않으시였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아까의 그 거창한 교향곡이 다시 들리는듯 수많은 음향들이 들끓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거기에 신경을 모으실수 없으시였다. 이번에는 그 불협화음이 더 가까이에서 세차게 빼적이고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다시 시선을 리학무에게로 돌리시였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남에게서 배웠고 력사도 짧은만큼 더 할말이 없다는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진귀한 보물을 남에게 빼앗겨도 힘이 약하니 할수 없다 그 말이지요?》

《수령님, 그런게 아닙니다. 제 나라 제땅에 있는것이 어떻게 남의것이 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의 준비가 미약하여 당분간...》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고구려사람의 무덤이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일본학자들은 조선의 서북부지역이 한때 다른 나라 망명세력들이 차지하고있던 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안악3호고분이 동수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것으로 됩니다.》

《그것 보시오. 그들이 억지주장을 하는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한때 신라나 백제와 나란히 존재했던 가야국도 저들이 섬에서 건너와 세웠던 나라라고 생판 우겨대고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것은 어떻게 하나 조선의 력사를 부정하고 왜소화하여 약소민족으로 만들어놓고 저들의 과거식민지책동을 정당화하며 다시 침략의 기회를 마련하자고 하는데 있습니다.》

《수령님말씀이 참으로 지당합니다. 생각하면 막 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그에 대해 똑바로 대답을 못한다니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옹호하고 주장해야 할 력사학자들이 말입니다.》

력사는 외곡해서는 안되며 외곡한다고 하여 비뚤로 잡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엄연한 력사적 사실에 대해서야 왜 말을 못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누구한테서 배웠거나 학술적기초가 빈약해서가 아니라 민족적자존심과 주체적사관이 바로 서있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리학무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제서야 수령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렸던것이다.

리학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령님, 제 돌아가서 연구사들과 즉시 토론을 하고 정확한 논거를 내놓도록 연구를 심화시키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덤비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그들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소장동무야 나하고 초면도 아닌데 오늘은 나와 함께 바람이나 쏘이면서 역사이야기를 좀 나누어봅시다.》

잠시후 수령님께서서는 학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시었다.

2

《학무선생, 우리가 안악고분들을 처음 발굴하던 때가 생각납니까?》

승용차가 떠나자 수령님께서 물으시었다.

수령님곁에 앉은 리학무는 환희로운 기분에 잠기면서 자세를 바로하였다.

《제가 어떻게 그때일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것을 말하자는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던가 하는것입니다. 옛 고구려시대를 들여다보는듯 한 기분이었지요.》

《웁습니다, 고분들의 황홀경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일정하게 연구가 된 지금에 와서 왜 남들한테 수그러드는 자세를 취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더구나 학무선생은 나라의 책임있는 실력자가 아닙니까.》

리학무는 대답을 못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그 중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승용차는 평양시의 중심도로를 달리고있었다. 량옆으로는 얼마전까지도 보이지 않던 고층살림집들이 우중충 일어서서 낮선 거리에 들어선듯 한 감을 안겨주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있다. 도처에서 새로운 속도, 천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리학무소장에게는 변천하는 시대의 정신이 없다. 그뿐만아니라 고고학을 전문한다고 하는 우리의 일부 학자들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 부족하고 주체적인 관점이 바로 서있지 못하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식민지시대에 배웠고 남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온 사대와 예측의 근성이 아니겠는가.

《학무선생, 우리 안악3호고분에 다시 가봅시다. 내가 오늘 학무선생을 오라고 한것은 그때문

이였습니다.》

리학무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잘 믿어지지 않았다. 리학무는 수령님을 우러렸다. 그이께서는 시종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고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신다.

리학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문득 처음 고분을 발굴하던 일들이 머리속에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것이 조국해방전쟁이 일기 몇달전 일이었다.

안악3호고분이라고 하면 먼저 1호와 2호고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만큼 고분들이 가깝게 밀집되어있고 발굴경위도 깊이 련관되어있다.

첫 고분의 발굴은 안악군농민들이 도로수리용 돌을 채취하다가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한 둔덕진 곳에서 큰돌 하나를 빼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곳에 구멍이 뚫하니 뚫리고 안이 허렁청하니 넓었던것이다.

이상해서 안에 들어가보니 그대로 하나의 큰 방인데 뜻밖에도 사방 네벽이 천연색그림들로 가득 차있었다.

이 사실이 황해도인민위원회(당시)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보고를 받은 즉시 당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성원들과 현지주민들로 발굴대를 조직하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시었다.

그때 초보적으로 조사한데 의하더라도 그것은 기원 4세기경의 고구려고분으로서 이미 1천 6백년이나 땅속에 묻혀있었던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득찬 그림들이 거의나 손색없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고분의 발굴은 나라의 해방과 함께 새 민주조선건설로 들끓던 온 나라에 하나의 큰 경사가 아닐수 없었다. 그때 발굴대의 한 성원이었던 리학무가 사진으로 찍어온 자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설명해드리었다.

《...이 무덤은 고임천정을 한 외칸무덤으로서 통돌로 된 네면과 천정까지를 모두 그림으로 장식한 전형적인 고구려무덤입니다. 무덤에는 주인공의 초상이 따로 없고 정면에 그가 살던 집만 그려져있는데 동서남북의 웅장한 대문과 루각들, 회랑으로 둘러싸인 고대광실들, 그 안팎으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형상을 통하여 주인공이 수많은 노비전답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던 큰 귀족이였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계속하여 그는 동쪽면과 남쪽면에 그려진 행렬도, 서쪽면의 너인군상도, 수렵도들과 천정의 해와 달, 구름, 편꽃무늬들, 비어와 천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아는껏 설명을 해드리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과 고고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통하여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자기 학문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있음을 느끼

시였다. 그것이 고분의 발견과 함께 수령님을 더 한층 기쁘게 해드리었다. 그자체가 갖 창건된 청소한 공화국의 귀중한 재부가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학무선생, 우리 이 고분의 발굴성과를 확대하여 또 다른 고분을 찾아봅시다.》

설명이 끝나자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였다.

그때 자기 설명에만 열중했던 리학무는 영문을 몰라 한동안 의아해했었다. 나라에서 하나의 고분만 발굴해도 큰 경사인데 이제 또 찾다니...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찾으면 있을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 수많은 유적유물을 남기며 살아온 천년강국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유적유물이라도 더 많이 찾아내어 해방된 인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오래동안 함께 살아온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싸움에 더 힘차게 나설수 있습니다.》

그이의 격동적인 말씀은 학무를 비롯한 발굴대성원들에게 그대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

다음날부터 그들은 현지에 천막을 치고 침식을 하면서 발굴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렇게 찾아낸것이 안악제2호고분이였다. 리학무를 비롯한 발굴대성원들이 그곳 농민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함박피라던 산릉선이 주의를 끌어 그것을 목표로 하고 대담하게 발굴을 시작했던것이다.

그 고분은 다른 고구려고분들처럼 네면을 모두 통돌로 세우고 그우에 그림들로 꽉 채운것인데 전번보다 훨씬 발전된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벽면에 보이는 균형잡힌 정연한 완곡도와 고임천정의 정밀한 규격 그리고 주검칸 모서리마다 세운 그림기둥과 두공 소로들은 고구려의 높은 건축술과 재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였다.

벽화들은 또 그것대로 당시 고구려사람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안칸 좌우벽에 선 문지기장수들, 창을 잡은 무사대렬, 동서남북 벽면마다에 그려진 각종 무늬들, 녀인과 아이들, 실내생활도들... 그것을 보면 적어도 공주급이상에 해당되는 녀자무덤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것이였다.

《...벽화들은 회화의 기법이 독특하고 색채가 다양하며 질고 연한 변화가 풍부한것만으로도 다른 벽화들과 구별됩니다. 특히 동쪽벽에 그려진 비천문은 대상을 형상한 기법이 다양한것으로 모든 그림들중에서도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녀인의 웃음지은 얼굴, 따뜻한 살결, 날개윙을 입고 헤엄치듯 하늘을 나는 균형미, 부드러운

물동미는 미인도로서도 명작에 속할만 합니다. ...》

이번에도 리학무가 사진자료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 설명을 해드리었다. 온몸에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문화전통을 가진 궁지와 자부가 넘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이 기쁘고 만족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은 그것을 이루는 인간들의 지혜와 단합의지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고발전되는것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사이에 끼워 수많은 침략과 억압을 강요당하면서도 변함없이 자기를 지켜온것은 바로 민족성원들이 굳게 단합하여 외세를 물리쳤기때문이다. 그것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리학무네들이 고분을 발견한것이나 거기에 그토록 열성을 가지고 대하는것이나 다같이 수령님을 만족케 해드리었던것이다.

하기에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도 고분발굴사업과 함께 고증사업도 함께 벌리면서 고고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갈데 대한 과업을 명백히 안겨주시였다.

거기에 힘을 얻은 리학무네들은 또다시 힘찬 발굴사업을 벌려 세번째 고분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이 곧 안악제3호고분이였다. 제1호 고분이나 제2호고분에 비할바없이 크고 웅장한 고분이였다.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사업을 미루시고 직접 현지로 나오시였다. 현장에서 발굴대성원들과 함께 황해도의 책임 일군들이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먼저 리학무가 발굴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다. 수령님의 말씀에 고무되어 조사를 진행하던 중 멀리 남쪽에 큰 언덕처럼 보이는 산이 있어서 주민들과 담화를 해보니 그것을 하무덤이라고 한다는것이였다. 한것은 리조매의 어느 한 관리가 앞벌을 개간한 자기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 무덤을 쓰고 거기에 비석을 세웠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이 높다 하더라도 일개 지방관리가 이처럼 크게 무덤을 쓸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과 함께 이미 고분발굴에서 힘을 얻은 그들이 대담하게 발굴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상상밖의 크고 웅장한 고분일줄이야. ...

《평장합니다, 마치 돌로 지은 궁전을 땅밑에 옮겨놓은듯 합니다. 돌을 가지고 이렇듯 독특하면서도 웅장하게 건설한것은 당시 건축술이 대단히 높았다는것을 말해줍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분의 첫 입구에 들어서시며 하신 말씀이였다.

그것은 말그대로 지하궁전을 방불케 하는 여러 칸의 행랑과 무덤칸으로 구성된것인데 그 때칸 벽

체마다에 호화찬란한 벽화들이 가득차있었다. 그 벽화들만 하여도 당시 고구려문화의 정수를 반영한 일등급의 그림들이라고 할수 있었다.

《…행렬도만 하여도 수백명이나 될것 같습니다. 무사대렬같은 그림은 고구려의 강대성과 웅대한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듯 합니다. 참으로 이 고분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재부입니다.》

수령님께서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며 말씀하시였다. 학무는 가슴이 뻐근하도록 벅차올랐다.

《수령님, 이 귀중한 발견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가르치심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인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했던것을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야 말이나 했을뿐이지 직접 고분을 찾아낸 것은 동무들이 아닙니까. 발굴대동무들이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증을 잘해야 합니다. 고증을 잘하는것이 발굴사업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적으로 하겠습니다.》

학무가 일동을 대표하여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발굴사업못지 않게 고증사업을 잘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연구사업은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얼마 안 가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3

리학무는 갑자기 승용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차는 대도로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고있었다. 좌우로는 새로 지은 덩지큰 아파트들과 전후에 땅을 비집고 제멋대로 생겨난 키낮은 단층집들이 엇갈리며 다가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뜻밖의 광경에 영문을 몰라하는 학무를 미소어린 안광으로 바라보시였다.

《학무선생, 우리 잠깐 여기 건설장을 돌아보고 갑시다. 요즘 이곳 건설자들이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고있다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예, 신문에서랑 방송에서랑 더러…》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력사를 하든 수학이나 물리를 하든 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 발전을 추동하는 발판이며 날개와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리해를 못하는 학무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제1차 5개년계획의 두번째

해 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전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우리가 첫 3개년계획을 수행하고 계속하여 제1차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섰다는자체가 벌써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 나라가 100년이 걸려도 못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미 전쟁전수준을 돌파하고 앞으로의 5년을 내다보면서 계획경제를 실시할수 있게 되었기때문입니다.》

《수령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로선이 있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령님께서 온 나라 인민의 앞장에서 우리들을 이끌고계시지 않습니까.》

《민족이 위대하기때문입니다. 학무선생도 잘 알지만 우리 민족은 태고적부터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우수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족적전통이 오늘도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고있는 것입니다.》

학무는 또 무엇이라고 대답을 올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더 말씀드리지 못했다.

수령님께서는 미리 그러리라고 예견하신듯 스스로없이 차에서 내리셨다. 학무도 뒤따라 내리였다.

그러자 앞에는 거대한 장벽인듯 높고 긴 아파트가 우뚝 막아섰다. 아직 건설중인 아파트였다. 그 아스라하게 높은 꼭대기에서 건설자들이 호각을 불고 기발을 휘두르며 땅에서처럼 자유롭게 오가고있었다. 짧은 호각신호와 함께 작은 기발이 움직이는데 따라 거인인듯 높이 선 기둥기가 긴 팔을 휘두르며 좌우로 부단히 움직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흐뭇한 눈길로 작업모습을 보시다가 학무에게 말씀하시였다.

《여기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온통 폭탄구덩이, 물구덩이에 게딱지같은 단층집들만 늘어섰던 곳인데 어느새 저런 큰 집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건설자들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무엇인가 선명하게 안겨오지 않고 건설장의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 서먹서먹한채 서있는 리학무에게 설명을 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먼저 건설장 더 가까이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건설장의 지도일꾼들이 급히 마주달려오며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동무들이 건설속도를 또 앞당겼다는 말을 듣고 접해서 찾아왔습니다. 한세대분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이께서 마중나온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 물으시였다. 그중 한 일꾼이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 20분이면 됩니다. 전번보다 10분을 더 단축하였습니다.》

《20분이라, 대단하구만, 정말 대단해!》

그이께서 건설자들과 함께 리학무까지 돌아보시며 거듭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는 사이에 또다시 호각소리가 울리고 기중기가 와르릉거리더니 커다란 벽체를 물고 하늘로 들어올렸다. 아니, 그것은 벽체가 아니라 웅근 하나의 방이였다. 지상에서 조립된 집을 그대로 그 높은 꼭대기에 떠올려놓는것이다.

《저렇게 집을 높이 지으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할터인데 저런 폭탄구멍이 같은데는 지반이 어떻게 됩니까?》

《수령님, 우리는 폭탄구멍이보다 몇배나 더 깊이 파제끼고 기초를 다진 다음 만년대계로 짓습니다. 대대로 우리 인민들이 살 집이 아닙니까.》

《대대로라, 그 말이 맞아. 몇백년, 몇천년이 지나가도 여기서야 우리 사람들이 살지 판 나라 사람들이 살겠나. 동무들의 관점이 바로섰소.》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을 치하시며 다시 학무를 돌아보시였다. 그 말이 명답이 아니냐고 묻는듯한 시선이시였다.

순간 리학무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며 긍정을 표시했다. 수령님의 말씀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학무는 오늘이나 래일이 아니라 흘러온 먼 옛날로 거슬러올라가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학무는 수령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자기식으로 분석해보았다. 즉 우리 인민은 몇천년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다는것이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한것이 심중에서 고패치기 시작했지만 학무는 그것을 딱히 이름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수령님께서 다시 건설자들에게로 향하시였다.

《전번에 말하던 난방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짓는데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건설장책임자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대답올렸다. 어떤 사람들은 온돌식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빼찌까식을 주장하여 아직 확실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있다는것이였다.

《빼찌까식이라, 빼찌까...》

수령님께서 혼자소리로 되뇌이시였다. 그것은 그이께서 전번에 나오시였을 때에도 제기되어 이미 잘 알고있는 문제였다. 즉 일부 설계가들이 빼찌까식으로 난방을 하는것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하는 방법이고 추세라고 하면서 그 방식을 주장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결론도 하지 않으시였다가 해당한 경로와 필요한 대상들을 통해 더 깊이 료해를 하시고 명백한 결심을 세우신 다음 오늘 이곳을 다시 찾으신것이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론거

라도 들고나온게 있습니까?》

이윽고 수령님께서 다시 물으시였다.

건설장책임자가 대답을 올렸다.

《있습니다, 빼찌까식난방이 발전된 나라들에서 하는것이고 또 문명한 방식이라는것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천천히 리학무에게로 다가가시였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여유를 주느라 잠시 기다리시였다가 물으시였다.

《선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온돌식난방을 해야 하겠는가 빼찌까식난방을 해야 하겠는가. 어느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선생에게 여기로 오자고 한것은 바로 그 대답을 듣자고 해서였습니다.》

《수령님, 온돌로 방을 덥히는것은 우리 조상들이 태고적부터 해오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아 빠트라고 해도 온돌만은... 세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는 고유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없앤다는것은 민족성을 버리는것과도 같습니다.》

리학무가 당장 변이라도 날것처럼 헤덤비며 대답을 올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그를 만족스레 바라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웁습니다, 선생이 정확히 말했습니다. 온돌을 놓는것은 오직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풍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전에 동평양에 건너가 새로 지은 아 빠트에 들어가보았는데 그 집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키우자고 해도 그래 늙은이들을 모시자고 해도 그래 온돌식이 좋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도 따뜻한 아래목에 앉아서 며느리가 받쳐주는 밥상을 받는 재미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빼찌까를 놓아야 하겠습니까?》

《수령님,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벌써 조선사람이 아닙니다.》

《빼찌까를 발전된 나라들에서 놓는다고 하여 그것이 발전되었다거나 문명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지고들면 오히려 온돌식이 더 발전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온돌식이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기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오랜 세월 내려오며 형성된 고유한 풍속을 몇몇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하여 바꿀수는 없고 바꾸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리학무가 수령님앞에 굽석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였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둘러섰던 사람들속에서 요란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시며 건설장을 떠나시었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 황주 긴등벌을 지나자 어느덧 산들은 저 멀리로 물러가고 무연한 벌이 펼쳐졌다. 가을을 끝낸 들에서 프락포르들이 툭툭거리며 밭갈이를 하고있었다. 가렬한 전화속에서 조직된 농기계임경소들이 기운차게 은을 내고있는 것이다.

그때 임경소를 조직한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 하지 않았더라면 농민들은 아직도 이 넓은 들을 소로 가느라 있는 힘을 다 뺏것이다. 역시 이 땅우에 사회주의리상사회를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굳센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이 다같이 잘살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

《여기가 재령나무리벌이지요. 먹고남아 나무리라... 말뜻이 아주 그럴듯 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말씀하시었다.

자기나름의 생각에 잠겼던 리학무가 자세를 바로했다.

《땅이 넓고 기름이 저서 이름이 지어진것 같습나다.》

《웁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디 가나 살기 좋은, 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입니다. 하기에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이 생겨난 저 태고적부터 여기서 살아왔고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살고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에 와서야 지난 시기의 그 어느때보다 더 잘살아야지요.》

《모두 그렇게 알고 각오도 하고있습니다. 아까 수령님께서 5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저자신부터 그렇게 확신하고있습니다.》

《확신한단 말이지요. 웁습니다. 그 확신이 중요합니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하시었다.

《아까 학무선생이 온돌문제에 대하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온돌 하나에만 한한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것 즉 민족성을 지키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족적인것은 얼핏 보아서 큰 것 같지 않지만... 저 노래의 곡조나 춤가락, 지어 아이들의 놀음놀이에까지 속속들이 숨배여있어서 그 어느 하나도 변경하기 힘들며 일단 변경이 된다면 그 성격부터 달라집니다.》

《그것 보시오. 그만큼 민족성이란 공고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끊으시고 멀리 차창밖을 내다보시다가 계속하시었다.

《우리 력사학자들이 왜 이 문제를 크게 중시하

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성을 지키는데서야 력사학계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께서 화제를 문득 그쪽으로 돌리시는데 리학무는 저으기 놀랐다. 력사학자들이 민족성을 중시하지 않다니, 력사학이란 곧 민족적인것을 첫 자리에 놓고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학문이다.

아까의 그 온돌문제만 놓고보아도 자기는 바로 민족적인 립장에서 민족의 념을 놓고 그것을 주장하였다. 하다면 지금 그이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령님께서 다시 계속하시었다.

《안악3호고분 말입니다. 그전체가 고구려식이고 고구려사람들의 생활을 담고있는데 왜 그것을 고구려고분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력사학자들이 민족적자각과 주체적사관이 바로서있지 못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리학무는 그제야 번쩍 정신을 차렸다. 아니, 저도 모르게 와뜰 놀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전히 고분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거기에 사색을 집중하고계시었다는것을 이제야 알아차렸던것이다.

결국 그이께서 학무를 건설장에 데리고가시였던 것도 거기에 귀착된다. 즉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력사에 대한 관점도 바로세우라는것이다.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살려 남보다 더 빨리 앞서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힘찬 전진 운동에 발걸음을 따라세우라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고 승리한 인민인데 력사학계에서도 빨리 그들이 남겨놓은 식민지적인 예속과 굴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학무는 온돌에 대한 문제 하나에만 집착되어 자기가 필요한 때에 적중한 대답을 드렸다는 거기에 만족해있었다.

생각할수록 수령님앞에 죄스럽고 송구함을 금할 수 없었다.

고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자신부터 올바른 견해와 주관을 바로세우지 못하다나니 적지 않은 학자들이 저마다 자기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마저도 똑바로 지켜나갈수 없게 하고있는것이다.

바로 그때문에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수령님께서 이토록 먼길을 걸으시게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는 사이에 승용차는 어느덧 고분에 와닿았다.

4

그것도 역시 학무가 미처 알지 못한것이였다. 차에서 내리니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기하고있었다. 고고학학자들은 물론 여러 대학의

이름있는 력사학교원들, 력사박물관 관계부문 일군들이었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올리는 인사를 일일이 받으시고 말씀하시였다.

《학계에서 논의되고있다는 안악3호고분문제를 현지에서 함께 토론해보자고 내가 동무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민족사에 관한 문제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심중하게 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먼저 고분안으로 향하시였다.

그것은 영구보존을 위해 땅속으로 우불구불 굴을 파고 철문까지 굳게 해단 지하구조물안에 있었다.

그이께서 앞장서들어서시자 환히 켜진 전등불 아래 고분의 웅장화려한 모습이 드러났다.

연실, 앞칸, 후실, 동서랑쪽의 측실, 회랑 등 여러칸으로 된 방들의 벽체모두가 통돌로 되어있는데 그 모든 벽면마다에 아롱다롱한 천연색그림이 짝 차있었다. 수령님께서 이미전에 와보시기는 하였지만 이제 와보니 또 새로운 맛이 들어 연신 환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인공의 화상이 그려진 장방도, 그를 호위하는 위장병들, 의장대, 고취악대, 권법장사, 도끼를 든 부월수들, 왕과 함께 수백명이 행진해가는 행렬도, 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도구들과 거기에 복무하는 노복들의 작업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주인공의 화상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 문 좌우켠에 그려진 두 장하독 중 왼쪽의 장하독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이것이 문제의 동수라는 사람입니까? 목서를 보면 사시절도독제군사 운운... 창리현토대방태수라는 벼슬을 했다고 썼는데 그쯤하면 어느 정도의 벼슬에 해당되니까?》

수령님께서 동수라는 사람의 머리우에 씌여진 목서를 거침없이 읽어보시고 따라선 사람들에게 물으시였다. 리학무가 그들모두를 대신하여 대답을 드렸다.

《여러가지 많은데 그중 높다고 하는것이 후세의 정4품벼슬에 지나지 않습니다.》

《4품관이라면 겨우 군수에나 해당되고 중앙에 있었다 해도 당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호화찬란한 무덤을 썼으리라고 리해가 됩니까?》

《절대 그럴수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그리고 어째서 이 목서가 주인공이 있는 벽면이 아니라 이 장하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우에다 썼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보시오, 이 목서자체가 장하독 이 사람을 설명한것이 저안에 있는

주인공을 설명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것을 한결같이 인정한다는 자세였다.

그때 누군가 한마디했다.

《수령님, 그런데 문제는 동수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 유독 그 한사람의 력력과 함께 이름을 남겼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사실 어느 무덤에나 피장자이외의 문물을 남길수 없다는것은 기정사실로 되고있습니다. 보시는것처럼 랑쪽에 장하독이 다 같이 그려져있는데 왜 이쪽에만 밝혀져있는지 학술적으로 론증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 장내가 숨을 죽인듯 조용해졌다. 그것이야 말로 그들이 지금까지 론쟁을 하면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던 문제였던것이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도 거침없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학술적으로 론증이 안된단 말이지요?

학술이란 무엇입니까? 아마도 주어진 자료에 기초한 론자의 주장이겠지요? 내가 전에 강서 덕흥리무덤에 가보았을 때에도 그렇고 다른 모든 고구려의 무덤들은 묘지명이 안칸으로부터 주검칸으로 들어가는 문의 중심우에 네모난 방형을 긋고 그안에 먹으로 쓰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는데 왜 여기에는 주검칸입구는 고사하고 왼쪽 한켠에 그려진 남의 머리우에다 썼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당시의 무덤형식대로 하지 않고 이 한사람에게 치우쳐했는가 하는것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아니, 생각은 했지만 대답을 찾지 못했을것이다. 그만큼 수령님께서 말씀을 주실것을 바라는 눈들이 초롱초롱 빛났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번에도 다른 말씀없이 다음칸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행렬도가 그려진 방이었다.

그것은 수레를 탄 주인공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행진해나가는 대행렬도였다. 벽면에 보이는 사람만 하여도 이백 오십명이라고 했다. 아마 그를 따르는 전후배성원들을 다 그릴수 있다면 몇백, 몇천이 될지 알수가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행차를 4품관정도의 관리가 한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쯤한 일은 누구나 다 인정하리라 믿으시며 왕의 수레앞에 날리며 나가고있는 《성상변》이라고 쓴 기발을 가리키시였다.

《일본사람들은 이 성상기를 보고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들고나갈수 있다고 했대지요. 아마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인지. 지방관리들이 저마다 성상기를 날리며 왕행세를 해도 무방

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그러자 방안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웃었다.

긴장했던 장내가 어느덧 생기와 활기에 넘쳤다. 사실 그들은 지금껏 많이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리면서도 이렇듯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일례로 《성상》이란 이름이 왕을 가리키는 말이면서도 혹시 그렇게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주장에 우왕좌왕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대번에 그럴수 없다는 결론이 얻어지는것이였다.

《수령님, 무덤의 주인공이 왕이라는것이 틀림없습니다. 옛 기록에도 고구려의 왕은 백라관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백라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귀면부채가 쥐여져있는데 귀면부채인즉은 왕만이 가질수 있고 그자체가 왕을 상징하는것입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다시 무덤의 주인공앞에 왔을 때 누군가 설명을 해드렸다.

순간 리학무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누구보다 먼저 주장했어야 할 자기가 지금껏 말 한마디 못하고있었다는 자각에서였다.

사실 그자신도 무덤의 주인공이 동수가 아니라 왕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하면서도 문제의 동수라는 실재하였던 인물과 무덤속에 나타난 이름이 어떤 편관속에 있고 어떻게 되어 유독 그 이름만 찍여졌는가 하는 의혹속에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이번에도 고개만 끄덕이실 뿐 아무 말씀도 않으신채 다시 걸음을 돌리시였다. 부엌살림과 방아, 용드레우물, 수레, 외양간, 마구간 등이 그려져있는 바깥회랑이였다.

수령님께서 그 그림들을 이속하여 들여다보시다가 사람들을 향하시였다.

《동무들,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시오. 여기에 발방아가 그려져있는데 발방아를 우리 나라 말고 또 어디서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수령님, 그것은 조선에만 고유한것입니다.》

《여기에는 키질하는 모습과 용드레우물이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서 쓰고있습니까?》

《예, 그것도… 키는 조선에만 고유한것이고 용드레우물은 동방에서 조선사람만 쓰는것입니다.》

여럿이 거의나 일치한 소리로 대답올렸다.

학무도 폐외로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더욱더 그이의 말씀에 심취되어 자기가 미처 몰랐거나 똑바로 주견을 세울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때 수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이 부엌을 보시오. 아궁에서 불이 활

활 타고있는데 이 녀인이 지금 시루같은데다 무엇을 찌내고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궁이 온돌식이라는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칸이나 빼찌까식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온돌식아궁이란 말입니다.》

《웁습니다, 온돌식아궁은 세상에 우리 나라에만 있는것입니다.》

또다시 여럿이 일시에 대답올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그림에서 눈길을 떼고 돌아서시였다.

《그렇다면 말 좀 해봅시다. 이여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동무들이 나보다 더 잘 알겠기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면 여기에는 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방식과 풍습이 담겨져있습니다. 무덤전체의 형식을 놓고보아도 전형적인 고구려식이 다른 나라 식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온 망명객의 무덤이라면 고국이 그리워 서라도 제 나라 식으로 자기네의 생활을 담을것이 지 왜 고구려식으로 하였겠습니까.》

아까 여기로 올 때 내가 리학무소장선생과도 말을 했고 보기도 했지만 민족적풍습이나 전통은 좀처럼 변하지 않으며 오래 갈수록 오히려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온돌문제 하나를 놓고보아도 일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빼찌까를 놓으면 어떻게 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민들이 반대하고있습니다. 동무들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령님,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온돌을 놓아야 합니다.》

《수령님, 온돌식난방은 우리 민족의 상징의 하나이며 자랑입니다.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오. 아까 어느 동무가 편견과 외곡에 대하여 말했는데 이 모든것을 다 무시하고 몇개의 글자에만 매달려 그것만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그자체가 벌써 편견이고 외곡이 아닙니까. 비유해말한다면 옥에 묻은 티를 보고 이것은 옥이 아니라 티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장내가 숨을 죽인듯 조용해졌다. 자기들이 과연 왜 그랬던가 하는 생각이 사무치게 안겨들었던것이다. 많은것을 긍정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한두가지에만 매달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리학무가 바로 그랬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면 하나하나가 막혔던 숨결이 터지듯 시원하고 환하게 안겨온다. 하다가도 동수의 이름이 떠오를 때면 또다시 의혹속에 잠기며 앞뒤를 분간할수 없게 한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수령님께서 빨리 결론적인 말씀을 하여주실것을 기대하게 하였다.

바로 그 마음을 짐작하신듯 수령님께서 다시

문제의 동수그림앞으로 가시였다.

《하다면 왜 동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게 되었는가. 피장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력력까지 빼졌이 적혀 남아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령님, 저희들은 바로 그것을 풀지 못해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불시에 리학무가 간절한 소원을 담아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내쳐 생각하면서도 그때까지 고르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곧 도리머리를 하시였다.

《나는 력사학자가 아닌만큼 동무들만큼 알수 없고 가르칠수는 더구나 없습니다. 다만 한마디 할수 있는것은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팽철하게 고찰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 동수는 동무들이 말한것처럼 타국에서 망명하여 오래동안 고구려의 왕밑에서 복무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컸을것이고 또 무엇인가 남겨놓고싶은것이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다가 왕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때 무슨 유언을 남겼을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톡대고 후에 왕의 무덤을 쓸 때 누군가가 이런 장난을 했을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신임하는 시종무관이었던만큼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순간 장내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 갈데를 몰라 일렁이던 물이 한뫼으로 터진것처럼 생각들이 모아지게 했던것이다.

《수령님, 옳습니다. 일은 바로 그렇게 된것입니다.》

갑자기 리학무가 환성을 질렀다.

《수령님, 이 글자를 보면 그제 환히 알립니다. 여기에 마디 절자를 도읍 도자로 잘못 썼다가 지우지도 않고 그우에 덧자로 고쳐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을 쓴 사람이 조급하게 덤비거나 무성의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 호화찬란한 무덤에 어울리지 않게 끼여들었다는것입니다.》

그는 여기까지 단숨에 내리엿고 누가 자기 말을 가로채지 않을가 저어하듯 조급히 계속했다.

《그렇게 놓고보면 문제는 명백합니다. 방금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수는 고구려왕밑에서 스물두해나 시종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런만큼 왕은 그를 평시의 자기 위치에 새겨넣도록 유언을 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력력까지 새겨넣은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다. 리학무는 더 확신성있게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옳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누가 이 무덤 만드는 일을 주관했는가 하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동수의 뒤를 이

은 자손이거나 가까운 친척들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동수의 력력을 세세히 적어놓자고 하였는데 물론 그자체가 위험천만한노릇이었습니다. 하기에 틀린 글자도 지우지 못한채 조급하게 그우에다 덧써놓았던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령님께로 향하였다. 누구도 학무의 말을 의심치 않고 그이께서 확고히 결론만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번에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손을 내드시였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력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학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동무들이 결론을 해야지 내가 할일이 못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할수 있는것은 동무들이 이제야 주체적립장에서 객관적으로 력사를 고찰하는 방도를 찾았다는 그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동무들이 문제의 열쇠를 바로 찾아냈것 같습니다.》

《수령님, 그것은 전적으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것입니다. 우리 력사학이 이제 제발로 제길을 걸어갈것입니다.》

리학무가 위대한 수령님께 거듭 인사를 올리며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말을 유심히 들으시고 일행을 향해 몸을 돌리시였다.

《내가 동무들에게 민족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를 하는것은 사람이 민족의 녀을 잃고나면 제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머저리가 되고말기때문입니다. 몇해전 내가 어느 한 지방에 나가보았는데 그때 그들의 사무실에 씨비리의 흰곰이 그려진 풍경화가 걸려져있었습니다. 내가 왜 우리 나라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 같은 아름다운 경치도 많은데 하필 남의 나라 풍경을 그려다 걸었는가 하니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시오, 만약 우리가 다 그들처럼 제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 력사를 외곡하고 부정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조선은 력사도 보잘것 없고 문화유적도 이렇다하게 남겨놓은것이 없다는 식으로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민족의 열까지도 뿌리뽑아버리자는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고 앞으로 재침기회를 마련하자고 하는 본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체를 튼튼히 세우지 못하면 어쩔수없이 그에 말려들고맙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왜놈의 식민지로 되여야 하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동무들의 위치는 자못 중요합니다. 다시말하여 동무들은 민족의 녀을 지키고 주체를 살리는데서 누구보다 앞장에 서있다고 할수 있습

가 사

그리움의 해는 지지 않네

류 민 호

연백벌에 남기신 정 포전마다 어려있고
청산벌에 주신 사랑 집집마다 안고사네
영원한 우리 수령 우리 함께 계신 땅에
그리움의 해가 솟고 그 해는 지지 않네

강선이라 홍남이라 그 음성은 남아있고
거리들과 학교에도 그 영상이 안겨오네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있는 우리 인민
마음속에 그리움의 태양은 지지 않네

한평생 주신 사랑 이 강산에 영원하고
위대한 그 력사는 오늘도 흐르네
장군님의 손길아래 높이 솟은 주체조국
그 미소로 따뜻하고 그 뜻으로 영원하리

니다.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내세울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애국자입니다.》

순간 장내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쾌청한 하늘에서는 해빛이 찬연히 빛나고있었다.

어느새 알았는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인민들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책임일꾼들이 하얗게 모여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뜨거운 인사와 열렬한 박수에 답례를 보내시고 친절히 대화를 나누시었다.

《여기가 어러리별이지요. 저앞은 나무리 그리고 저뒤는 구월산...

참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장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조상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도 우린 이 땅을 뜨지 않고 저 구월산에 들어가 유격대를 못하고 미제와 싸웠습니다.》

마을의 좌상인듯 한 수염이 허연 로인이 수령님께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에 만족을 표시하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웁습니다. 이 땅은 어디 가나 우리 겨레가 태를 묻고 우리 민족끼리 살아온 곳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고유한 민족성이 창조되었고 바로 그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자랑스런 력사가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자손손 여기에서 살게 될것입니다.》

말씀이 끝나자 우렁찬 만세소리가 터져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 답례를 보내시고 다시 력사학자들에게로 돌아서시었다.

《동무들, 보시오. 우리 인민은 이 땅에서 살아

왔고 여기에서 민족의 고유한 념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민은 제땅에서 살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게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동무들이 주체적립장에서 모든것을 대하고 자기의것을 내세울 줄 아는 원칙에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켰으면 합니다.》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여럿이 일제히 대답을 올렸다.

리학무는 한걸음 나서며 정중히 말씀을 올렸다.

《수령님, 저희들은 이제야 똑바로 제 갈길을 찾았습니다. 제자신부터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학무를 뜨겁게 고무해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시며 그곳을 떠나시었다.

그이께서 타신 차가 큰길로 들어서자 벌은 더더욱 넓어지고 가을하늘은 더 한층 푸르러갔다.

×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연구사업이 심화된 결과 그후 안악제3호고분은 고구려의 제22대 왕인 고국원왕의 무덤이라는것이 확증되었고 이로써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그토록 외곡, 무시하려던 일본사람들도 더는 할말이 없게 되었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대동강류역의 수습기 고구려고분벽화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안악제3호고분을 비롯한 고구려고분들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인류문화의 재보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총서형식의 혁명소설이 개척되기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형상한 혁명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1970년대초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왕성한 투지와 정열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반영한 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고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도 하고 자료취해도 충분히 한 그들은 흥분과 신심에 한껏 넘쳐 필을 들었다.

하지만 원고지를 얼마 넘기지도 못했는데 붓이 도저히 나가지 않았다. 웬일일까? 몇사람이 그런것도 아니고 모두가 그러했다. 작가들은 들었던 붓을 놓고 작품의 구성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소설가들은 한결같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써오던 소설양상에는 도저히 옮겨놓을수 없는 너무도 방대한 사적들과 심원한 사상으로 가득찬 위대한 력사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다.

작가들은 토론과 논쟁으로 낮과 밤을 이어갔다.

작가들의 토론의 문제점으로 된것은 다른 작품들과의 통일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또 전기식으로 쓰겠는가 아니면 일반소설처럼 쓰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우리 식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였다. 작가들의 토론은 나중에 전기식으로 쓰느냐, 일반소설처럼 쓰느냐 하는 두가닥으로 갈라졌다.

서로 엇갈린 토론들은 일장일단을 가지고있었지만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그러던 주체60(1971)년 8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4.15문학창작단 사업을 친히 료해하시면서 작가들의 창작적고충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동안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창작을 추진하면서 론의를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무슨 일이나 실천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방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어떻게 소설문학에 옮기겠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는 수령님을 형

상한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창작실무적인 문제인것이 아니라 창작방향과 관련되는 매우 신중한 문제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력사를 큰 규모의 문학작품형식으로 형상한 경험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새롭게 개척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확신에 넘친 음성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몇편의 장편소설로 형상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몇개의 시기로 나누어 매 시기별로 서로 다른 제목을 달아 다부작형식으로 만들수도 있고 수령님의 혁명력사 전부를 포괄하는 하나의 총제목안에 주제별로 혹은 시기별로 유일번호를 달아 나갈수도 있을것이라고, 그러나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위대성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으로 보아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나의 총서형식으로 하면 매 장편소설들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작가들의 가슴이 확 열리게 하는 명철한 말씀이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서제목으로는 《불멸의 력사》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장편소설 《1932년》뿐아니라 수령님을 형상한 다른 모든 장편소설들을 모두 총서 《불멸의 력사》체계에 포괄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밝혀주실수 있는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매개 작품들이 총서체제안에 속하면서도 소설로서의 자기 특색을 갖추게 할뿐아니라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그리고 심오하게 형상해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서형식으로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더 잘 재현할수 있는 소설형식이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의 수령형상소설문학은 자랑차게 발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명 당 자 리

리 광 선

어찌 알았으랴
우리 수령님
인민에게 물려주신
그 고귀한 유산들속에
이런 자리도 있을줄을

어버이수령님 정력에 넘치시며
홍남비료공장 구내길을 걸으시며
설비의 대형화 새시대를 펼쳐주시던 그날에
이제 앞으로 생산규모가 더 커지면
이런 큰 압축기를 더 놓게 될것이라고
그날에 미리 남겨놓으신 이 자리

이 자리를 마주하니
문득
인민이 오늘도 그 혜택을 입고있는
행복의 그 모든 명당자리들이
다 떠올라
몽클해지는 이 마음

이 땅 그 어느곳엔들 없으랴
몰아치는 눈비바람 다 맞으시며
진펄속에 신발을 다 적시시며
우리 수령님 하나하나 찾아주신
공장자리 저수지자리 유원지자리...

인민의 복이 씨를 묻을
한뼘기의 터전도 없던 강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행복의 노래 올리게 하시고도

가 사

먼먼 미래의 복이 꽃피날 터전까지
다 마련하여주신
아, 수령님

한평생 인민에게 바쳐오신
위대한 사랑의 그 세계에
정녕 빈자리가 없었음을
홍남땅이 안고있는
이 귀중한 재부앞에서
새삼스러이 깨달은 마음이어

수령님 설계하시고 구상하신
그 모든것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이 땅을 통채로
행복의 명당자리로 빛내이시려
초강도강행군길에서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우리 장군님

그 고결한 헌신속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따라
날에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며
수령님 내다보신 그날을 향하여
홍남은 질풍같이 내달리고있거니

아, 진정 복종의 복
수령복이 넘치는 강산이어서
행성은 크고 세상은 넓어도
인민의 락원이 제일먼저 펼쳐질
유일한 명당자리가 되어
내 나라 사회주의조선이 빛나는것 아닌가

영 원 한 봄 노 래

김 정 삼

수령님 주신 땅에 주인된 기쁨 안고
봄씨앗 뿌려가며 부르던 봄노래
행복의 봄세상을 펼쳐주신 그 은혜
세월이 흐를수록 뜨거이 사무쳐
아 인민은 목메여부르네
수령님 안겨주신 행복의 봄노래

수령님 찾아주신 공장의 주인되어
힘차게 더쳐올린 창조의 봄노래
만복이 꽃피나는 부강의 봄 안겨주신

그 은혜 세월이 흐를수록 사무쳐
아 인민은 목메여부르네
수령님 안겨주신 행복의 봄노래

세상에 으뜸가는 봄락원 펼쳐주신
수령님 한평생 어려있는 봄노래
장군님 빛내시는 선군의 내 조국에
승리의 봄노래로 끝없이 울려가네
아 수령님 안겨주신 봄노래
사회주의 이 강산에 끝없이 울려가네

피 줄 기

리 성 애

길을 가도 그 마음의 한끝은
아버이수령님께 이어진 길
꿈을 꾸어도 그 꿈
아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가는 꿈

그 길을 내가 간다
우리 장군님 놓아주신
금수산기념궁전 외랑의 승강기 타고
언제나 뵙고싶은 아버지수령님 찾아

가슴뜨겁구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지누나
서서히 흘러가는 승강기에 실려
그리움의 세월과 함께 가는 이 길

천년세월 날아가지 않을
울타리의 학들도 따라서는 길
만년세월 펄럭일 공화국기는
그리움의 세계 하늘가득 펼친다

아, 사랑의 승강기에 실려가는것
어찌 나와 우리의 몸뿐이라
아버이수령님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며
그리움의 날과 달과 세월이 함께 가거니

승강기 타고 갈 때면 생각되여라
이 길을 열어주신 장군님사랑이
아버이수령님과 인민사이
영원히 이어놓은 그리움의 피줄기처럼!

선 생 님 처 럼

위 명 철

한 가정을 이끌고
자식들을 키우며
끝없는 행복속에 세월은 흘러가도
력사의 새벽길에 남기신
김형직선생님의 그 말씀 잊을수 없어라

...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싸우고
아들이 싸우다 쓰러지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찾아야 한다

...

산설고 물설은 이역땅에서
빼앗긴 조국을 찾으시려
한생을 다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자신의 몸을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정을 겨레를 위해
헌헌히 바치신 한생
한없이 고결하신 선생님의 그 뜻

한 가정만을 위했다면
오늘이 없었으리

자신만을 위했다면
선혈이 흐르는
망국의 력사는 계속되었으리

행복한 오늘의 세월
나의 삶 참답게 빛날수록
위대한 선생님의 한생
위대한 헌신의 력사를
고마움에 젖는 마음으로
내 순간순간 되새겨보거니

자신이 걸던 그 길에
우리 수령님을 세워주시고
만복이 꽃피는 오늘을 그리시며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억척같이 싸워오신 김형직선생님

내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다짐하노라
지원의 사상으로 밝아온 이 땅
장군님령도로 변명하는 조국을 위해
선생님처럼
선생님처럼
강성대국을 위한 길에
나의 삶 나의 가정 아낌없이 바치리

친위전사의 총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지금도 항일무장투쟁시기 정숙동무가 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서슴없이 내대던 일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시교 우리 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오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전설적인 명사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은 한생을 총대와 같이 살아오시였다고, 어머니은 뛰어난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틀어쥐시였던 수령결사옹위의 총!

항일의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야무지게 울리던 김정숙동지의 백발백중의 총성에 귀기울이느라만 총대를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성스러운 붉은기아래서 다지시던 력사의 맹세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려준다.

《...이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잡으며 이 총알 한발을 백발로 알고 원주를 쏘겠습니다.》

그날의 맹세를 안고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잡으신 그때부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흥기하전투, 대사하치기전투를 비롯하여 총포란이 비발치는 격전장들마다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 하다면 보는 사람들마다 경탄을 자아내는 백두산녀장군의 신비하고 뛰어난 사격술, 이것이 과연 그이의 천성이었던가.

이에 대한 대답을 주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해방후에 있는 일이었다.

어느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이날 백두산3대장군을 모시는 영광을 지니였던 경위대원들은 맑게 개인 하늘에 날아에는 새매를 보고 김정숙동지께 명사격술을 보여달라고 요청하

였다. 그들은 김정숙동지께서 놀라운 사격술을 지니고계신다는것을 소문으로만 들은 신입대원들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그들의 요청을 사양하시였다.

그때 옆에 계시던 김보현할아버님께서도 《아서라, 나는 새를 어떻게 맞힌다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총을 잘 쏜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였으나 살같이 나는 새야 무슨 수로 맞힐수 있으랴 하는 우려에서였다.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고나서 김정숙동지께 한번 쏘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경위대원에게서 보총을 받아드시였다. 하늘높이 날아에는 새매는 하나의 점에 불과했다.

뒤이어 《땅!》하고 한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새매는 돌덩이처럼 땅에 떨어졌다. 경위대원들은 《야! 야!》하고 환성을 울리며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과시 듣던바 그대로이군.》하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이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총을 잘 쏘수 있는가고 묻는 경위대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경위대원들의 총에서는 단 한번의 헛방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열심히 참가하면 누구나 명사수가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깨우쳐주시였다.

정녕 그렇다.

단 한방도 헛방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친위전사의 총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한목숨 바쳐 결사보위해야 한다는 친위전사의 투철한 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었다.

그날에 하신 김정숙동지의 뜻깊은 말씀은 우리의 백두산혁명장군이 틀어진 서리발총검마다에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새겨주며 오늘도 세차게 울리고있다.

장 시

장 군 님 과 김 철 녀 인 들

전 승 일

불노을속에 해가 쏘고
불노을속에 달이 쏘는
사나이들의 일터 김철
허나 내 오늘
불을 다루는 억센 사나이들만이 아닌
김철녀인들에 대한
레찬의 노래를 부르려다

×

주체철용광로며 강철1직장
붉은 강편이 파도쳐흐르는
열간압연직장을 거쳐
우리 장군님 기업소 연혁소개실에 이르신것은
기승치던 찬바람도 잠잠해진
12월의 정오

1년도 못되는 나날
거대한 용을 쓰며 내려쳐오른
장한 김철의 모습에서
크나큰 감동에 젖으신 장군님
그이의 시선은 수많은 영웅들과 공로자들의
위훈을 소개한 벽면
그아래 놓여있는
소박한 두권의 책우에 문득 멈추신다

푸른 책표지에 토박토박 박아쓴
전투기록장과 글작품집
그밑에 수줍은듯 《녀성과외지원대》란 글발...

귀한 보물을 발견하신듯
성큼 다가서시며
손에 펼쳐드시는 그이께
기업소책임일군 말씀드린다
하루일을 다 끝내고 저녁여가시간
두세시간씩 자원적으로 나와 일하는
김철녀인들의 글작품집이라고

저녁여가시간?!
녀성들에게 저녁여가시간이라니
저녁시간이면 제일 바쁜것이
녀성들이 아닌가

탁아소 유치원에서
아이들도 찾아오고
한껏 땀을 쏟고 돌아오는
남편들도 맞이하고
때맞춰 식구들의 저녁상도 차려야 할
이런 녀인들에게 저녁여가시간이라니?!

한장한장 번져가시는
장군님의 생각은 깊어지신다
이 나라 그 어디 가나 만나는
평범한 녀인들
녀인들의 구슬같은 땀과 옥같은 지성이
세상을 들었다놓은
주체철쇠물의 기적에
이리도 질게 숨배여있었던 말인가

하다면 무슨 힘이
눈오나 비오나 일년세월
이 녀인들의 저녁퇴근길을
따스한 집이 아닌
주체철용광로의 철계단을 오르내리게 했던가

장군님께선 눈길을 떼지 못하신다
조용히 웃고있는 담담한 녀인의 사진
주체철용광로 로장의 안해란다
그옆에 전투기록장에 적혀있는 한구절
—저희들을 막지 말아주세요
장군님께선 저희들의 남편들을 보고
나라의 만아들이라 하셨는데
만아들결엔 맘머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한해전 이맘때
번쩍이는 눈굽을 훑치던
주체철용광로 로장의 부리부리한 얼굴이 떠오르
신다
—장군님 믿어주십시오
기어이 주체철 쇠물바다를 펼쳐놓고
나라의 만아들의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아, 그날 그 로장의 담대한 배짱의 절반은
그 안해의 힘이 아니었던지

녀인의 힘이 이리도 강한줄 어이 알았으랴

주체철용광로야 팡팡 배부르게 먹고
부디 붉은 쇠물을 어서 끓여내다오
장마철 억수의 비줄기를 맞으며
수십밤 달리고 또 달렸다는 이 녀인

갈피갈피마다에
백설같은 순정과 금강석같은 의지가 실려있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다 안아보시며
한장한장 무겁게 번지시는 장군님

문득 어느 폐지에선가
시집은 첫해
시어머니 생일날 저녁에 적어보냈다는
새색시의 젖은 목소리

—오늘 저녁 열한번째 화입식이 있답니다
장군님 기다리시는 주체철 붉은 쇠물을 위해
남편과 함께 저도 불을 지피고싶어요
남들보다 훌륭히 살라고 늘 이르시는 어머니
밤늦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어찌 이런 김철이 용감하지 않으랴
어찌 주체철 기적의 쇠물을 끓여내지 못하랴
김철아, 활화산같은 힘을 터치라
절절한 이 하나의 소원을 안고
억센 심장들을 불덩이로 달구고 떠밀어주는
이런 녀인들이
나라의 만머느리로 살고있지 않는가

세번 네번...
겹쳐드는 실패를 눌러딘고
다시 또다시 쌓아야 했던 주체철용광로
하루밤새 손으로 연마했다는 내화벽돌만도 천수
백장

제집 쌀독에서 갈라낸 낱알로 만든
송편이며 두부며를 이고지고
주체철용광로로 달려온 그 지성을
어찌 수자로만 헤아릴수 있으랴

—몹시도 피곤하다
내가 나른 벽돌이
아마 한차쯤은 될거야
그래도 나는 가야 해
이 저녁 철이와 남이한테
파외복습지도를 약속했지
쇠물이 내 사랑이라고 곧잘 웃기는
여보, 웃으며 저녁식사 드세요

제철지구 중학교 어느 녀교원이 썼다는
일기글의 한토막...
장군님의 눈언저리에
더운것이 번뜩인다

매일같이 일터로 밀려오는
녀인들의 이 흐름 막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온 도시의 녀인들이 왔을것이라고
기업소책임일군 말썽올리는데
또 한장 번지시는 갈피우에
상글상글 웃고있는
애어린 단발머리 고운 얼굴

—가고싶어요
화장을 곱게 하고
불밝은 극장과 영화관에도
걸고싶어요 바다가 백사장도

하지만 못 가요
나는 안 가요
이밤도 쇠물소식 기다리실 아버지장군님
나도 아버지장군님 아시는
김철의 막내딸 되고파요

뜨거운 걱정을 누르시듯
크게 호흡하시는 장군님
번쩍 머리를 드시는 그이의 음성
연혁소개실을 울린다
—얼마나 장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녀성애국자들입니까

거세찬 비약의 폭풍 부르며
거연히 머리 추켜든 김철
이 담찬 사나이들 철의 군단속에
꽃이 되어 기발이 되어
뜨거운 진정 쇠물처럼 끓여가는
아, 김철의 이 녀인들에게
정녕 온 세상이라도 통채로 안겨주고싶으셨나니

—이 녀인들에겐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소
가정의 밥가마보다
주체철용광로를 더 먼저 끓이며 살아온
이 녀인들은 모두다 애국자들입니다

창문너머 주체철용광로의 붉은 화광 충천하는
하늘가를 바라보시는 장군님
장군님마음속으로 달려오고있었어라

로장의 안해며 숫저운 새색시가...
 사랑스럽고 미더운 김철의 녀인들
 나라의 만며느리들이 달려오고있었어라

×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끝끝내 주체철을 탄생시킨
 불굴의 김철
 선군조선의 기관차마냥 폭풍쳐달리는
 이 김철의 억센 한쪽수레바퀴가 되어준
 아름답고 강직한 녀인들을
 정녕 온 세상에 소리치며 자랑하고싶으셨나니

—온 나라에 크게 내세웁시다
 김철의 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선의 녀인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누구도 몰랐더라
 남편들을 나라의 만아들로 내세워주신 고마운
 장군님앞에

다만 량심과 의리로 묵묵히 바쳐온 땀방울
 그 한방울한방울을 우리 장군님
 얼마나 진주보석처럼 안고계시는지
 얼마나 위대한 심장속에 품어안고계시는지
 김철의 녀인들 아직은 누구도 몰랐더라

강성대국조선의 억센 기둥이 될
 주체철 붉은 쇠물을 안으시고
 또다시 전선천만리길 이어가시는 장군님
 조국과 민족의 만대의 운명을 책임지신
 장군님의 뜨거운 심장속에서는
 소박한 진정 글줄마다에 숨배여있는
 전투기록장, 글작품집 그 페이지페이지들이
 오, 밤새도록 번져지고 또 번져지고있었어라

일찌기 우리 당력사가 알지 못하는
 사랑과 믿음이 쇠물처럼 끓어넘치는 장내
 당원증을 받아안은
 꿈만 같은 영광앞에
 믿어지지 않는 행복앞에
 김철의 녀인들은 목메어웨셨나니

—아버지장군님
 그 무엇으로
 이 사랑 이 믿음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강철은 넘려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만아들이 김철을 지키고있는 한
 나라의 만며느리들이 남편들과 함께 있는 한
 나라의 강철뿔은 모두 우리가 맡겠습니다

강철은 불속에서 단련되고
 인간은 투쟁속에서 단련되는 법
 나라없던 어제날
 울밑에 처량한 봉선화들이
 오늘은 혁명의 붉고 억센 꽃으로 피어
 쇠물의 붉은빛 더 짙게 물들이며
 강철산악의 그 어디에나 활짝 피어
 녀성혁명가로 성장하거니

...그때로부터 며칠후
 녀성과외지원대의 대오는 성장하여
 쇠물의 흐름과 함께
 강철지구의 구내를 굽이쳐흘렀다는것을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상 식

노 우 하 우

노우하우(기술비결)는 지적재산의 범위에는 속하지만 법이 인정한 지적소유권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공업소유권은 해당 발명을 창조한 발명가가 자기의 발명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그 기술에 대한 독점적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면 노우하우는 비공개방식으로서 극히 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리용하는 형식으로 보호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노우하우는 새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오래동안 축적완성되는 과정에 얻어진 독특한 기술, 고도로 숙련된 기능으로서 매우 높은 경제적가치를 가진다.

노우하우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조립도면, 기계설계도면과 배치도, 재료의 선정방법과 관리방법, 조작법, 기술기능 경험 등 비밀로 되어있는 새로운 생산기술지식과 경험들이 속한다.

《우리의 문학예술혁명의 역사는 새로운 주체적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의 역사였으며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자랑찬 승리의 역사였다.》

김 정 일

백두산위인들의 경도따라 발전해 온 《조선문학》잡지의 65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게 되는 주체101(2012)년을 앞두고 올해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중요기관지의 하나인 《조선문학》잡지창간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창간 65돐을 맞으며 우리는 잡지에 잇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35(1946)년 7월 25일 《조선문학》잡지의 전신인 《문화전선》창간호를 보아주시며 그만하면 내용이 좋고 괜찮다고,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문학잡지를 보니 감개무량하다시며 것처럼 기뻐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자애로운 영상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주체35(1946)년 8월 1일 잡지를 보아주시고 잡지를 참 잘 만들었다고, 잡지에는 앞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밑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실었다고 그리고 그뒤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작성하신 《20개조정강》을 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머님께서 앞으로 《문화전선》이 문학예술부문의 전문잡지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여러가지 좋은 글을 많이 싣고 소설, 시, 노래 등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그래야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크게 고무할수 있고 잡지가 더 인기있는 출판물로 될 것이라고 뜨겁게 가르쳐주시였다.

나라가 갓 해방된 다음 작가들은 새로운 문학,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문학을 어떻게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더

우기 남녘땅에 기여든 미제는 저들의 썩고 병든 반동문화를 퍼뜨리는 한편 조선민족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이러한 실태는 민족문화건설에 관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제시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 24일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를 발표하시여 우리의 민주조선건설에서 문화인들의 역할과 사명, 투쟁과업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민주조선건설에서 동무들의 사명은 매우 무겁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동무들은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이라고, 동무들에게는 동무들의 입으로, 동무들의 붓으로 조선사회를 뒤결음질치게 하려는 반동세력을 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애국주의와 민주주의정신으로 교양할 책임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전선에서 싸우는 투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려면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문제 등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밖에도 여러 고전적로작들을 편이어 발표하시여 해방후 우리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

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창조의 기본력량인 작가대렬을 먼저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해방전부터 애국적인 창작활동을 해오던 진보적작가들을 우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새로운 문학창작사업, 해방된 조선의 문학창작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한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서 신인작가들을 빨리 키우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었다. 그리하여 해방후 빠른 시일안에 작가, 예술인들을 망라한 북조선예술총련맹이 결성되게 되었으며 후에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주체35(1946)년 7월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작가들이 창작해낸 작품들을 실는 잡지가 나오게 되었다.

해방후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면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의 웃음넘친 모습을 여러가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새로 창간된 《문화전선》잡지에 실었다. 잡지에 실린 모든 글들은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수 있는 대중적언어로 표현되고 조선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구현하였다. 더우기 해방전 문학작품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울분과 비애와 슬픔의 감정대신 해방된 조국땅에서 모든 인민들이 약동하는 현실에 열렬히 긍정하고 래일에 대한 혁명적락관으로 차고넘치는것이 특징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람에 의하여 《문화전선》잡지는 그후 《문학예술》잡지로 또 주체42(1953)년 10월부터는 제호를 《조선문학》으로 바꾸게 되었다. 잡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대변자로, 작가들의 친근한 길동무, 작가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달마다 기다리고 즐겨보는 잡지로 나날이 발전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조선문학》잡지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걸음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잡지들에 실린 수령형상작품들을 보시고 높이 평가하여주시면서 수령형상작품들과 함께 혁명전통주체의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실어야 한다고 뜨겁게 가르쳐주시었다.

돌이켜보면 잡지의 65년간의 력사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력력히 어리어 있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와 또 준엄한 조국해방

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 그리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어서빨리 열려고 용감히 투쟁하고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발행되어 온 잡지에 실린 모든 작품들은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언제나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잡지에 실린 모든 글들은 사상예술성과 함께 인식교양적의의가 비교적 높은 성과작들로서 주체문학, 우리 선군문학발전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 65년간 《조선문학》잡지에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수많이 실렸다.

이는 우리 모든 작가들이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작품 한편한편을 심혈을 기울여 창작해냈기때문이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만 놓고보아도 《그이를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시》, 《빛나라 그 이름 **김일성**장군님》 등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노래한 송가작품들과 단편소설 《개선》, 《장군님을 맞는 날》 등을 비롯하여 수령을 노래한 수많은 문학작품들로 잡지의 지면들을 빛나게 아로새겼다.

또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 등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들마다에서 잡지는 언제나 자기의 본색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고 강화하였다.

특히 진실성과 철학성이 보장된 수많은 백두산3대장군들을 형상한 작품들이 잡지의 지면을 빛나게 하였다.

단편소설들인 《력사의 자취》, 《맑은 아침》, 《크나큰 사랑》과 《영원》 등이 훌륭하게 창작되어 잡지의 지면에 나타났다.

잡지는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작품들도 수많이 실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소설의 첫 형태는 단편소설이었다.

우리 《조선문학》잡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을 처음으로 실는 크나큰 영광과 자랑을 지녔다.

잡지들에 실린 단편소설 《고향길》, 《고요》, 《맑은 물소리》, 《위대한 구상》, 《조선시간》 등은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고매한 인민적품모, 덕성을 훌륭히 형상한 작품들이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노래한 많은 시가작품들과 예술산문들도 잡지에 실었다.

이뿐이 아니다. 잡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우러러 칭송한 많은 단편소설들과 시가, 예술산문들도 실었다.

실로 《조선문학》잡지는 창간호를 낸 때로부터

지난 65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과 더불어 수령형상문학을 핵으로 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인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주제, 조국통일주제 등 작품들도 실음으로써 주체문학, 선군문학의 얼굴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빛나게 부각하였으며 오늘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다. 이는 잡지가 오직 당과 수령의 위업을 받들고 실현해나가는 당의 출판물로서 자기의 시대적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문학작품들을 명작들로 창작해내고 편집해내는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의 영예는 끝없고 무한히 행복하다.

《조선문학》잡지는 언제나 모든 작품들을 재미있게 만들뿐아니라 잡지를 더 문화성있게 만들기 위해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이 언제나 고심어린 탐

구를 해야 한다.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잡지를 보시고 주신 위대한 가르치심들을 항상 명심하고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이 잡지를 더 잘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여야 한다.

오늘의 선군시대 작가들과 《조선문학》잡지 편집일군들이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명작 소설, 시, 평론,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더 많이 써내고 잡지를 만들어내는것은 **김일성**민족을 온 세상에 자랑떨치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모두는 《조선문학》잡지창간 65돐을 맞으며 당의 작가, 편집일군이라는 끝없는 자랑 안고 **김일성**민족,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조선을 더 찬란히 빛내이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편집해냄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가야 할것이다.

수기묵음

령도자와 우리의 《조선문학》

《조선문학》에 대한 그지없는 사랑과 정을 가슴에 안고 편집부를 떠난지도 어느덧 3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가끔 동료들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우리 편집부는...》, 《우리 편집부에서는...》하고 말하는 자신을 느끼곤 한다.

젊은시절에 인연을 맺은 《조선문학》잡지 편집원으로서의 긍지감과 애착이 수십년세월이 지나간 오늘날에도 나의 마음속 한구석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있는것이다.

그 시절 나는 자신이 편집하는 《조선문학》잡지를 무척 사랑하였다. 그 애정이 바로 작가들을 찾아 지칠줄 모르고 조국의 대지를 메주밟듯 하게 하였고 온 심혼을 쏟아붓게 하였다고 나는 부연한다.

돌이켜보면 그 애정의 뿌리는 판데 있지 않았다. 조선문단의 얼굴이며 문학운동의 대표적지면인 《조선문학》잡지에 대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령도, 크나큰 사랑이 바로 편집원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나를 끝없이 매혹시켰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조선문학》잡지가 걸어온 65년의 력사야말로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의 력사,

사랑의 력사라고 돌이켜 추억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다.》

주체35(1946)년 7월 25일 《조선문학》잡지의 전신인 《문화전선》창간호를 친히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잡지에 부어주신 은정과 활력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나는 내가 직접 목격하였거나 전세대 일군들과의 이야기에서 알게 된 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몇가지를 간추려 이 글에 적으려 한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우리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의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문학》잡지의 사명과 임무를 명철히 밝혀주셨을뿐아니라 잡지에 실리는 작품의 내용에서부터 편성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찌기 청소년시절부터 《조선문학》잡지를 애독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잡지에 실리는 좋은 작품들을 영화로 옮기는것이 좋다고 하신 가르치심은 실로 커다란 은을 뱉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 단편소설 《불타는 섬》, 《애착》, 《길동무들》 등 적지 않은 작품들이 바로 영화로 옮

겨져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서적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조선문학》잡지에서 단행본으로 미처 출판되지 못한 작품들을 시기성있게 편집하는데 대해 만족해하시면서 《조선문학》잡지에 편재되고있는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과 《첫 수학》을 학생들이 많이 읽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또한 장군님께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온 나라가 사회주의공업화의 열풍을 일으키며 전진하기 시작하던 격동적인 시기에는 《조선문학》잡지를 비롯한 정기간행물들이 비약하는 시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배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것을 료해하시고 신문이나 잡지는 시기성을 잃으면 인기가 없다고, 신문은 매일 아침일찍 받아야 볼맛이 있고 잡지는 매 월초에 받아야 새로운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출판물이 제때에 대중의 손에 닿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선문학》잡지에 실리는 한편한편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었으며 그때마다 따뜻한 조언을 주시었다.

주체48(1959)년 4호에 실린 회곡 《불사조》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을 보아주신 장군님께서 좋은 작품을 많이 편집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전형을 창조해야 한다고, 특히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우리의 문학예술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시었다.

실로 우리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이 있어 《문화전선》(1946년 7월 25일 발행) 첫페이지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실는것으로부터 자기의 첫걸음을 댄 지난 65년간의 《조선문학》잡지 매 호는 조선문단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보여주고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주체63(1974)년 4월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시 《조선문학》잡지에 실리는 단편소설의 1년간 편수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문학잡지들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단편소설을 많이 실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단편소설의 편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며 주제의 폭도 넓히자면 일군들이 단편소설창작을 중시하고 편집원들

의 수준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시었고 결작의 밑바닥에는 편집원의 숨은 노력이 스며있다고, 동서고금의 대문호들의 작품도 편집원의 손을 거치지 않은것이 없다고 하시며 편집원의 수고를 따듯이 헤아려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문학》잡지에 나가는 소설이나 시만이 아니라 평론에도 주의를 돌리시고 평론은 창작이라는 새로운 문예학적해명을 주시면서 《조선문학》이나 《조선예술》에 실리는 평론은 《로동신문》에 나가는 판평과는 달리 철저히 문예학적인 평론으로 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잡지의 편집을 그 사명과 임무에 맞게 하도록 세심히 일깨워주시었다.

실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문학》잡지에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65돌기의 년륜과 더불어 《조선문학》잡지는 우리 문단을 꽃피우고 수많은 쟁쟁한 작가들을 키운 비옥한 토양으로 되었으며 조선문단의 얼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조선문학》에서 읽고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 오늘날 조선문단의 당당한 중견작가들로 되었으며 많은 편집일군들이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일군들로 자라났다. 나 역시 그 나날에 공훈기자로, 4.15문학창작단의 작가로 자라나게 되었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떠나서는 《조선문학》잡지의 영광스러운 발전로정을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조선문학》잡지는 우리의 모든 작가들에게서 정다운 《우리 잡지》로 불리우고있으며 광범한 독자대중들속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조선문학》편집원시절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흘러간 시절이라고 크게 자부한다.

나는 나의 작가적성장의 밑거름으로 고이 간직되어있는 《조선문학》잡지에 대한 사랑과 긍지, 자부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은 창작성으로 받아들인 1970년대의 창작기풍과 일본새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발휘하여 몸은 늙었어도 언제나 수령형상창조의 제일선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라는것을 확인한다.

최 봉 무

《 조 선 문 학 》 잡 지 와 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창간 65돐을 맞는 《조선문학》잡지편집부로 부터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보니 무슨 이야기 부터 해야 할지...

생각단끝에 나는 시인이 되게 된 동기로부터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나는 소학교시절과 중학교시절을 문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환경속에서 보냈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칠길과 멀리 떨어져있는 외진 산촌마을에서 산 나는 문학도서나 문학잡지 한권을 얻어보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어쩌다 남의 집 뒤고방에서 덩굴고있는 앞장, 뒤장이 몇장씩 떨어져나가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설책이나 시집, 동화집도 가림없이 기쁘게 읽었다.

조숙한 사람들은 벌써 소학시절부터 문학에 뜻을 두고 앞으로 작가가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나는 중학시절에도 작가가 되려는 그런 엄두는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된것은 문학에 대한 자극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만 한 환경이 내 주위에 없었던탓도 있으리라곤 본다. 중학시절의 문학교원은 체육과목을 겸하고있었다.

그러나 타고난 취미라고 해야 할지, 문학에 건잡을수없이 끌리고 책을 얻어쥐면 밤을 새워가며 읽었고 닥치는대로 몇번씩 읽기도 했다. 어느 동무네 집에 소설책이나 동화집이 있다면 산골길 10리건 15리건 수업이 끝나면 따라가서 빌려보기도 했다.

그러나 내 주위에는 문학을 하려는 사람도 작품을 토론하고 지도받을만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혼자서 향방도 없이 시나, 소설이나, 아동문학이나 하는 목표도 없이 헤매며 애쓸뿐이었다.

이 기회에 말하고싶은것은 지금의 문학통신원들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그것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작가양성을 위한 정연한 교육체계가 서있으며 해마다 정기적으로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강습이 각 도별로 진행되고있으며 여기에 역량있는 작가들이 지도교원으로 되고있지 않는가. 나는 고졸을 졸업할 때까지 작가라는 사람은 먼 발치에서조차 보지 못했다. 아마 그 시절에 나도 작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문학의 길을 걸었다면 발전도 빨랐을것이며 지금보다 더 능력있는 작가로 될수 있지 않

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나에게도 선생이 생겼다. 아마 중학교 2학년때인 15살쯤 되는 해였던것 같다. 여러개의 농촌리들을 담당하고있는 우리 마을 우편국에 편지부치러 갔다가 각 리들에 배포하려고 갈라놓은 출판물우에 《조선문학》이라는 표제를 단 잡지가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조선문학》! 이런 잡지도 있는가?

너무 호기심이 나서 우편통신원이 다치면 안된다고 말하는것도 듣지 않고 무작정 뵙아들고 펼쳐보기 시작했다. 시, 소설, 평론... 어떻게 하면 이 잡지를 다 읽어볼수 있을까. 나는 우편통신원아바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아니, 사정했다기보다 떼를 썼다. 나는 그 아바에게 오늘 배포하지 말고 내 오늘 밤중으로 잡지를 다 볼테니 래일 배포해달라고 애걸하다싶이 했다. 그렇게 간절히 사정했더니 정 그렇다면 잡지를 빌려줄수는 없는데 마침 오늘 밤에 자기가 경비를 서는데 경비실에 나와서 보라는것이였다. 그래서 하루밤을 꼬박 밝히며 잡지를 첫줄에서 마지막줄까지 다 읽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조선문학》잡지와 상면하게 된 55년전의 이야기다. 《조선문학》잡지와 의 상면, 이때로부터 나에게 없던 선생이 생겼다. 외진 산촌마을의 외토리문학초학도가 비로소 말없는 선생, 친근한 스승을 만나게 된것이다. 《조선문학》잡지는 작가들은 물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수도 있다.

조선문학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문학》잡지를 통해 실로 많은것을 배우며 리론실천적으로 작가적기가 자라게 된다.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로선을 해설하는 론설들과 시기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적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들, 작가들의 창작경험과 문학소식들을 실은 기사들...

아마 이때부터 나도 이런 작품들을 써보리라는 욕망과 작가가 되리라는 결심을 가지게 된것 같다.

하지만 평양에서 천리나 떨어진, 그것도 외진 산촌마을에 사는 나에게 있어서 《조선문학》이라는 잡지는 아득한 높이에 있는 오르기 어려운 존재처럼 생각되였다. 더우기 그 잡지에 작품을 발표한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었다.

그런 나에게 행운이라 해야 할지, 좋은 기회가 차례졌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당시)를 졸업하고 문학예술출판사에 배치됨으

로써 《조선문학》잡지편집부를 한지붕아래, 곁방에 두고 편집기자생활을 하게 된것이다. 9년간 가까운 세월을 편집기자로 일하면서 《현대문학》편집부(당시), 《아동문학》편집부, 《청년문학》편집부를 비롯한 여러 편집부들에서 일했으나 《조선문학》잡지편집부에서는 일하지 못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없었던 듯싶다.

나는 첫시를 주체55(1966)년에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직접 상면한 셈이다. 내가 첫시라고 하는것은 그 이전에 도일보와 여러 중앙신문들에 20여편의 시를 발표했으나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시를 흔히 말하듯 문단에 첫선을 보인 작품으로 생각한때문이다. 그만큼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시에 애착을 가졌으며 중시했다고 말할수 있다.

짧다고 할수 없는 창작년한을 가지고있으나 상대적으로 볼 때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한 편수는 그리 많다고 할수는 없다.

그것은 《조선문학》잡지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실로 창간 65돐을 맞은 긴 세월 《조선문학》잡지지면을 통해 우리 문학사에 남는 얼마나 많

은 성과작들이 발표되었으며 얼마나 재능있는 작가들이 많이 자랐던가. 나도 《조선문학》잡지와 함께 작가로 성장했고 백화만발하는 선군시대의 화려한 문단에 한송이 꽃이나마 보태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그 높이에 이르자면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목란꽃모양과 푸른 바탕에 국기훈장 제1급이 빛을 뿌리는 자랑높은 《조선문학》잡지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시대의 명작으로 내 기어코 너의 한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리라.

창간의 그날로부터 긴긴세월 새 조국건설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를 걸쳐 선군시대로 빛나는 오늘까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제1선에 서서 굳건히 걸어온 《조선문학》잡지여.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군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더 좋은 작품들을 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창간 65돐을 맞는 《조선문학》잡지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김일성상계관인 김 석 주

회 역 과 기 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 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 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

문단은 곧 지면이다.

모든 문학작품은 기본적으로 지면을 통해 발표되고 평가되며 전파되어 독자들에게 대한 사상미학적, 교양인식적사명을 수행한다. 그속에서 작가도 성숙되고 독자도 발전한다.

이 영예롭고도 권위있는 문단의 중요위치에 변함없이 높이 서서 문학운동을 선도하고 작가들을 이끌고 독자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여온 《조선문학》잡지가 걸어온 길을 더듬을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가슴은 찢릿해진다.

내가 《조선문학》잡지를 처음 접한것은 지난세기 60년대 소년시절이었다.

그때의 나의 감정은 동경과 공상, 찬탄과 도취 그리고 희망과 결의였다.

그때 읽고서 나의 마음을 틀어잡았던 몇몇 작품들은 지금도 생동하게, 지어 문장들까지도 세세히 남아있다.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 《아지랑이》, 《창

조》, 《조선사람》… 그리고 중편소설 《새 탄전에서》…

1970년대의 대학시절에도, 그후에도 《조선문학》은 나의 문학수업의 변함없는 교사였고 동경의 신기루였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 《수풍호반사람들》, 《시대의 화폭속에서》, 《포성이 멎은 뒤》, 《대지의 표정》, 《행진곡 1번》…

솔직히 말하여 나는 1970년대 중엽에 첫 작품인 단편소설 《탐구의 길》을 썼을 때도 감히 작가동맹기관지인 《조선문학》잡지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그때 무엇을 그리 주저했고 두려워했던가.

나의 눈앞에는 여전히 《조선문학》잡지가 뽀얀 안개에 휩싸인 아아한 산정으로 바라보였고 세계에 대고 나라의 문단을 대표하는 무게있는 작품들만을 실는 권위있는 잡지로 간주되었던것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나를 더욱 문학수업으로 떠밀었고 나름대로 작가적성장을 채찍질했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물이 깊어서가 아니라 드레박줄이 짧아서 물을 퍼올릴수 없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거의 10년세월이 흐른 1980년대 중

업에야 나는 한편의 미숙한 단편을 《조선문학》 잡지의 지면에 실을수 있었다.

지식은 소화되어야 지혜로 되는것처럼 형상도 세월의 사색과 탐구속에서만 다져지고 빛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후 나는 《조선문학》잡지의 지면을 통하여 문학운동에 참가하는 우리 문단의 한 성원인 작가가 되었고 세월과 더불어 이 권위있는 잡지에 수십편의 작품들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네편은 영예롭게도 《조선문학》추천상을 받는 행운도 지니었다. (단편소설 《타격》, 《공격》, 《반격》, 《인간의 노래》)

이것은 나의 문학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수 없었다. 명실공히 우리의 주체문단이 주는 아낌없는 축복이었고 격려였다.

이것이 어찌 나 혼자에게만 차려진 행운이라 할수 있으랴.

정녕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평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리고 《조선문학》잡지의 그 엄격하고 너그럽고도 권위있는 그리고 말없는 요구성과 형상적, 교육적추동이 없었다면 우리 문학사를 빛내인 그 수많은 품위있는 명작들과 장편소설들은 태어나지 못했을것이다.

나역시 그 과정에 여러편의 총서 혁명소설작품과 장, 중편소설들을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매 나라마다 문단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잡지들이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기에 한편이라도 발표하면 순간에 작가의 명성을 얻는 경우도 있고 작가라면 누구나 다름하는 세상에 알려진 무게있

는 잡지상을 제정하여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 작가들의 사랑하는 길동무, 엄격한 교관인 《조선문학》잡지처럼 사상미학적으로 견실하고 형상예술적으로 무게있고 독자들속에서 사랑을 받는 친근한 문학잡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나는 우리의 사회주의선군문학이 다시한번 격동하며 강성대국의 평마루를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는 지금, 《조선문학》잡지가 걸어온 65년을 돌아보는 오늘 뜨겁게 추억하며 뜨겁게 기대해본다.

살펴보면 우리의 증견작가들이 큰 형식의 작품들에만 매달려 우리 문단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문학》잡지에 명함장을 내는 회수가 점점 적어지고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든다.

단편소설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문단과 독자가 낯설어하는 작가들이 장편소설에서 성공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명작은 단편소설로부터, 작가의 진정한 출현은 우리 조선문단의 무게있는 잡지인 《조선문학》잡지에서부터!

야심작, 문제작들이 더 많이 실리고 그에 대한 활발하고 격식없는 문학적인 평론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오고 일반화될 때 우리의 존엄있는 작가동맹기관지 《조선문학》잡지는 새로운 활력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새 세기의 본보기문학, 선군시대의 주체사실주의문학을 대변하고 선도하는 작가들의 참다운 길동무가 될것이다.

김일성상계관인 박 윤

《 조 선 문 학 》 잡 지 와 더 불 어

나의 한생은 문학평론과 더불어 흘러왔다.

그것은 《조선문학》잡지를 벗삼아 평론가로 성장해온 나날이기도 하다.

일찌기 문학에 뜻을 두었던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희망을 꽃피우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내가 문학의 첫발을 올린 곳은 문학대학(당시)이었다.

그때 문학대학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의하여 관록있는 오랜 작가들이 강의를 맡고있었다.

나만이 대학을 갓 졸업한 단발머리 헛내기였다. 나는 문학리론강의를 담당하였다.

교원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또 하나의 삶의 향로를 문학평론으로 정하고 대담하게 평단에 뛰어들었다. 그때 내 나이 20대 전반기였다.

당시 문학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

고있던 그 시절 나는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안고 강의시간여가에 열심히 평론을 썼고 낮시간이 모자라면 기꺼이 몇밤을 새워가며 쓰고 또 썼다.

포부는 크고 결심 또한 철석같았으나 붓끝이 따움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때 나에게 큰 고무를 준것이 바로 《조선문학》잡지연단이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가는 시대와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새로운 평론을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우리 식의 평론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 당의 문학예술 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데 이바지하는 론설들을 비롯하여 작품평과 문제평, 작가론적평론들을 써

서 《조선문학》 잡지 지상에 하나하나 발표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평론가로서의 나의 성장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1970년대 후반기부터 작가동맹중앙위원회 현역평론가로 사업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평론활동의 거의 모두를 수령형상문학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평론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대하여》와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두만강지구〉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 《혁명의 려명》, 《청산별》, 《영생》 등과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예지》, 《푸른 하늘》, 《총검을 들고》, 《북방의 눈보라》 등 작품들에 대한 평론들이 《조선문학》 잡지 지상에 발표되어 남아있다.

여기서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수령형상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자기를 바쳐왔다는 남모르는 자부도 느껴본다.

《조선문학》잡지의 길동무가 되어 문학평론과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생을 뒤돌아보면 평론활동의 총화라고도 할수 있는 평론집 《문학과 형상》이 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문학예술 령도업적을 집대성하여 서술한 《20세기문예부흥과 김정일》(전13권)과 《선군혁명문학예술과 김정일》(전5권)의 필자의 한사람이라는 긍지도 있다.

내 나이 이제는 70고개를 넘었으니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이제는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편히 쉬라고들 권한다.

허나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혁명시인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과 이름있던 녀류작가들에게 마음이 끌려 문학을 꿈꾸게 된 한갓 문학소녀였던 나를 공부시켜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어 어엿한 문예학자로, 평론가로, **김일성**상계관인으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그 하늘같은 은덕을 생각하면 그 천만분의 하나도 보답을 하지 못한 송구스러움으로 하여 내 가슴은 때없이 젖어든다.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지 못하고서야 내 어찌 조선의 작가라고 하겠는가.

그래서인지 머리엔 흰서리가 내렸어도 심장만은 예나 다름없이 창작적열정으로 끓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깊이 흘러온 내 인생체험사를 소설에 담아 한생을 총화할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으나 한 우물을 파라는 격언의 뜻을 좇아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뜨겁게 깃든 우리 장군님의 수령형상문학령도업적을 선전하는 글들을 집필하여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하여 후세에 전하는것으로 내 한생의 문학평론활동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리고 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주체문학, 선군문학을 힘있게 선도할수 있는 평론들을 집필하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칠것이다.

나는 《조선문학》잡지 창간 65돐을 맞으며 말하고싶다.

우리 장군님께서 총대와 함께 높이 추켜드신 그 성스러운 선군의 붓대를 내 병사의 총검마냥 억 세계 틀어쥐고 쓰고 또 쓰리라, 신념의 글, 량심의 글을, 생의 끝까지.

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붓대로 결사옹위하는 그이의 참된 선군혁명동지가 될 것이다.

김일성상계관인 최 언 경

첫 인 연 을 더듬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소설을 읽으면서 생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혁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도 키우게 된다.》

내가 《조선문학》잡지와 첫 인연이 맺어진것은 지난 세기 70년대 중반기였다.

보람찬 군사복무시절이었다.

하루는 부대 정치부에서 나를 불러 기동예술선

동공연대본을 쓸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아마도 지금껏 대본을 맡아 쓰던 구대원이 제대된데다가 내가 짬짬이 책을 부지런히 읽고 몰래 무엇인가 쓰기도 한다는것을 알고 책임자로 점찍었던것 같다.

정치부에서는 부대 도서관에 나를 데리고가서 사서에게 이 동무가 이제부터 우리 부대작가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요구하는 책들을 다 빌려주라고 하였다.

그날 나는 술한 채들을 욕심스레 안고나왔는데 그속에는 《조선문학》잡지묶음도 있었다.

그 《조선문학》이 작가들의 구체적인 세계와의 첫 접촉이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하지만 그때 당장은 내 분공수행에 큰 은을 뱉다. 공연대본에서는 대화시, 합창시 등이 기본인데 잡지속의 서정시들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문구와 련들을 골라 이리저리 둘러맞추었는데 그것이 예상밖의 성공을 거두었던것이다. 그 대목들이 출연자들의 입으로 랑송되지만 하면 병사들은 귀맛이 돌아 박수를 쳐주었고 일부는 슬그머니 찾아와 그것을 베껴가기까지 했다.

아아, 한두줄, 한두련으로도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 문학의 비상히 놀라운 위력!... 환희가 나를 숨막히게 했다.

돌아켜보면 그때 나에게 작가가 되려는 포부가 있었는지는 꼭 짚어말하기가 힘들다. 그저 문학이라는 세계가 한없이 마음을 끌어당기기는 했어도 그저 숭배대상이였을뿐 자기를 그 세계와 나란히 놓는다는것은 너무도 무엄한 어떤 모독비슷한짓이라고 단정하고있었을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때 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뒹속에 뚫고들어가 웃고울게 만드는 문학을 기어이 해야겠다는 타는듯 한 갈망을 간직하였던것만은 사실이다.

그때부터 나는 여러 장중편소설들과 함께 《조선문학》잡지의 열성독자가 되었다.

무엇인들 읽고 베껴넣지 않았으랴. 시면 시, 수필이면 수필, 소설이면 소설... 생동하고 참신하다고 생각되는것은 모조리 나의 발취장에 옮겨졌다.

그 과정에 많은 작가들을 알게 되었다. 정창윤, 리종렬, 안동춘, 김철, 동기춘, 오영재... 목침같은 장편소설들을 써낸 유명한 작가들이 모두 단편소설로부터 자기 문학을 시작했다는것도 그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과고들수록 매력있는 단편의 맛, 거기서 풍겨나오는 생활의 향기며 단즙, 인간의 아름다움과 시대의 벅찬 숨결...

밤에도 매혹적인 주인공들은 꿈속에서 나를 계속 손저어 불러주었다.

《조선문학》잡지는 어느덧 나의 가장 존경하는, 도무지 떨어질수 없는 친밀한 교사로 되어 문학의 세계속으로, 그 원리에 대한 파악으로 끝없이 이끌어들이었다.

부피두툼한 장편소설들이 문학에 대한 황홀한 동경과 함께 거의 공포에 가까운 위압감을 주었다면 《조선문학》잡지는 나에게 친근감—뭔가 가깝고 허물없는 세계라는 안도감을 주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위엄있는 교사로부터 너나들이할수 있는 벗으로 바뀐셈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작품을 편집부에 투고했다. 하지만 되돌아온 원고속에는 이런 편지가 들어있었다.

《...멋진 문구가 소설은 아닙니다. 형상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몇마디 편지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는지...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소설들을 더 주의깊이 연구하는것이 지금의 동무로서는 첫째가는 과제입니다. ...》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고 기억된다.

지금도 고맙게 여기는것은 그날의 혹평이 나로 하여금 작가에로의 길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새것에로의 끊임없고 비상히 어려운 창조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주었다는것이다.

그때부터 《조선문학》잡지는 나에게 다시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하였다. 이미 여러 출판물에 소설을 실기 시작하고 《청년문학》지면에도 이름을 내게 되었지만 오래동안 《조선문학》잡지 편집부의 문턱을 넘을 엄두는 내지 못했다.

우리 조선문단을 대표하는 문학작품만이 오를수 있는 작가동맹기관지, 온 세상에 우리의 주체사실주의문학이 바로 이것이니라고 자랑할수 있는 작품만이 당당히 지면을 차지할수 있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은것이였다.

첫 인연이 맺어진 때로부터 거의 20년가까이 되었을 때에야 나의 소설은 《조선문학》잡지에 실릴수 있었다.

그날 너무도 기쁘고 감격하여 길거리에서 사람들마구 부딪치면서 정신없이 읽어보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또한 《조선문학》잡지에 첫 작품을 발표한것을 계기로 하여 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수는 없는 문학, 뼈를 깎고 살점을 저미는 노력을 한생 중단없이 하지 않는다면 순간에 버림을 당할수도 있다는 그앞에 진정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었다.

이제는 나도 《조선문학》잡지지면에 적지 않은 작품을 실었다. 하여 잡지는 나의 작가생활과 그렇듯 가까운 허물없는 벗으로 되었다.

그러나 매양 활자로 찍혀나오는 나의 소설아니, 짧은 예술산문 하나라도 가슴을 조이며 평가해본다. 무섭게 키가 커진 젊은 작가들의 놀라운 성과작들이 나를 비웃으며 련속 실리기때문이다.

어쩔수 없는 위축감에 또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한, 어느 사이 또다시 나의 엄한 교사로 되돌아가 버린듯싶은 《조선문학》잡지...

그렇다. 나는 이 감정을 숨김없이 고백한다.

그래야 한다. 《조선문학》잡지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붓대로 만드는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시대적사명감을 매 시각 깨우쳐주는 공민적량심과 자각의 거울이기에, 그앞에 한생토록 부끄럼 없어야 하기에!

정 영 종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의 새로운 높이를 지향하여

김 정 평

오늘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들끓는 그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과학기술의 힘,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최첨단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억세게 전진해나가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최첨단돌파의 의지와 열정이 격렬히 비껴있다.

문학분야에서도 마땅히 선군시대의 거창한 숨결에 호흡하여 창작에서 최첨단돌파의 기상이 나래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당의 요구, 시대와 인민의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류레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에 살며 창작하고있는 작가들은 천만군민의 심장에 위훈의 불씨를 심어주고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문학에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들끓는 오늘의 벅찬 현실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 명작을 창작하는 길, 문학창작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 있는것이다.

작가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은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창조하는 형상이 세상을 뒤흔들어놓고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전시기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새롭고 독창적인 인간성격을 탐구하고 독특한 형상으로 구현하는것이다.

기존형식과 틀에 매달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최첨단돌파의 격동적인 시대의 미학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할수 없다.

현시기 선군시대 문학은 최첨단돌파의 열정과 의지를 안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격동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현실의 인간들을 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면 인간성격탐구와 형상에서 새로운것을 탐

구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말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어떤 인간을 어떻게 그릴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주인공들의 인간미에 반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새맛이 나게 독특하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그러자면 시대정신을 체현한 인간성격을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새롭게 형상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장편소설들인 《행복의 기초》(윤경찬 작)와 《래일에 사는 사람들》(김유권 작)은 이 측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시사를 주고있다.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는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유압식굴착기를 만들어내는 락원의 로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오늘의 선군시대 인간들의 진정한 행복의 진가에 대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락원의 10명당원들이 지녔던 숭고한 녀를 곳곳이 계승해나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수 있고 선군시대 인간의 진정한 삶과 보람을 찾을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은 래일을 위한것이며 최첨단으로 비약할데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자신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때 그 어떤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시대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CNC기술분야에서 활약하는 새 세대 청년과학자들의 투쟁과 생활에 대한 형상적화폭으로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두 장편소설들에서 새롭게 찾아보게 되는 성격적특질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최첨단돌파의 포성으로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이 심장속에 펄펄 끓어번지는 인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첨단돌파전에서 자신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치는 실력가형의 인간들인것이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려는 높은 사상정신적지향세계를 지녔다. 그 무엇을 하나 연구하고 만들어도 보통수준이 아니라 최첨단수준에서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추진시켜나가려는

것이 이들의 리상이고 목표인것이다.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에서 유압식굴착기를 만드는 문제는 우리 나라 유압기계공업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이다. 유압공업의 현대화를 새로운 높이에서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된 락원의 10명당원들의 숭고한 념을 계승할데 대한 인간문제를 놓고볼 때 지난 시기 이 주제의 작품들에서 취급된 내용은 조국을 피로써 지키고 전후 파괴된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데 앞장에 선 그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기본이었다면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는 최신과학기술로 무장하고 나라의 경제를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발휘하는 헌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최첨단수준을 돌파할 과학기술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락원의 10명당원들의 념을 참답게 계승한 시대의 전형이라고 당당히 자부하게 되는것이다. 하기에 소설의 주인공인 이 공장 부기사장이며 기술혁신돌격대 대장인 안금석은 우리 장군님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실현하는 여기에 부모들의 념을 이어나가고 우리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음을 신념과 의지로 자각하고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수준에 맞게 공장의 현대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실력과 배짱을 지니고있다. 그는 유압분배기의 일부 부분품들을 수입하자는 부지배인 박동환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해버리며 자신이 직접 유압식굴착기에서 기본인 유압뿔프를 만들고 안해인 정림이가 맡은 분배기를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바치며 정수기사를 도와 수자표시장치도 끝내 성공시킨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려면 우리 일군들이 제힘을 믿고 뿔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최신과학기술로 무장할 때만이 이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에서 주인공인 현대화연구소 실장 진수현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청년과학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하도록 적극 내세워주고 이끌어준다. 그의 가슴속에는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모시려는, 과학기술의 성과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려는 일념이 불타고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민족자존의 정신, 래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지닌 그였기에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인재들을 찾아내고 이끌어주며 내세워주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다.

CNC기술이 앞선 나라들의 성과에 접근하는것만 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현대화연구소 부소장 리운덕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견해와는 달리 주인공에게는 그들의 높은 수준을 보통수준으로 보고 최첨단수준으로 비약하여 앞장서 내달리려는 큰 포부와 리상이 있다. 하기에 그는 리운덕이처럼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적당한 과제들을 내놓는것이 아니라 최일이나 리남웅을 비롯한 젊은 연구사들을 대담하게 믿고 세계1류급의 CNC장치 《조종7》호를 연구개발하도록 이끌어준다. 진흥기계공장에 CNC기술의 높은 단계인 유연생산체제 도입전투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전반적인 CNC화수준을 한단계 올리는데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세계최첨단수준의 과제를 젊은 연구사들에게 떠맡기고 그들이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현하도록 떠밀어주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다. 이렇게 소설에서는 모르면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기여할수 없으며 최첨단과학기술에 능통하여야 부강조국의 래일을 위해 뿔뿔이 살수 있고 선군시대 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수 있음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여기에 두 장편소설들에서 새롭게 찾아진 인간성격의 진가가 있고 이 소설들의 사상에술적풍격의 높이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들인 《행복의 기초》와 《래일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새롭게 탐구된 인간성격을 새맛이나게 독특하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는 제힘을 믿고 뿔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나라의 유압기계공업을 한계단 도약시켜 새로운 유압식굴착기를 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는 주인공 안금석의 성격적특질을 특색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을 반영한 현실주체의 작품으로서 여기에는 생산기술적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소설은 생산문제를 취급한 작품창작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에서 대담하게 벗어났다. 작품은 주인공을 이 공장 부기사장, 기술혁신돌격대 대장의 계선을 넘어서서 참된 인간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인간적면모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사실 독자들은 작품에서 자신들이 생활의 거울로 삼을만 한 훌륭한 인간을 보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리념에 충실하고 조국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폐외없이 생활을 가장 참되게 사랑할줄 아는 사람들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작가들의 경우에는 훌륭한 인간을 그린다고 하

면서도 생활은 모르고 일에만 파묻혀있는 사람을 그려내곤 한다. 하지만 생활을 가장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인간을 보여주면 일 잘하는 사람의 형상은 저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소설은 부기사장으로 서, 기술혁신돌격대 대장으로서의 사업성과와 함께 생활적인 측면, 다시말하여 주인공의 가정생활을 많이 파고들어 행복한 가정으로 그렸다.

이를 위해 소설에서는 현대적인 유압기구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느냐, 수입에 의존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부기사장 안금석과 부지배인 박동환을 기본인물관계로 대치시키고 이들의 관계를 기본으로 끌고나가면서도 처음부터 그들을 직접적관계로 맞붙여놓지 않고 그 관계를 기사이며 주인공의 안해인 신정림이와 박정수기사선에 굴절시켜 보여주었다. 결국 유압식굴착기생산문제를 놓고 이들의 극적관계가 본격화되었지만 그것이 표면으로가 아니라 정림이나 정수와의 관계에 굴절되어 나타나고있다.

여기서 주인공과 그의 안해이며 기사인 정림이와의 관계, 또 주인공과 사랑때문에 고민하는 정수와의 관계는 주인공 안금석의 인간미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형상적공간으로 되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과 정림이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정생활에 형상의 력점을 찍고 정수선을 여기에 결합시켜 사랑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귀중한것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변함없이 아끼고 지켜나가는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유압식굴착기의 중요한 부분품인 분배기를 만들 데 대한 과업을 받고 제작과정에 난관이 조성되자 동요하던 신정림은 끝내 자기 힘으로 분배기연구를 할수 없다고 하면서 분배기를 수입해다가 조립하자고 한다. 하지만 금석은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안해를 이끌어주기 힘들다고 내버린것이 아니라 그를 안해로서만 아니라 기술자로서 누구보다 믿고 분배기를 끝까지 책임지우며 그의 연구를 성공시키는 과정을 통해 정림이를 탁원의 딸답게 새 인생의 궤도에 들어서게 한다.

박정수가 애인인 고선미를 그토록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또 동환형님이 자기들의 사랑을 반대한다고 하여 사랑하는 처녀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공장을 뜨려고 하자 금석은 그가 맡은 일을 잘해서 자기가 탁원의 아들이라는걸 증명하도록 일깨워주며 선미와의 사랑도 지켜주고 그가 연구하는 수자표시장치도 성공시켜준다.

이렇듯 사랑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변심을 모르는 주인공의 아름다운 정신세계

를 그려놓았다.

소설에서는 생활에서 찾아쥔 주인공의 인간적면모를 새 세대들이 부모들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는 기본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그의 성격의 사회적본질을 밝혔다. 그것이 바로 작품의 마감에 펼쳐지는 주인공과 박동환의 대결장면이다. 다시말해서 신정림이나 정수와의 관계에서 형성공고화된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것으로 되는것이다. 하여 지난 시기 일부 작품들에서 따분한 생산문제를 취급하면서 매달린 도식적인 창작경향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로운것을 들고나왔다.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도 인간성격형상을 이채롭게 하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새 세대 과학인재들을 키우는데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는 주인공 진수현 현대화연구소 실장의 사상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보여주기 위해 소설에서는 진수현과 리운덕과의 극적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현대화연구소 연구사들인 최일파 리남웅, 송춘도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상대인물들에게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부합되는 뚜렷한 형상의 뭉치를 안겨주어 그들의 운명선과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심화시켜나갔다.

지난 시기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한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상대인물에게 부과된 형상과제가 과학기술의 한복판이 아니라 그 변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생활에 지내 밝다던가 먹을알이 있는 다 큰데로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정문제로 고심을 한다던가 등 과학기술과 거리가 먼 생활을 형상과제로 선택하여 주인공에게 대치시켰다. 이런 방법으로는 주인공의 성격을 오늘의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성격으로 끌어올릴수 없는것이다.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이와는 달리 최첨단의 과학기술적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을 상대인물에게 형상의 뭉치로 안겨주어 주인공의 시대적성격을 도출해내고있다.

현대화연구소 실장 진수현은 연구사후비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보면서 자기 리해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현대화연구소 부소장 리운덕이 젊은 연구사들이 연구개발하는 조종장치 《조종7》호를 달가와하지 않을 때에도, 진흥기계공장에서 유연생산체계도입을 수입에 의존하려고 할 때에도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젊은 과학인재들을 키울것을 권고한다.

진취적이면서도 자기를 과신하는 연구사 최일의 최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남다른 기백과 열정을 믿고 대담하게 혁신과제수행을 위한 청년조 조장으로 임명하고 《조종7》호 연구를 앞장에서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며 소심하고 주대가 없지만 세상을 놀래울 큰 꿈을 꾸는 리남웅연구사에게 아낌없는 진정을 쏟아부어 그의 K방식플이에 대한 논문도 성사시키게 하고 《조종7》호 연구와 유연생산체제도입에서도 큰 몫을 담당수행하도록 한다. 뿐만아니라 청년조가 세운 목표가 너무 높다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D-3형장치개발과 같은 현실성있는 과제를 운운하는 연구사 송춘도와 지학준을 비롯한 청년조의 모든 연구사들이 최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적극 떠밀어준다.

보는바와 같이 이들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최첨단과학기술을 놓고 주인공이 체험하는 기쁨과 괴로움, 사랑과 환희의 감정을 태운 생활들이다.

장편소설 《태일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형상에서 새로운것은 또한 공부정간의 갈등을 새롭게 하려고 시도한것이다.

지식인을 형상한 이전의 소설들을 보면 대체로 공부정인물—두 기둥을 서로 맞세워놓고 대립과 충돌의 극적인 흐름속에서 성격을 찾고 제기한 문제를 해명하였다.

오늘의 시대적높이에서 투시해볼 때 이런 갈등은 부정인물뿐만아니라 그와 맞서서 티각태각 다투는 긍정인물들까지 낮은 수준으로 격을 떨구는 결과를 빚어낸다. 더우기 최첨단과학기술을 지향하는 지식인들의 성격형상에서 이 형식은 경계해야 할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긍정인물들을 적극 살리는데 력점을 찍고 그들의 지향과 노력의 과정에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였다. 부정인

물을 그리는 경우에도 그 형상이 긍정인물을 복돋아주는데로 지향시켰다. 이를 위해 소설에서는 부정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리윤덕과 송춘도의 성격을 그리면서 주인공과의 마찰도 거의 설정하지 않았다. 최첨단과학기술의 경지를 개척하기 위해 헌신투하하는 주인공을 비롯한 청년과학자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생활이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리윤덕과 송춘도가 이들이 지닌 높은 지향과 이상, 이룩해놓은 사업실적앞에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것으로 이야기흐름이 펼쳐지고있다. 긍정인물의 모범이 부정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으로 되고있는것이다. 결국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이 시대적높이에서 격이 있게 형상되었으며 바로 여기에 소설이 제기한 문제의 시대성이 있는것이다.

이상에서 장편소설들인 《행복의 기초》와 《태일에 사는 사람들》을 놓고 문학에서 새 경지를 개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성격문제를 몇가지 론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문제는 최첨단돌파의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야 하는것이다.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낮으면 인물들의 정신세계가 번천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며 결국 세계를 굽어보며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시대의 선구자들을 내세울수 없다. 시대의 흐름을 뒤따라가면서 재현하는것이 아니라 앞서나가면서 미래의 인간을 그려내는데 작가의 높은 미학적안목과 리상이 있는것이다.

작가들은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선군시대의 문필가다운 안목과 리상을 가지고 독창성과 대담성을 적극 발휘하여 문학작품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데 사색과 탐구를 기울임으로써 문학전선에서도 최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해야 할것이다.

오, 나의 선군조국이여

주 광 남

그대 아닌 그 어떤 나라를
그 이름으로 부를수 있으랴
세상에 오직 하나
그대만이 지닐수 있는
나의 조국
선군조국이여!

창창히 열린 저 푸른 하늘도
몰켜드는 핵구름을 총대로 밀어낸 하늘
이 땅위에 솟아오른 새로운 창조의 탑들도
전쟁도발의 어지러운 핑음을 짓누르며
선군의 힘으로 일떠세운 기념비들

선군의 총대가 아니었다면
내 조국은 핵전쟁의 참혹한 폐허가 되었으리
선군의 기상이 없었다면
우리 인민은 그 모진 고난의 행군에서
지쳐 쓰러진채 일어서지 못했으리

선군태양의 찬란한 해살이 비끼여
시련은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행복은 봄썩처럼 다시 움터나
한여름의 무성한 숲처럼
조국은 강성부흥의 활력에 넘쳤나니

그래서 더 귀중하더라
핵먼지 한점 스며들지 못해
언제나 맑고 신선한 공기
숨을 쉬어도 새삼스레 심호흡하는 마음이여

예전엔 평범했던
유치원아이들의 노래춤을 보아도
힘차게 달리는 열차의 기적소리를 들어도
고마움에 찢릿해지는 가슴이여!

나의 조국은
선군으로 찾았고
선군으로 지켜냈고
선군으로 빛내가거니
선군! 선군은
내 조국의 운명의 피줄기
수호의 보검
무궁번영의 영원한 표대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부를수 있으랴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온 세상 만민이 황홀히 우러르는 나라
군민이 모두 선군의 꽃으로 활짝 핀
선군의 이 대화원을

이제는 인류의 통용어로 된
조선의 선군! 선군의 조선!
마치 자랑스런 명예칭호인듯
그 이름으로 칭송하노라
나도 선군조선의 공민이라는 자부를 느끼며
하늘땅이 들썩하게 가슴헤쳐 웨치노라
세상에 제일인
오, 나의 선군조국이여!

나의 생활속에

신 문 경

새 학년을 맞으며 아들에게 받은
종이냄새 그윽한 새 교과서들
한장두장 펼쳐보며 쓰다듬으니
깊어지는 아버지의 이 생각

아들아
너에게도 나에게도 만일

조국이 없었다면
내 조국에 만일
목숨같은 선군이 없었다면...

이 교과서엔 다 찍여져있지 않구나
설날의 그 새벽길 사연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소년궁전을 보시며

눈내리는 다박술초소로 가시던
장군님의 그 심정이

어찌 다 담겠느냐
얼음덮인 철령을 오르시던
그날의 눈보라소리를
길길이 솟구쳐 배전을 치던
초도의 그 파도소리를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이 나라 부모들의 아픈 마음 다 안으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조국을 일떠세울 만년초석을
선군으로 더욱 굳게 다져오신 아버지장군님

나의 평범한 생활에도
선군의 그 깊은 뜻은 흐르고있구나
선군! 그속에선

사랑도 쌀도 천도 나오고
이 세상 만복이 다 찾아온다는 그 철리가
이 땅에 현실로 꽃피나니

절로 차려진 복이라 생각지 말아
평범한 생활이라 무심치 말아
너의 수업시간에
나의 노동시간에
장군님 선군위해 바치신 순간순간을
이 땅에 꽃으로 피워가야 하거니

아, 어떻게 지켜진 우리 운명인가
어떻게 마련된 우리 생활인가
그 값비싼 대가로 하여
오늘의 한초한초를 평범히 살수 없는
아들아,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이다
이것이 선군으로 빛나는 우리의 삶이다

나는 사랑할 수 밖에 없으라

박 상 민

낮이나 밤이나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
용접불꽃이어
나는 너를 사랑할수밖에 없으라

용접공의 아들이어서
용접불꽃을 사랑하게 되었던가
그 꽃이 사랑의 연분이 되었다는 안해
딸애의 애명도 불꽃이라 지었다네

그 꽃에 언제부터 정을 부었던가
아버지의 용접면을 들고
밝은 해를 바라보면
밤하늘의 달을 보는듯 너무 신기해

용접공은 낮에도 달을 볼수 있다고
동무들에게 자랑할 때
동무들은 나를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날부터 용접불꽃의 뿌리 이 가슴에 내렸네

용접집계만 쥐면 행복했네
집채같은 구조물도 용접공이 없다면
거창한 그 모습 누가 빛내주랴
용접불꽃도 열매를 남긴다네

릉라다리 5월1일경기장...
남흥과 흥남...
조국이 자랑하는 기념비들은
용접공이 피운 그 불꽃의 열매가 아닌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수 있었으랴
불꽃이어 너로 하여
이 가슴에도 그 불꽃의 열매마냥
훈장과 메달들이 빛나는데야

내 이런 불꽃으로
행복의 열매를 주렁지우게 하는 멋에
낮에도 밤에도 그 불꽃 피우며 사네
하여 내 그 불꽃 사랑할수밖에 없네

별 에 대 한 생 각

전 성 호

대회참가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다.

수도의 밤거리를 지켜선 가로등들, 창가마다에서 제나름의 행복과 즐거움을 안고 쏟아져내리는 불빛들, 그 불빛들과 경쟁하듯 깜박이는 각양각색의 장식등들로 하여 잠들줄 모르는 거리다.

땅우의 불빛들과 다름하듯 밤하늘엔 별들이 반짝인다.

어둠이 찾아들면 하늘이 비좁도록 겨끌내기로 제모습을 드러내며 반짝이는 별, 별들.

별들은 참으로 많기도 하다.

저 별들을 다 세여본 사람이 있을까?...

봉—

평양역을 떠나며 울리던 열차의 긴 기적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또 만남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영웅동지들.》

떠나고 바래우는 사람들로 초만원에 이른 역구내.

누구라없이 가슴마다에 훈장과 영웅메달이 번쩍인다. 평양에서 열렸던 대회에 참가하고 자기 고장으로돌 떠나가는 대표들이다.

비날론지구어로, 강철전선으로, 협동전야와 간석지건설장으로...

모두가 수훈자들이어서 모두의 가슴마다에 영웅메달과 금빛훈장들이 번쩍인다. 마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웅인듯싶다.

려관에서 들려주던 그들의 순박한 목소리가 멀어져가는 기적소리와 함께 산울림마냥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

《우린 주체란 말이 우리의 운명이구 목숨이란 말인줄 이번에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전에는 폭스가 떨어지면 절간의 부처처럼 나앉곤 했지요. 그런걸 우리 장군님께서 오셔서 불을 달아주셨습니다. 용광로에가 아니라 우리 로동계급의 이 심장에 말이우다. 이 심장에 불는 불로 우린 끓여냈습니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주체철을 말이우다. 주체란 말이 판게 아니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심장을 불태워 만든 바로 우리의것이란 말이웨다.

김철은 이젠 남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장군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제 스물을 갓 지난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산골에서두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하는 거야 우리 장군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은 땅과 말하며 삽니다. 땅은 언제나 우리 농민들과 아기처럼, 애인처럼 정과 사랑을 나누고 산답니다.

정과 사랑이 없인 땅이 아니라 한줌 흙도 못 다룹니다. 하지만 저 천리마동상우에 벼단을 안은 우리 농민을 태워주신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자면 전... 전 아직 멀었습니다.》

《...색갈중에서 가장 순결한 색은 자기 본색에 때가 묻지 않은 색을 말할겁니다. 그 색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비날론의 색갈입니다. 한점 티도 없는 그 흰색이 바로 백두의 흰눈을 닮은 우리 2.8사람들이 장군님을 받드는 애국충정의 빛갈입니다.》...

그들은 떠나갔다.

이들의 피타는 노력과 헌신이 배인 바로 그 창조와 투쟁으로 들끓는 정든 고장으로 열차는 시대의 영웅들을 싣고 떠나갔다.

원산과 함흥, 김책과 청진, 락원과 대계도, 희천...

열차는 가는 곳마다 영웅들, 그 고장의 주인들을 내려놓으며 이밤이 새도록 달리고달리리라.

멈춰서는 역들마다에 그들을 마중나온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랴.

영웅의 가슴에 넘치도록 꽃다발을 안겨주는 공장사람들,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훈장을 자랑스럽게 만져보는 어린 딸애의 귀여운 모습이 안겨온다.

고향의 자랑을 떨치고 돌아온 작업반장을 얼싸안으며 기뻐하는 작업반사람들, 근면하고 어진 그 얼굴들에 피어나는 정깊은 웃음들이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천만년 무궁번영할 김일성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신심과 희망에 넘쳐 바라보며 천만군민 모두가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오늘의 벽찬이 투쟁에서 얼마나 많은 영웅들과 위훈자들이 태여났던가.

김철과 2.8, 대계도의 영웅들...

그들을 생각할 때면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강성대국의 그날을 앞당겨오시기 위해 최전연의 굵이굵이 벼랑길도 오르시고 풍랑사나운 바다길도 헤치시는 우리 장군님 생각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삼복철강행군길을 이어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길도 인민을 위하여, 조국의 후손만대 번영을 위하여 웃으시며 헤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 그 자욱자욱우에, 쪽잠도 미루시는 장군님의 시간의 그 분분초초우에 희천의 언젠은 산악같이 일떠섰고 김철의 주체철은 대하가 되어 흐른다.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쏟아지고 거창한 바다를 막으며 조국의 모습이 달라지는것이 아닌가.

가시는 곳마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신념의 불, 창조의 불, 주체의 불을 지펴주시고 그 가슴마다에 위훈의 금별을 달아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이밤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실 우리 장군님께선 듣고계시리라.

총알처럼 여문 난알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처녀관리위원장의 진정의 목소리며 희천의 언젠우에서 붉은기를 휘날리며 부르는 병사들의 노래를, 세계를 굽어보는 최첨단과학기술의 성과로 장군님의 리상을 기어이 이 땅우에 꽃피울로박사의 맹세도.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을 따라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바쳐가며 온 나라 인민이 떨쳐나선 우리 조국.

생은 곧 애국으로 빛나는것이기에 아낌없이 바친 위훈의 땀방울들이 오늘은 영광의 단상우에 올라선 그 가슴가슴마다에 금별로 빛나는것이리라.

강성대국의 찬란한 패일을 안아오시며 파사로운 태양의 빛발로 이 땅에 위훈의 별, 충정의 별, 영생의 별의 대하가 흐르게 하여주신 우리 장군님. 정녕 이 땅엔 위훈의 금별의 은하가 굵이쳐흐른다.

...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

별, 별들...

하늘을 채우며 깜빡이는 별들은 참으로 많기도 하다.

저 별들을 다 세어본 사람이 있을까?

조울듯말듯 제나름대로 밤하늘에서 반짝이다 아침해빛과 더불어 스러지는 자연의 별들.

하나 이 땅엔 선군태양의 빛을 받아 영원히 빛을 뿌리는 위훈의 금별의 대하가 흐른다.

별, 금별, 위훈의 별...

정녕 빛나는 별은 어디에 더 많은가?!

상 식

지 적 소 유 권

지적소유권은 문학, 예술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적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지적재산에 대하여 그 창조자나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가 가지는 법적권리이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지적소유권 권리발생의 기초, 권리의 당사자와 대상, 권리의 특성에 기초한것이다.

지적소유권의 발생기초는 사람의 창조적인 사유활동으로서의 지적활동이다.

지적소유권의 대상은 사람의 지적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지적재산이다. 모든 지적재산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형의 재산, 즉 형태가 없는 재산이라는것이다.

지적소유권의 당사자로는 지적재산의 직접적인 창조자들과 그들의 권리를 넘겨받은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이 나선다.

지적소유권의 특성은 전용성, 지역성, 시간성이다.

지적소유권의 전용성은 곧 지적소유권의 독점성과 배타성이다. 즉 지적소유권의 권리

인은 오직 하나이며 한번만 수여한다는것이다.

지적소유권의 지역성은 그것이 해당 나라의 지적소유권법에 기초한다는것을 말한다. 즉 해당 나라법에 규제된 특별한 신청, 심사,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지적소유권의 시간성은 지적소유권이 법이 정한 기간에 보호를 받으며 권리인도 다만 일정한 기한안에 그 지적성파에 대한 전용권을 향유할수 있다는것을 말한다. 해당 지적소유권은 법이 정한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향유할수 있다.

지적소유권은 크게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공업소유권은 발명권과 특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으로 나누며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린접권, 소프트웨어저작권으로 나눈다.



마를몰 모르는 섬

백 상 균

이웃군 건설사업소에서 일하는 막내처남이 더 나이먹기 전에(처남의 나이는 25살이다.) 대학공부를 하도록 힘써달라는 장모의 부탁은 병석의 마음을 은근히 조급하게 하였다.

물론 나들이왔던 장모가 지나가는 말처럼 하였지만 남도 아닌 처남이라 못 들은척 외면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때 오늘 품을 놓고 대학시절 상급생이었던 이웃군 인민위원회 학생모집과장을 찾아갔었는데 사흘전에 출장을 갔다니 일도 참 맹랑하게 되었다.

모집과 부원에게 간단한 내용을 적은 글썽지를 맡기고 돌아서서 땀을 철철 흘리며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기다린듯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서둘러 송수화기를 집어드니 수화기에서 웬 처녀의 다급한 말소리가 기관총 런발사격하듯 쏟아져 나왔다.

《도시경영과 과장동집니까? 군병원 구급과입니다. 윤경선이라구 도시경영과 부원이 맞습니까?》

《?!》

병원 구급과라는 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창황중이라 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그 동무가... 어떻게?...》

《정신을 잃고 우리 구급과에 실려왔습니다. 아까부터 찾았는데...》

《?!》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송수화기를 내동댕이치다싶이한 병석은 바람에 밀리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병원을 향해 달리는 병석의 심장은 마당질하듯 하였고 별의별 생각이 머리속에서 오락가락하였다.

강철포신처럼 꼬떡않던 처녀가 무슨 일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을까. 무슨 일로, 왜, 왜...

자신을 너무 혹사한 탓이었는가.

경선으로 말하면 인민군대에서 해안포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몇달전에 제대되어 도시경영과에 배치받아온 제대군관처녀이다.

육중한 해안포를 다루던 군인같지 않게 얼굴이 아주 매혹적인 처녀의 몸에는 강철의 힘이 숨어있는듯싶었다.

수도물공급정형, 살림집리용 등 군내 주민들속에서 제기되는 생활상문제들을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 할지라도 귀담아 새겼다가 그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공튀듯 설새없이 돌아가는데 병석이가 보기에 도대체 그에게 잠자는 시간이 손가락만 큼이나 차례질상싶지 않았다.

처녀가 하도 기특하여 언젠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경선에게 그러다가 쓰러질가봐 걱정이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때 경선은 수집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한가정의 부모형제, 정다운 이웃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뛰고 또 뛰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처녀가 쓰러지다니...

길가의 나무잎들을 끊는 물에 데쳐낸 시래기처럼 후줄근하게 만든 중복의 뜨거운 열풍이 병석의 의지를 시험하듯 확확 단김을 들썩였다. 얼마 못갔는데도 온몸이 금방 물속에서 나온듯 화락하니 젖었다.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리고싶었지만 자기 걸음이 떠지면 경선이가 잘못되는것만 같아 지체할수가 없었다.

넌뛰듯 하는 숨을 눌러앉히며 병원 구급과 문을 열던 병석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말았다. 지금쯤 산소호흡기와 점적병을 달고 생사의 문턱에서 헤멜줄 알았던 경선이가 아무 일도 없는듯 간호원처녀와 싱갱이질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안돼요. 며칠 안정해야 해요.》

《이젠 아무렇지 않다는데요.》

잘못 본게 아닌가 하고 눈을 커다랗게 뜨고 유심히 살펴보아도 분명 경선이였다.

이렇수가 있나, 저걸 보고 누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구급환자라고 하겠는가.

어이가 없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듯 한 병석의 손이 문설주에서 맥없이 미끄러졌다.

이때 기척을 느낀듯 문가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경선이가 구원자라도 만난것처럼 침대를 차고 일어서며 환성을 내질렀다.

《아이! 과장동지...》

처녀의 온 얼굴에 활짝 피어난 미소는 두터운 구름장을 꿰뚫고 비치는 해빛처럼 환했다.

허나 그것은 한순간... 갑자기 경선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폴짝 주저앉았다.

간호원이 급해맞아 경선을 부축하며 역증에 가까운 소리를 하였다.

《그것 보라고. 며칠 안정해야 한다는데 말을 듣지 않고...》

아품을 참느라 입술을 감쳐둔 경선의 이마에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뽀얗게 내뿜었다.

그제야 병석은 경선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찢기고 굵직한 상처자리를 발견하였다.

병석은 황황히 경선에게로 다가섰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미안합니다, 소동을 피워서...》

경선은 머리를 떨구며 얼굴을 붉히는데 목덜미까지 새빨갳게 물들어졌다.

《천죽령에 갔다가 꿈이란 놈과 맞다드는 바람에...》

《뭐요?! 천죽령에?...》

어마지두 놀라는 병석의 입이 금시 하— 벌어졌다. 놀라움과 동시에 병석의 마음속에 까닭모를 불쾌감이 날을 세우며 머리를 쳐들었다.

전번 결음으로 단념했으리라 생각했던 천죽령에 경선이가 부득부득 다시 갈줄이야...

×

사흘전이었다.

건물보수사업소에 나갔던 경선이가 두개의 수지물병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과장동지, 이중에서 어느 병의 물맛이 더 좋은가 맞춰보십시오.》

도도룩한 입술에 꽃잎같은 웃음을 떠올리는 경선의 얼굴엔 장난기가 바글바글 끓었다.

아무 생각없이 경선이가 부어준 두개의 고뿌의 물을 맛본 병석은 히끗이 웃어보였다.

《이건 수도물이고... 이건 천죽령샘물이고 구만.》

《에?!》

웃음기가 남실거리던 경선의 얼굴이 금시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그러거나말거나 병석은 일사천리로 죽— 내리엿었다.

《천죽령을 따라 올라가느라 하면 한뿌리에서 두개의 줄기를 뻗친 전나무가 있지? 한가지는 미출하게 곧추 자랐고 한가지는 웅이투성이에 꺾배기처럼 꼬인 아주 인상적인 나무.

거기에서 한 열뿔미터 아니, 정확히 열다섯미터쯤 가면 바위썸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소. 어떻게 소? 내 말이...》

알아맞추기경연무대에 나선 사람마냥 뜬금으로 줄줄 내리엿는 병석을 보던 경선은 입을 딱 벌리었다.

《어마나! 과장동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꼭 맞습니다.》

《도시경영과장이 그쯤한것도 몰라서야 되나. 참, 동문 우리 군에 샘터가 몇개 있는지 아요?》

대답이 궁해진 경선은 두눈을 삼빱거렸다.

제 흥에 뜬 병석은 손가락을 꼬으며 말을 이었다.

《선암동 17반에 하나, 량정사업소 뒤꼀안에 하나, 그다음엔 정삼리로 나가는 길옆에 있는데... 그중에서 천죽령샘물의 약효가 제일 높지. 소화기 질환환자들의 인기가 대단하오.》

온몸이 귀가 되어 병석의 강의를 듣는 경선의 얼굴엔 감탄과 매혹의 선풍이 일었다.

《야! 과장동지 정말... 난 언제면 과장동지처럼 군안의 실재를 손금보듯 그렇게 확— 꿰수 있을가요?》

그러는 경선을 바라보며 병석은 시뻘이 웃음을 지었다.

...병석이가 천죽령샘물에 대해 알게 된것은 몇 달전이었다.

사실 그가 결혼후 소화기질환으로 신고하는 안해를 위해 기울인 성의는 주변사람들이 크게 감탄하고있느터였다.

나날이 얼굴이 축가는 안해의 건강을 추세우기 위해 병원치료도 받으면서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다 먹이였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친구로부터 천죽령샘물이 소화기질환치료에 신기할 정도로 특효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귀가 항아리만 해진 병석은 즉시 천죽령으로 달려갔다. 가보니 술한 사람들이 샘터로 오가고 있었다. 대다수가 소화기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신심이 생기었다. 샘물을 몇달만 장복하면 안해가 깨끗이 병을 털것만 같았다.

그날 5리터들이수지물통에 샘물을 한가득 채워 가지고 집으로 들어선 병석은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는 안해를 방안으로 불러들였다.

《여보! 이 샘물엔 소화기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약수성분이 들어있는데 몇달만 장복하면 알도리가 있을거요.》

의외에도 안해는 어설픈 웃음을 지었다.

《당신두 참, 그까짓 샘물이나 마시고 병을 고칠것 같으면 세상에 나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무안을 당한 병석의 눈섭이 잠에서 깬 누에처럼 꿈틀거리었다. 하지만 그는 내색을 않고 웃주머니에서 손바닥보다 큰 수첩을 꺼내 안해앞에 펼쳐보이였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보오.》

《이건 뭐예요?》

뜨아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던 안해의 눈에서 불꽃이 팡끗 튀었다.

거기에는 어느 동 몇반 아무개가 만성위염으로 고생하다가 샘물을 몇달 마시고 고쳤다는것, 어느 기업소 아무개는 6개월 마시고 위궤양을 치료했다는것 등 샘물을 장복하고 소화기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병을 치료한 경험자들의 자료들이 몇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던것이다.

수채구멍으로 물 빨리어 들어가듯 글줄을 빗질하는 안해의 입에서 드디어 야, 야 하는 감탄이 연방 새어나왔다.

《됐소! 그만 보고 어서 샘물맛이나 보오.》

병석은 수첩에 정신을 파묻은 안해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었다.

수첩에서 눈길을 땀 안해는 병석이가 내미는 고뿌를 받아 입가에 가져갔다.

《어떻소? 물맛이...》

병석의 온근한 물음에 안해는 발췌 웃어보였다.

《물맛이 여느 물과는 확실히 다른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샘물을 꾸준히 마시오. 내가 전적으로 말아 보장할테니...》

《고마워요.》

눈물이 글썽해서 정찬 눈길을 보내던 안해가 생각난듯 물었다.

《그런데 이진 어디 샘물이에요? 읍지구에 샘터가 여러개 된다던데.》

《당신은 별걸 다 묻누만. 모르고 잡썰야 약이 된답니다. 허허.》

《사업이 바쁜 당신이 나때문에 매일...》

《그런 말 마오. 당신이 건강해질수만 있다면 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겠소.》

병석의 진정에 안해의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주르르 아래로 떨어졌다.

이튿날부터 병석은 안해를 위해 10여리 잘되는 천즉령을 오르내리었다. 될수록이면 안해가 천즉령샘물이라는걸 모르게 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리용하였다.

헛치 않는 걸음이었으나 샘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달이 지나서부터 입맛이 돌아서고 건강이 좋아지는것 같은 안해를 보니 힘든줄 몰랐다.

안해를 위해 바치는 병석의 남모르는 수고를 아는 사람은 친구들 몇뿐이었다. 하물며 경선에게 그 사연을 털어놓는다는것은 몇적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

《과장동지, 제 의견을 말하렵니까.》

경선의 말에 상념에서 깨어난 병석은 고개를 쳐들었다.

《뭘요? 말하오.》

《천즉령샘물을 읍지구 주민들이 모두 마실수 있게 여러곳에 샘물공급소를 내오는게 어떻습니까?》

《뭘? 샘물공급소?...》

병석은 눈을 좁뜨며 반문하였다.

경선은 눈길을 내리떨구며 차분한 어조로 담담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전 이제껏 매일 거리를 오가면서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심히 보군 하였습시다.

그런데 어제 기계공장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로동자동무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인즉 천즉령샘물이 건강에 좋다는데 자기들은 시간이 없어 그 먼길을 오가지 못해 물맛을 보지 못한다는것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들처럼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 샘물맛을 못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가 하고... 그래서 하계된것이 읍지구에 샘물공급소를 내오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샘물을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경선의 신통한 발기가 우등불처럼 병석의 온몸을 달구는상싶었다.

샘물공급소를 내온다, 역시 경선이만이 내놓을수 있는 발기였다.

샘물공급소를 내오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자신에겐 또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한번 해볼만 한 일이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병석은 경선의 생각을 긍정하면서도 오랜 실무일군답게 샘물공급소를 내오는데 필요한 자재와 로력 등을 속구구로 타산해보았다. 천즉령에 집수 탕크를 만들고 읍에는 샘물공급소를 건설하고 그 사이를 판으로 편결하고... 여기서 천즉령까지가 5리 좀 남짓하니... 세멘트가 여라문톤, 수도관이... 그밖에도 여러가지 자재, 필요한 로력...

글썽 세멘트는 도에 세멘트공장이 있으니 크게 문제될것이 없는데 제일 난문제는 천즉령에서 여기 읍까지 늘일 수도관이였다. 생각은 좋은데 그걸 실천하여 주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게 하자면 걸리는것이 많았다.

병석은 발기우리하게 달아오른 경선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 처녀가 샘물공급소를 내오자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 아니, 그럴수 없지. 아직 사회물정에는 엉겁꿈이니까.)

병석은 흥분된 경선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머리를 뺐다.

《정말 좋은 발기를 했소.

그런데 말이요. 경선동무, 그 샘물공급소를 내오는데 얼마만 한 자재와 로력이 들겠는지 한번 타산해보았소?》

《예, 타산해보았습니다.》

(그렇다?! 허, 제법인걸. 역시...)

경선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들고 자기가 타산해본 자재와 로력수자들을 읽어내려갔다.

병석은 머리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래서 그 자재와 로력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요? 무슨 타산이 있겠지?》

경선은 흐트러진 귀밑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넘기며 한결을 나섰다.

《세멘트는 우리 도에 세멘트공장이 있으니 걱정할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력문제는 장마철을 앞두고 살림집보수가 긴장하지만 예비를 짜내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읍내 주민들에게 호소하면 그들도 자기자신들을 위한 일이니 가만있지는 않을겁니다.》

(역시 제대군관다운 생각이군. 괜찮아.)

《그리고 관문제가 제일 걸렸는데...》

경선은 왜선지 말끝을 흐리마리했다. 병석은 입가에 웃음을 띠우며 물었다.

《그래 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소?》

잠시 주뿔거리던 경선은 결심한듯 한결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군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여유로 가지고있는것들을 모아들이고 또... 어쨌든 이것저것 타산만 할것이 아니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일인데 대담하게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하면 방도는 나지기마련이 아닙니까.》

(그래, 내가 사람을 헛보진 않았군. 앞으로 우리 도시경영과의 기둥이 될수 있는 처녀야.)

병석은 경선이 파에 배치되어와서 한 첫 발기를 수도관문제라는 실무적인 조건으로 밀막고싶지 않았고 더우기 그앞에서 타산만 앞세우는 자신을 보여주고싶지 않았다. 하기는 무슨 일에서나 결심이 중요한것이 아니겠는가. 경선의 말이 옳다!...

《좋소! 나도 찬성이요. 한번 해보지요!》

흥분한 병석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호기를 뽐냈다.

그러자 경선은 어린애마냥 짹- 소리가 나게 손뼉까지 마주치며 환성을 올리었다.

《야! 난 과장동지가 제격 찬성하실줄 알았습니다.》

《래일 당장 천측령에 가보지요. 물량도 타산해보고 물판을 늘일 로정도 정할점...》

×

천측령이라는 이름은 옛 전설에 욕심많은 산이 하늘보다 높아지겠다고 키를 솟구다가 노호한 하늘신이 벼락을 내리는 바람에 즉살탕을 맞고 허리가 몽청 찢어졌다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산모양새자체가 어느 산들과는 달리 정수리들이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먹다버린 오이토막처럼 몽실몽실한게 볼 모양이 없었다. 하지만 주인들이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산에는 발을 들여놓기 힘들 정도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짹 들어차있었다.

울울창창한 숲속으로는 해빛조차 한점 스며들것 같지 못했다.

한창 젊음을 뽐내며 뚫대처럼 곧추 자란 나무들 사이로 땀기를 풀어놓은듯 한줄기 오솔길이 령마루를 향해 우불구불 뻗어있었다.

숲속 여기저기에서 못새들이 목소리경쟁을 하듯 저마다 고운 목청을 뽐고있었다.

불이 터지게 먹이를 물고 재간스레 나무를 타고 기어오르던 청서 한마리가 병석과 경선을 발견하고 반갑다는듯 긴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산림풍경이 정채롭고 아름다와 보는 사람마다 흥그러운 심정이런만 병석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산보길에 나선 늙은이마냥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는 병석은 바위돌을 안은듯 마음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꼈다.

생각할수록 어제 일이 후회되었다. 경선을 돌려보내고 흥분한김에 수도관이 있을만 한 곳을 여러군데 찢어보고 이웃군과 도에다도 알아보았는데 어디서도 시원한 소릴 듣지 못했던것이다.

제일 좋기는 이제라도 국가계획에 물려 보장받는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년에나 가야 공사를 시작할수 있다. 그렇다고 수도관도 없이 무작정으로 공사를 벌려놓을수야 없지 않는가. 또 당장 장마철을 앞두고 살림집보수며 하수망정비 등 할일이 얼마나 많은가. 잘못하다가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잃는 격이 되교말수도 있다.

사실 우리 도시경영과야 있는 건물들을 잘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생활상 불편이 없도록 하는것이 기본이 아닌가. 주민들이 당장 물때문에 고통을 겪는것도 아닌데... 공연히 일판을 벌려놓았다가...

글쎄 샘물공급소를 내오자는 경선의 의도는 나무랄데 없다. 하지만 가마에서 뺄는것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실지 입에 들어갈수 있는것처럼 샘

물공급소를 내오자 해도 수도관이 있어야 인민들에게 진짜로 샘물의 혜택을 입힐수 있지 않는가. 애초에 구체적인 타산을 해보고 경선이에게 대답을 주었어야 하는건데...

(즉흥이 실수의 전제라더니... 헛참.)

태사에 물감장사이상으로 타산이 구체적이고 꼼꼼하다고 자부하던 병석으로서는 생각할수록 어제 일이 큰 실책이 아닐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수도관이 없어 샘물공급소를 내올수 없다는 소릴 하자니 어제 당장 일을 칠듯 흰목을 뽑은 자신의 체면이 깎이우는노릇이었다.

병석의 심사를 알바 없는 경선은 공기좋은 산길을 걸으니 기분이 상쾌한듯 목소리를 낮추어 조용 조용 노래를 부른다.

어머니 우리 당이 목란꽃이 되라면
나는야 한마음 목란꽃이 되리라

...

처녀의 노래소리는 나무우듬지들을 어루만지며 멀리멀리 울려 퍼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차분히 젖어들기도 했다.

갑자기 노래소리가 똑 끊어지더니 탄성에 가까운 경선의 목소리가 병석의 귀전에 날아들었다. 《과장동지! 저 나무가 과장동지가 말씀하시던 그 전나무입니까?》

병석은 경선이쪽으로 돌아섰다.

《웁소! 저 나무요.》

그들의 눈앞에 한뿌리에서 두개의 줄기를 뻗친 전나무가 안겨왔다. 한줄기는 거칠것이 없이 미출하고 곧게 자랐는데 한줄기는 그와 대조되게 웅이와 마디투성이에 꺾배기처럼 꼬인게 영 불 모양이었다.

《야! 꼭 서로 의가 맞지 않는 형제같은요.》

아쉬워하는 경선을 보며 병석은 시들한 웃음을 지었다.

《저 못나게 생긴 줄기는 잘라버리면 좋겠구만.》

《자르다니요, 그것두 생명인데 좀 더 자라느라면 바로잡힐지 알게 됩니까.》

《그렇게 될가?...》

그들은 돌아서서 샘터로 향하였다.

조금 올라가니 눈앞에 산경사면을 따라 길게 내리박힌 미끈하고 넓적한 바위가 나타났다. 바위아래에 파란 이끼들이 주단처럼 한벌 덮여있었는데 그 짙을 헤집고 샘물이 솟아오르고있었다.

병석은 샘터로 내려서기가 서슴어졌다.

몇달째 오르내린 정이 든 샘터건만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지 않을가. 차라리 어제 수도관 원천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편하련만...

병석은 한단한단을 두드려보듯 하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짚었다.

바짝 뒤를 따르던 경선이가 안타까운듯 말하였다.

《성큼성큼 내짚어도 일없습니다.》

그러나 병석은 못 들은듯 한본새로 계단을 내리었다.

샘터주변에는 닭알만 한 크기의 둥글둥글한 조약돌들이 보기 좋게 깔려있었다.

물량을 가늠해보듯 한식경이나 샘구멍을 들여다보는 병석은 이미 생기를 잃은 샘물공급소에 대한 생각이 샘물표면우에 솟아올랐다가 터져 가뭇없이 사라지는 공기방울처럼 스러지는것을 느꼈다.

아무리 들여다봐야 물량이 시원치 않아보였다.

내가 너무 외곾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닐가. 아니, 그럴수 없어. 그럴수 없어...

종잡기 어려운 마음을 다잡은 병석은 어제 푼수 없이 경선의 장단에 가락을 맞추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해났다.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느낀듯 한 경선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병석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물량이 적은것 같구만. 그리고 또...》

수도관소리가 허끝에서 맴돌다가 쑥 목구멍안으로 숨어들어가버렸다.

전혀 예상밖인듯 경선은 금시 눈을 커다랗게 뜨며 한길 뛰었다.

《아니, 물량이 왜 작다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물저장탱크를 큼직하게 만들면 되겠는데...》

《허허허, 그래두 그 물량이야 어디 가겠소. 동문 읍지구 주민수가 얼마인지 알기나 하오?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거던.》

병석은 시험을 잘못 친 학생을 타이르는 선생님처럼 자못 너그러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러자 방금전까지만 해도 배꽃처럼 환하던 처녀의 얼굴이 실망으로 하여 어두컴컴해졌다.

《물량만 어지간하면 판을 벌려보는건데...》

속에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던 병석은 한방망이 드세게 얻어맞기라도 한듯 입술을 바르르 떠는 경선을 위로하듯 급하게 말을 이었다.

《너무 섭섭해마오. 일이라는게 욕망 하나만 가지고 되는데 아니지 않소. 샘물공급소를 내오면 좋은거야 동무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러놓고 말해서 난 지금 몇달째...》 하던 병석은 자신의 실언을 느끼고 얼른 말끝을 가무리었다. 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릴... 얼굴이 뜨끔해난 병석은 얼적은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내려가시오.》

하지만 굳어진 얼굴에 입술을 꼭 깨문채 서있는 경선은 땅속에 뿌리박힌 바위처럼 움직일념을 하지 않았다.

아까와는 달리 돌계단을 단번에 두개, 세개씩

전너쥘으며 올라가던 병석은 경선이가 따라서는 기미가 느껴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다.

벌받는 사람모양 오도카니 서서 고집스럽게 샘터를 지켜보는 경선의 눈가에서 물기가 반짝이었다.

병석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헛참, 녀자들이란.

무슨 말인가 하려던 병석은 느닷없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아, 어제 내가 진중했더라면 오늘처럼 거북한 일은 없었겠는데... 다시금 자책과 후회가 머리를 핑 돌게 하였다.

혼자서 터벌터벌 산길을 내리는 병석의 앞으로 한뿌리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줄기를 뻗친 전나무가 마주오고있었다.

×

머칠 안정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권고를 뿌리치는 경선을 따라 병원을 나서는 병석의 마음은 순편치 못하였다.

오늘 일이 소문나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경선이가 샘물공급소를 내오기 위해 애를 쓸 때 과장이라는 사람은 뭘하고있었는가.

조만간에 화살처럼 비발칠 비난을 생각하니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운것만큼이나 억울하였다.

병석은 이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는 승산이 없는 일때문에 소동을 피우지 말라고 못을 박으리라 마음을 도슬러먹었다.

방망이가 약하면 못이 솟는다고 그냥 놔두었다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불거질지 모른다.

두사람은 한적한 공원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우산처럼 넓은 잎들을 떠인 아름다리 오동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고있었다.

말머리를 어떻게 뻗었인가를 궁리하던 병석은 언지시 한마디 던지였다.

《난 그때 동무가 샘물공급소에 대한 미련을 버린줄 알았는데...》

발끝으로 땅바닥을 긁으며 앉아있던 경선이가 오연히 고개를 쳐들었다.

《과장동지! 그날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돌려세운 저의 마음은 쉬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가라앉을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꼭지를 댔 경선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

거리에 나서면 샘물을 길어먹느라 천죽령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경선이 자기에게 언제면 샘물공급소를 내오는가고 묻는듯싶었다.

정녕 저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한갓 욕망이었던 말인가.

번민이 클수록 과학적인 타산이 없이 즉흥적인

기분과 주관에 사로잡혀 물덤병술덤병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능숙한 지휘관은 전투전에 구체적이고 면밀한 작전으로 승리를 마련해야 한다는걸 배운 어제날의 군인이었던 내가 아닌가.

다시 가서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서는 일손이 잡힐것 같지 않았다. 그 일을 과장인 병석과 토론을 해보자니 어쩐지 자신이 없었다.

출근시간전으로 천죽령에 갔다오기로 마음먹은 경선은 새벽별을 머리에 이고 길을 떠났다.

뒤늦게 잠을 깬 삼라만상이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 때 샘터에 쭈그리고앉은 경선은 1리터들이 바가지로 샘물을 받으며 물량을 재보았다.

그러기를 수십번...

계산해보니 시간당 150립방이 넘었다. 시간당 150립방이면 24시간의 물량이 3천여립방이 넘는다는 수자가 나왔다.

읍지구 주민수와 대비해보니 그 물량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기쁨과 흥분에 들뜬 경선은 산이 들썩하게 환성을 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처음부터 물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했더라면 과장을 실망시키지 않는건데...

병석에게 미안한 감정과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돌아서던 경선은 까무러칠듯 놀랐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중소만 한 곰이 경선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숨이 꺾 막히였다.

머리카락이 모두 바늘썩지가 된듯싶었다. 맞반 아나가든 뒤걸음질을 하든 해야했는데 발바닥에 못이 박혔는지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구멍엔 숨뭉치가 틀어박힌듯 소리도 나가지 않았다.

곰이란 높은 상대가 녀자라고 얄잡아보았는지 코김을 히힝 내뿜며 욱박해왔다.

반정신이 나간 경선은 누가 떠박지르기라도 한듯 뒤로 나동그라지며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요!》

그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병원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웬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숲속에 쓰러져있는 경선을 업고 병원으로 왔다고 한다.

예상을 뒤집어엎은 경선의 이야기에 병석의 입은 빗장을 지른듯 열릴줄 몰랐다.

물량을 빗대고 샘물공급소를 내오는 일에서 발을 뺄으려고 했었는데 과학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물량이 충분하다는 경선의 견해에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수도관해결에 대해서 이미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린 병석으로서는 난처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포신을 벗어난 포알처럼 일단 조준경안에 든 목표는 무조건 명중시켜야 한다는데 체질화된듯싶은 이 처녀앞에서 수도관타발을 한다는것은 상급으로서 체면이 깎이는노릇이다.

이런 경우엔 주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도관확보가 얼마나 힘든것인가를 경선이가 체험한다면 더 다른 말을 못할것이다.

병석은 움쭉 몸을 일으키며 혼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래일부터 수도관을 확보하지요.》

한줄금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병석은 무심중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마치 물에 한번 씻어내기라도 한듯 맑고 푸르건만 병석은 가슴속에 그 어떤 시커멓고 묵직한 덩어리가 짙 들어찬감을 느끼었다.

×

퇴근하려고 방을 나서는 병석의 발뒤축을 물고 늘어지듯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문가에서 돌아선 병석은 얼른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시오!》

수화기에서 누군가의 메마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군인민위원회 학생모집과 부원입니다.》

그 소리에 병석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웃음발이 일었다.

《아, 부원동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참, 과장동문 출장갔다 돌아왔소?》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어제 마침 출장지에서 전화가 왔길래… 도시경영과장동지가 부탁한 처남소릴 했더니 잘 도와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병석은 친구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훈훈해났다.

《그래 과장동지 처남이 일하는 건설사업소에 제기했더니 그곳 지배인이 하는 말이 본인이 로동에 근면하지 못하다면서 대학추천에 동의할수 없다고 딱 자르더군요.》

《뭐요?! 지배인이?...》

외마디소리를 하는 병석의 이마에선 지렁이같은 피줄이 꿈틀거렸다. 시라소리같은 녀석. 욕이 나가는것을 참으며 자신을 수습한 병석은 사정하듯 말하였다.

《여보시오, 부원동무. 내 처남녀석을 만나면 단단히 신칙을 하겠는데… 좀 도와주오.》

그러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무정하리만큼 싸늘하였다.

《안됩니다. 과장동지도 대학추천원칙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보시오! 여보시오!》

사무실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쳤으나 전화는 이미 끊어지고 더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듯 수화기에서 울리는 잡음이 귀구멍을 쑤셔댔다.

신경질적으로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병석의 가슴속에서는 처남에 대한 원망이 동지달 팔죽가마 끓듯 하였다. 그렇다고 뭘대로 되라고 내버려두고싶지는 않았다. 미워도 고와도 처남이 아닌가.

방을 나서려는 병석의 눈길에 서류장옆에 놓여있는 수지물통에서 뗏었다.

안해를 위해 퇴근길에 천죽령에 갈 때마다 들고다니던것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들고 나설 자신이 없었다. 경선의 얼굴이 떠오른것이였다.

어쩔가 망설이던 병석은 어딘가 뗏뗏치 못한 자격지심에 당분간 천죽령에 다니는것을 삼가하리라 마음먹었다.

×

요즘 병석은 눈코뜰새없이 바빴다.

장마철을 앞두고 살림집보수에 당장 필요한 자재만 보장하해도 벅찬데 수도관 해결까지 겹쳤으니...

거북털 구하기보다 힘든것이 수도관인듯싶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것은 수도관소릴 꺼낼 때마다 어디다 쓰려는가고 묻는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였다.

입바르게 샘물공급소소릴 할수도 없는노릇이라 사공 배머리 돌리듯 적당히 둘러치긴 했지만 마음은 늘 시한탄을 안은듯 불안하였다.

공연히 소문을 냈다가 안되는 경우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발목이 시큰하도록 뛰어다니며 확보한 수도관이라는것이 쓰다남은 자투리가 아니면 낡은것들인데 그걸 놓고 어떻게 감히 샘물공급소소릴 한탄 말인가.

다행히 경선도 병석의 심정을 아는듯 일체 그런소릴 입밖에 내지 않았다.

《어찌겠소. 노력할만큼 했는데도 안된 일인데...》

삼사월 고드름처럼 맥이 빠진 경선의 입에선 신음소리같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병석은 이번 기회에 수도관해결이 얼마나 힘든가를 절감한 경선이가 다시는 샘물공급소소릴 꺼내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 일이 아니라도 도시경영과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잘 아는 경선이가 아닌가. 당장 들이닥칠 장마철전으로 비 새는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와 하수망정비 등등...

그렇듯 활기에 넘쳐 일하던 경선은 수도관해결에서 쓴맛을 본 후부터는 물보다 더 조용한 처녀가 된듯싶었다.

이따금 일하다가 무슨 생각엔가 골몰하는 경선을 보는 병석의 마음은 고추가루물을 마신듯 아릿하였다. 하긴 높이 오를수록 떨어지면 더 아프다지 않는가. 이제 시간이 지나느라 본래의 모습과 활기를 되찾겠지 하고 병석은 경선에 대한 생각을 간중그렸다.

어느날 저녁 경선은 병석의 책상앞에 다가서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동지, 전 정말 알수 없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그런지... 샘물공급소를 건설하잔다고 하니 다들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도 수도관을 도와달라고 하면 도리머리를 하면서 나서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로는 인민들에게 실지로 덕이 차례지게 하자고 하면서도 실천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병석은 흥분한 경선을 진정시키려고 그를 의자에 앉힌 다음 천천히 말머리를 때었다.

《그게 바로 이상과 실천간의 차이라고 할가... 하면 좋은줄 번연히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기는 힘든 경우가 현실에는 드문치 존재하거던.》

《이상과 실천간의 차이라고요?! 그럼...》

다시 흥분하는 경선에게 병석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 아, 내 말을 너무 뽀족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 그저 현실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요. 그건 그렇고...》

경선동무, 우리 샘물공급소건설을 말이요, 수도관이 해결되는걸 보아서 다음해로 미루는게 어떨겠소?》

《다음해로 말입니까?!》

의아해서 바라보는 경선의 눈이 덩둘해졌다. 그러는 경선에게 병석은 손세를 써가며 설명했다.

《사실 샘물공급소건설은 우리 도시경영과의 힘만으로는 너무 부친다고 할수 있소.

수도관을 이제 국가계획에 몰려서 받아오자면 빨라도 다음해쯤에나 되겠는지. 또 요즘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설대상이 많은데 우리같은 작은 산골군의 샘물공급소가 뭐겠소.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다음해에도 힘들다고 할수 있지. ...》

경선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정말이지 과장동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실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과장동지만은...》

그러니 결국 우에서 대줄 때까지 손털고 앉아 기다리자는겁니까?

그래 이 샘물공급소건설이 자기 친부모나 친형제, 자기 안해나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뒤로 미루자고 하겠습니까?》

병석은 속이 뜨끔해나서 수지물통이 놓여있는 서류장옆을 훑듯 돌아보았다.

이건 샘물공급소건설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는 소리가 아닌가. 하지만 샘물공급소가 건설되면 누구보다 그 덕을 볼것은 자기 안해 아니, 자기자신이 아닌가.

병석은 화끈 달아오르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부비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저 그렇다는 소리요. 현실적인 조건을 타산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말이지.

중소. 내 이제 며칠후에 도에 출장갈 일이 있는데 수도관문제를 좀더 알아보겠소. 여기저기 뛰여다니느라 어떤게든 해결되겠지. 그러니 너무 속쓰지 마오, 허허.》

따분한 분위기를 농치느라 병석은 속빈 웃음을 웃으며 자리를 일었다.

×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병석의 심정은 착잡했다. 출장갔던 길에 자재상사를 비롯한 여러곳에 품놓고 다니며 알아보았으나 해결해주겠다는데는 한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오던 길에 이웃군에까지 들러보았지만 역시 헛걸음이었다. 하기는 요새 어디에 수도관을 여유로 쌓아두고있는데가 있을텐가.

병석은 공연히 헛걸음만 한 자신을 탓하며 령길을 올랐다. 이제 실망할 경선의 얼굴을 그려보느라니 절로 맥이 났다.

가쁜숨을 뿜으며 령길을 오르던 병석은 길가운데 멎어선 대형화물자동차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도중에 고장이 난듯싶었다. 화차방통만큼이나 큰 적재함에는 하나같이 미출한 소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자동차를 피해 한옆으로 에돌아가려던 병석은 귀에 익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아이,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러세요.》

경선의 목소리였다.

의문부호가 머리속을 휘저었다. 무슨 일로 경선이가 여기에 와있을가. 길을 가다가 안면이 있는 운전사를 만났는가.

이어 운전사인듯 한 젊은이의 목소리.

《왜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요. 난 여태 소나무를 수도관대용으로 쓴다는 소릴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요.》

귀를 항 열고있던 병석은 화뜰 놀랐다.

소나무를 수도관대용으로 쓴다?

운전사의 말처럼 처음 듣는 소리였다.

《동문 어떻게 되어 그런 기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소?》

병석은 이번에도 전뿔하듯 놀랐다. 그럼 소나무로 수도관을 대용할 생각을 경선이가 했던 말인가.

담담히 우리는 경선의 목소리가 파도마냥 병석에게로 육박해왔다.

《머칠전 현장에서 돌아오다가 길가에서 아이들이 속이 빈 피마주대를 잘라서 물총을 만들어가고 노는걸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군대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병실 뒤산에 기막힌 샘물이 있었는데 나무에 흠을 파서 편결하여 병실 세목장까지 끌어들었었거든요. 물론 거리는 그에 비할바가 안되지만 원리는 같구 같지 않겠나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참...

군복은 벗었지만 군대시절처럼 살자고 하던서도...

전 자신을 자책했어요. 그래서 그달음으로 가구공장으로 달려가 노동자동무들과 토론해보니 기계로 나무에 구멍을 뚫으면 얼마든지 수도관대용으로 쓸수 있다는거예요.》

아!

병석은 빠른 속도로 솟구쳐오르는 경탄의 감정을 마음속 한가득 느꼈다.

경선이가 끝내 수도관문제를 해결했구나. 머리속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졌던 샘물공급소건설의 불가능이라는 요새가 와그르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 허탈감에 병석은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다.

얼간자 사람모양 서있는 병석의 귀에 운전사청년의 탄성이 들려왔다.

《야! 듣고보니 동문 탐구심이 보통이 아니로구만.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고 멋있는 발명을 했으니 말ियो. 정말 대단하오! 대단해!》

《어마나! 그만 놀려요.》

《아니, 난 놀리는게 아니요. 이걸 진심이요. 아까 인민위원회 위원장동지가 립산지배인동지보고 뭐라고 하신줄 아오? 경선동무가 참 기특하거던, 이 위원장도 생각 못한 샘물공급소건설을 발기하고... 늘 인민을 마음에 안고사는 경선동무가 아니고서는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할수가 없지. ...그러면서 수지관이나 인발관을 통과한 샘물은 자기의 고유한 맛이 떨어지지만 소나무관으로 통과시키면 그야말로 천연샘물맛 그대로라고 하시였소.》

운전사청년의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병석의 마음을 순간에 명증시키는것만 같았다.

아, 경선이!

흥분한 병석은 막 달려가 경선을 얼싸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무슨 체면에 그앞에 나선단 말인가.

병석이 차마 걸음을 못 떼고 주춤거리는데 경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난 사실 아직 멀었어요.》

《멀다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군, 인민을 자기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칠줄 아는 그런 진짜배기일군이 되자면 아직 멀었던 말이에요.》

제가 군사복무를 할 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중대에서 가까운 한 구분대를 찾으신적이 있었어요. 그이께서는 훈련장보다 먼저 병실과 세목장, 식당과 부식물창고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병사들의 생활을 친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어요. 그러시면서 콩나물로 요리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한증탕은 어떻게 짓고 한증은 어떻게 해야 좋다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어요. 그러시고는 우리 군관들이 병사들의 친부모, 친형, 친누이가 되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는거예요.

전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한생토록 새겨안고 그이의 뜻대로 살자고 애쓰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수도관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만 주저앉으려고 했었거든요. 샘물공급소를 건설하면 우리 군 주민들이 실지 먹을 볼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말ियो. 그러니 저에게 아직 인민들을 친혈육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이 바로 서있지 않다는거예요.》

인민을 친혈육으로 여기는 관점!

병석은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결국은 수도관문제가 아니라 관점문제였다, 인민을 대하는 관점문제였다.

바로 그런 관점을 지녔기에 경선은 이악하게 사색하고 탐구하여 수도관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냈는데, 그런데 나는... 몇군데 다녀보다 안되니 포기하고 우만 쳐다보면서 뒤로 미루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나를 두고 어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의 앞장에 선 일군이랄 수 있겠는가.

고장을 퇴치한듯 한 자동차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움썰 앞으로 미끄러져갔다.

병석은 찍어버린 나무그루터기마냥 우두커니 섰 채 멀어져가는 자동차 뒤꽂무니를 바라볼뿐 움직일념을 못하였다. 갑자기 고독감이 온몸을 휩싸안았다.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펴 구는 병석의 뇌리에 부지중 언젠가 경선이가 인민위원회 위원장앞에서 한 말이 떠올랐다.

《한가정의 부모형제들과 정다운 이웃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뛰고 또 뛰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는 무심히 스쳐들었던 그 말의 의미가 이 순간 왜 이다지 가슴을 달구는것인가.

병석은 비로소 어떤 사람이 인민의 참된 심부름

아 름 답 다 녀 인 이 여

김 재 원

내 어디서 보았던가
저 호수같이 시원한 아름다운 눈을
집채보다 더 큰 대형기계앞에서
CNC의 생활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 지성이 넘치는 젊은 여인을

들을수록 신기롭구나
인간이 상상하면 무엇이냐 설계하고
속도높이 종합체로 다듬어낸다는
저 최첨단기계
우리 식 CNC

어디선가 꼭 만난듯 한 여인은
새물새물 웃으며 그냥 이야기하네
자력갱생의 힘과 인간의 정신력에 대하여
장군님따라 끝없이 도약할
우리 주체과학의 창창한 래일에 대하여

아, 생활이란 이리도 아름다운것인가
생활이란 이리도 환희로운것인가
틀림없구나 저 여인이
그날 해질녘 길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길녘에 벗어놓았던 부속품배낭
다시 지고 일어서려 모지름할 때
내 바쁜 걸음 멈추고 맞들어준것이 고마워
학생같이 고개숙여 인사하던 그 여인이

오오, 세월이 가도 못 잊는다 그날의 그 배낭
조국이 기억하고있는 그 시절의 그 배낭
내 미처 몰랐노라 그날 그 배낭속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의 꿈과 녀과
이처럼 희한한 오늘이 담겨져있었음을

다시 통성 안한들 어떠랴
아름답다 여인이여
그대의 용모도
그대의 정신력도
그대의 리상을 담은 뚝뚝한 목소리

지성과 열정과 탄력에 넘쳐
강성대국 봄노을 향해 밝게 웃는
그대 젊은 과학자녀인이여
아름답다 그 모습
아아, 조국이 사랑하는 그 모습

군, 총복인가를 새롭게 안듯싶었다.

경선이처럼 늘 인민을 마음에 안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바라는 일을 한 가정의 부모형제, 정다운 이웃들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쟁그리 태우는 사람이 진정한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 총복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부모형제와 정다운 이웃들의 의사와 요구에 손발이 시러하고 타산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을까.

내 경우만 보아도 안해의 병치료를 위해서는 사흘이 멀다하게 왕복 10여리길을 힘든줄 모르고 걸었고 변변치 못한 처남의 일을 위해 이웃군에까지 다녀오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샘물공급소를 내오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각오전에 타산부터 앞세우고 패배주의에 빠져 남의 일처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던가.

돌이켜보건대 도시경영과장사업 십수년에 이

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던가.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할 오늘 나같은 일군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회오와 자책에 빠졌던 병석은 별때가 쓸어든것처럼 웅웅거리는 잡념을 털어버리듯 힘껏 머리를 쳐들었다.

저 멀리 샘터가 있는 천죽령이 안겨왔다.

바위쥘을 헤집고 힘차게 쉬임없이 용솟음치는 수정처럼 티없이 맑은 샘물이 눈앞에서 얼른 거렸다.

한 뿌리에서 서로 다른 줄기를 뻗은 전나무도 보이는듯싶었다.

아! 경선이! 혁명적군인정신이 심장에 짙게 차 있는 처녀!

처남에게로 가던 걸음을 돌려세운 병석은 경선이가 탄 자동차를 쫓아갈듯 자전거에 올랐다.

발디디개를 힘껏 밟는 병석의 온몸에 새힘이 솟구쳤다.

시 초

돌격대의 첫날, 백날

김 정 곤

돌격대의 첫날, 백날

돌격대의 첫날
야전천막에 배낭 벗어놓고
낮선 동무들과 통성도 하며
새로 일떠세울 발전소전망도앞에
줄레줄레 모여갔지

저 아슬한 벼랑산을 날려
바다같은 대인공호수를 앓힌다지
저 구름봉 넘어
서쪽으로 흐르던 강줄기를
물길굴을 뚫어
동쪽으로 휘잡아돌린다지

누가 하는가
내가
내가
단발머리 애송이들이
너무도 엄청나 입이 하 벌어지더니

돌격대의 하루 열흘
벼랑산에 첫 발과 맛을 보이며
기발을 앞세워 대렬합창을 부르며
눈비에 젖고 똑살이 박히고
커지는 일판에 담도 커지며

식성도 왕성해지더라

돌도 삼키면 소화시킬 나이
갈겨쓴 일기장 이따금 뒤번지면
절로 웃음나는 대목 한두곳이 아니다

돌격대!
경쟁에 불을 달아
손발에도 불을 뿜기며 뛰고 달리며
그러면서 어느새
희천속도가 내 걸음발 되였는가

오! 결사관철의 분분초초가
내 시간표되어 흐른다
온몸에 찼찰 소리치는 피줄기
땀젖은 저 창조물에 뻗어
놀랍게도 시대의 기념비로 치솟아오르나니

이때문에
심장이 뛰고
열정이 끓고
이때문에 삶이 불붙는

아아
이것이 청춘들 사는 멋이다
이것 없이 무슨 멋에 사는가
돌격대의 첫날... 백날...

적 정 도 많 아 진 다

평평 눈이 쏟아지면
자재 싣고오던 차 눈길에 막힐라
비가 퍼부으면
갓 쌓은 언제쪽 물에 씻길라

바람 맴짖 날엔
방금 다져넣은 몰타이 열가봐
날씨 찜물쿠면
전투장에 날라갈 두부국이 변할가봐

돌격대 처음 왔을 땐

서리꽃 날려도 제 발이 시릴가봐
비방울 떨어져도 제 옷이 젖을가봐
제 하나 걱정이 코코에 매달리더니

하루 열흘 흐를수록
전투장 넓은 구역 다 살피며
주인되어 돌보는 큰 걱정
제 하나 잔걱정은 하는듯 마는듯
이러면서 어느새
가슴도 활 커지나보다

목 마

물길굴을 통구멍내고
밖을 나서니
동무들 나를 얼싸안아
목마를 태운다

처음 타보는 목마
쑥스러워 버둥질해도
어깨에 잔등에
등등 받들려간다

이 어깨는
기둥같이 착암기 받쳐준 영남이 어깨다
이 팔뚝은
닭은 강냉이 한줄 손에 쥐어주며
아닌듯 거두던 소대장 팔이다

가슴 몽클 나도 모르게
불에 줄을 굶는 눈물방울
내 언제 동지가 많은
이렇듯 행복한 사람 되었는데

허공중 떠있다가 땅에 내리니
키가 한뼘은 더 커진듯
담벽을 떠밀며 쏟아부은 힘줄기
새로이 또 가슴에 뻗쳐온다

동무들 잡자리로 날 떠밀어도
둘러멘 착암기 내리울수 없다
저네들과 돌격선에 다시 달려가
함께 불이 되어 들끓다가
또 하나 내 동무 목마태워 날라오고싶다

밤 메 아 리

마중가자
불방치 황황 휘저으며
당원증을 받은 칠남동무
이밤에 달마고개 넘어온다누나

산향기 짙은 꽃다발
쳐녀들아 안고가자
씨엉씨엉 지름길 뚫아
고개마루에 오르니

산말기가 화불천지다
알아봤는가
밑에서 날아오는 소리
쇠메 휘두르며 쉼을 세던

철남이 석십한 소리 분명타

입을 모아 터치는 합창
—입당을— 축하한다— 아—
산이 울린다
별이 쏟아진다
소리소리 부딪쳐
메아리로 날아와 가슴을 두드린다

뺏뺏 서는 머리칼을
돌격대모자로 눌러쓰고
한가마밥 먹던 내 동무
당원된 축하의 환호성
밤메아리로 달마령을 뒤흔든다

성 장

언제를 쌓을 돌이 모자라
산관을 온통 뒤져도 모자라
돌격대원들
얼음장 들부시며 강물에 뛰어든다

구렁도 없이 호명도 없이
뉘라 없이 뛰어든다
네가!
내가!

차던가 얼던가
발에 밟히는 막돌
보물덩어리인듯 불안고
얼음장우로 솟구는 얼굴에
웃음불꽃이 팍! 팍! 튜다

...원췌의 불구멍 덮은 전사
누구의 구렁이 앞섰던가
작업지령으로 줄수 없는 구간을
펄펄 끓는 심장이 정하고
얼음장에 몸을 던진 막돌수집전투!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입에 오른 대렬합창 구절구절이
너와 나 피와 살이 되고 불덩이되어
강물도 와글와글 끓이는것인가

돌격대의 첫날에
물집 터진 손바닥 형겼으로 싸매며
허겄으로 남모르게 눈물방울 빨아먹던
너와 나

너와 나
 얼음장우로 들어올린 막돌이
 언제우에만 높이 쌓였더냐
 가슴 복판에 치솟아오른
 신념의 성벽!

아아, 수령결사옹위의 투사
 리수복영웅의 런번호에 나란히
 너와 나
 한발자욱 더
 다가선것 아니더냐

강

호수의 잔물결이
 처녀들 갸스런 얼굴을 담고
 어루만지듯 일렁이네
 빨래방치소리 아슬한 언저리에 부딪쳐
 울림으로 커지며 끝을 흔드네

저것 봐
 우리 천막자리에
 휴양각을 세우면
 창문을 열고 돌배도 따먹겠대

유람선도 뚝도 띄워놓고
 야영기를 올리면
 등산모 쓴 아이들이
 오구구 모여오겠구나

만

전기 일구는 새 호수를 앉혀놓고
 땀절은 작업복을 빨며
 처녀들 주고받는 목소리
 물이랑이 받아안고
 찰랑찰랑 어깨춤추네

이제는 배낭 제집에 풀어놓고
 한껏 락을 누려도 좋으련만
 또다시 벽찬 새 일터로
 마음을 앞세우는 처녀들

참으로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하늘의 흰구름도
 물위에 내려
 별에 탄 얼굴을 만지고가네

나는 총검을 달랠수 없다

김 춘 호

너무도 긴긴 날 참은탓이나
 쌓인 원한이 하도 커서냐
 병사의 손에서 서리발치며
 분노에 떠는 나의 총검아

그제는 서해
 어제는 동해
 오늘은 또 군사분계선에서
 어느 하루 조용한 날 없이
 불질에 미친 원쑤 너도 보느냐

그래서 증오를 재운
 멸적의 만탄창 어서 풀자고
 분노의 번개 비낀
 이 총창 어서 무자비하게 휘두르라고
 시시각각 이 병사를 재촉하느냐

젖을 달라는 아이라면
 젖을 물려 달래이고
 잠을 보채는 아이라면
 자장가를 불러 달래련만

달래기에는

총검아 너의 재촉이 너무 다급하구나
 총탄을 물어채는 너의 격발기소리
 심장의 벽을 광광 울리누나

서리찬 너의 총창으로
 원쑤 얼마의 목숨을 끊으면
 총검아 우리 원한 다 풀겠느냐
 멸적의 너의 총탄으로
 원쑤 얼마의 심장을 꿰뚫으면
 총검아 우리 울분 다 가시겠느냐

하루에도 열백번
 천백배복수로 부르는 총검아
 참고참으며
 너를 말로만 달래기에는
 침략의 무리가 너무 날뛰누나
 전쟁의 불구름이 너무 가깝구나

오직 하나 무자비한 복수전으로
 쌓인 원한 쌓인 분노 다 풀 날은 그 언제
 아, 나는 더이상 너를 달랠수 없다
 병사는 더이상 총검을 달랠수 없다

조국해방전쟁주제 소설작품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성격 창조

리 순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웅적인민이 요구하는 예술은 응당 영웅적이여야 하며 세계무대에 오른 인민이 요구하는 예술은 응당 세계적수준에 올라서야 합니다.》

지난 시기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문학은 주제문학이 개척한 고유한 창작생리와 미학적원칙들에 기초하여 영웅적문학으로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성격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인류문예사에 영웅적성격창조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

오늘도 조국해방전쟁주제 소설작품들은 철천지 원수 미제와는 반드시 한번은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영웅적성격과 그 기초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작품들은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하면서 영웅적성격의 밑바탕에 흐르고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의 전쟁주제 소설들에서도 애국적군인들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 제나라의 영웅들도 형상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주제 소설들처럼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성격의 기초를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수령결사옹위의 각도에서 보고 형상하지 못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50년여름》(안동춘 작)에서 김책동지의 형상은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무한한 헌신성이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으로 새로 조직된 전선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서울에 자리잡은 전방지휘소에 도착한 김책은 최용건과 마주앉았다. 군사적인 능력과 지혜로 볼 때 언제한번 최용건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겨본적이 없고 오히려 많은 면에서 최용건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경해온 김책이다. 그러나 그는 한강계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관철에서 범한 최용건의 실책을 두고 불만을 금할수 없어하며 오랜 동지지만 랭혹하다고 할 정도의 비판적립장에서 이야기한다.

《동무의 실책을 생각하면 괴롭소. 나 역시 그런 정황에 부딪치면 다른 방도를 얻지 못했을거요. 아니, 필경 그랬을거요. 그런데는 왜 체때에 보고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안타깝소. 급속강행도 하명령을 받고도 동무가 그런 완만한 결심을 단독으로 채택한것이 리해되지 않소.》

《어찌 보면 동무가 자만하지 않았는가, 또 다르게는 가벼운 인정에 끌려 그러지 않았는가.》

최용건을 준절히 비판하면서 김책은 우리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주관적욕망 하나로는 절대로 받들수 없으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과 그것이 체질화되어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와 작전적구상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이러한 실책을 범하지 않을수 있다는 뼈에 사무친 교훈을 찾는다. 따라서 그는 그 어떤 전선의 작전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 결속지어 전전선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다. 이런 충신이였기에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조선의 힘》(정기종 작)에서 보여주는것처럼 평양방어임무를 받고 떠나던중 자신의 차뒤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친위중대의 호위병들이 따라오는것을 아는 순간 지체없이 차를 세우고 그들에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나라의 흥망이 어디에 달렸는지 아는가고, 그것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께만 달려있다고 눈물을 머금고 준절히 타이르며 오직 장군님만을 결사옹위할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돌려보내는것이다.

참으로 김책의 형상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군인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의 밑바탕에는 그 어떤 사상감정이 맥박치고있었는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구현한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단편소설 《불타는 섬》(황건 작)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도에서 찾아보기조차 힘든 자그마한 섬 월미도, 여기에서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섬방어전투가 벌어진다. 단 몇문의 포와 한개 중대의 전투원들을 상대로 5만여명의 병력, 수백여척의 함선, 수많은 비행기가 무차별적으로 달려든다. 도

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 엄혹한 조건에서 3시간도 아니고 3일간이나 섬을 사수할데 대한 명령을 리대훈중대전투원들이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어 결사관철한다. 아직도 세계의 군사가들속에 신비한 기적으로 알려져있는 월미도방어전투. 그러면 그 신비한 기적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힘이 있었는가?

작품에는 영웅전사들의 사상정신적기초를 보여주는 리대훈의 뜻깊은 대사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도 지도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시구계실겁니다. ... 원썬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땅 어디서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계실것입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지켜보고계시는 조국의 섬 월미도, 아버이수령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미더운 전사들이 있는 월미도. ...

바로 이러한 사상정신적기초가 그들로 하여금 불사신의 힘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숭고한 희생을 발휘하게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돌파구》(리종렬 작)에서도 광병식소대를 비롯한 고병근중대의 군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는것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있다.

직무와 나이, 생활경로와 성미가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원썬 미제를 기어이 쳐몰리치려고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로 가슴들을 불태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에 따르는 갯도전에서 소대장 광병식,련대장 강태욱, 중대장 고병근, 전사들인 한철흙, 리명모, 박광준, 조철성 등 모든 군인들이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미제의 이른바 《신공세》작전의 파탄에 첫 돌파구를 열어놓는데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는것이다.

어찌 이런 작품들뿐이라.

조국해방전쟁주제를 취급하고있는 모든 소설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재현하고있다.

영웅적성격창조와 집단주의철학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작품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의 참모습들을 감명깊이 형상하여 우리식 전쟁철학의 불패의 위력과 그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불과 불이 오가고 생사가 판가리되는 전쟁이야

말로 인민대중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작품들은 우리 군인들의 대중적영웅주의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깊이 일반화하여 보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승리》(김수경 작)에서 351고지공격전투에 참가한 전사들에 대한 묘사는 대중적영웅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의 하나이다.

지난날 자신의 소총명에 사로잡혀 전사들의 창조적의견을 소홀히 하면서 주관주의에 빠져있던 부군단장 송철무,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혁명군대의 참된 지휘관으로 자라난 그는 351고지전투를 앞두고 전사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의견을 종합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보고드리고 결론을 받는다.

용맹스럽고 결단성이 있는 대대장 리충근은 351고지전투를 책임진 지휘관으로서 전투를 앞둔 모의훈련에서 병사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엄격한 요구성을 훌륭히 결합시킨다. 하여 병사들모두가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면서 단 15분만에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성과를 낳는다.

뿐만아니라 빼앗은 고지를 사수하는 전대미문의 가렬처절한 전투에서 서로 위해주고 도우면서 영웅적 위훈들을 창조한다. 고향이 남강원도인데 거기에는 두 누나의 묘밖에 없고 사랑하는 동생마저 원썬들의 총창에 찔리워 죽은 남다른 불행을 안고있건만 언제나 웃음이 많아 대원들을 기쁘게 해주던 김룡택 전사, 그는 돌격선의 제1선에 세워줄것을 열렬히 제기하고 것처럼 마음속으로 소원하여오던 입당청원서를 제출한 다음 공격전투에서 주저없이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개척하며 수많은 전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한다. 나이타인인지 전투동작이 느려 중대지휘관들의 애를 태웠지만 성실한 노력으로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던 하윤종아바이, 뒤늦게 입대한탓으로 룡포리에 찾아오시였던 아버이수령님을 만나뵈지 못한 아쉬움을 못내 감추지 못하고 살아온 그는 운명의 판가름을 앞둔 시각에 뜻밖에도 동지들앞에서 자신의 인생총화를 의미있게 하면서 만일 공격전에서 당원증을 놓아달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한다. 그는 공격전에서뿐만아니라 빼앗은 고지를 피로써 사수하고 준엄한 격전장에서 마지막까지 병사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영웅병사로서의 최후를 마친다.

대대가 351고지공격전투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의소에서 짝지발을 한 그대로 《도망》을 처 공격전에서 적의 화구를 까부시고 부대의 공격로를 개척하는 부소대장 오명일, 한몸 그대로 불사신이 되어 국기계양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

하는 민청위원장을 비롯한 영웅전사들, 이 유명무명의 전사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는 놀라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중편소설 《전사들》(석윤기 작)도 우리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새로 《유엔군》사령관 및 미극동군사령관으로 된 리치웨이가 방대한 무력으로 후방의 중심깊이 동서해안작전을 펴하던 엄혹한 시기 조국의 조그마한 고지인 두무령을 지키고있는 박대우중대앞에는 피를 물고 달려드는 폰 웨드마이어의 두개 련대를 견지해야 할 매우 어렵고도 중대한 전투임무가 부과되었다. 상상을 초월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에서 박대우, 김의식, 최두령, 광홍규 등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뭉쳐 고지를 피로써 사수하고 영웅적위훈을 세우는것이다.

대중적영웅주의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이것은 그 어떤 강대한 침략자들도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단결된 인민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로 되고만다는 우리 식의 전쟁철학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는것이다. 여기에 조국해방전쟁주제소설들의 철학적깊이와 형상의 무게를 담보해주는 요인의 또 하나가 있다.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작품들은 자기의 주제사상적과제에 따라 예술적일반화의 각도에서 차이가 있을뿐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형상에서는 그 어떤 작품이든 대중적영웅주의의 무궁무진한 위력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영웅적성격의 주인공들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작품들은 영웅적성격의 주인공을 어제날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출신의 병사들이거나 그들의 아들딸들로 설정하고 그들의 위훈에 대하여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우리의 전쟁주제작품들에서 보게 되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영웅전사들은 모두가 누구나 흔히 보게 되는 너무도 평범한 출신의 병사들이다. 실사 지휘관들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손에 직접 총을 잡고 《나를 따라 앞으랏!》 구령소리를 치면서 노도와 같이 내달리고 대오의 앞장에서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진속에 뛰어드는 지휘관, 병사들과 같이 한전호가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련속되는 전투의 휴식시간에도 전호가에 나란히 앉아 구수한 마라초도 한모금씩 나누는 지휘관, 나라없던 지난날에는 배짱뱅이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피눈물나는 고역속에 시달리다가 해방후 비로소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혁명군대의 지휘관으로 성

장한 군인들을 형상하고있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는가, 아니면 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되고마는가 하는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로 역세게 자라난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제1부(석윤기 작)에서 박세철전사, 중편소설 《전사들》에서 박대우중대장, 단편소설 《불타는 섬》에서 리대훈중대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보게 되는 영웅주인공들모두가 이처럼 평범한 근로인민출신들이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에 그려진 박세철전사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심,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을 되풀이할수 없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있다.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이 나라의 모든 아들들이 어떻게 전선영웅들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소설에서는 또한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되어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히우는가 아니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치렬하고 가렬한 전투의 불길속에서 세철은 점차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지닌 병사로 자란다. 대전해방전투를 앞둔 행군도중의 전투에서 덤벼드는 장교놈을 맨손으로 때려죽이며 로동계급출신의 본때를 보여주는가 하면 187.8고지전투에서도 미제침략자들을 무리로 쓸어놓는다. 그는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진에서 혈투를 벌린다.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세철은 미군놈을 총창으로 찌르고 다른 팔로는 그놈의 노랑대가리를 으스러지게 꺾으며 의식을 잃는것이다. 혼미한 의식에서 깨어나자 세철은 저 대전거리에서 원썬놈을 한놈이라도 소멸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머니조국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것인가, 형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형의 전우인 련대장의 간곡한 타이름을 들은 내가... 하는 하나의 생각으로 전진한 부대를 찾아가던중 병사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치는 골드빈과 24사단장 편과 맞다들게 된다. 어머니와 형, 저자신의 원한이 너무도 깊게 서려있는 선교사 골드빈의 아들 윌리엄 골드빈을 육중한 돌로 쳐죽인 세철은 온몸에 남아있던 힘을 다 동원하여 편을 사로잡는 영웅적위훈을 세운다.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출신의 보통병사 세철과 패전을 모른다는 《상승사단》의 사단장 편 그리고 선교사 골드빈의 아들 윌리엄 골드빈과의 대결, 여기서 우리의 승리와 적들의 파멸을 생동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작품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영웅전사들은 모두가 지난날 착취와 억압만을 받아오던 로동자, 농민출신의 평범한 전사들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승 리 자 들 에 게 축 하 를

리 태 식

거리를 빛내며
해빛에 번쩍이는 훈장들을 절렁이며
전쟁로병들이 걸어온다
동무들아 전승절 이 아침
위훈많은 로병들에게 축하를 드리자

경축의 광장으로 가는 그 걸음걸음에
승리자의 기쁨이 더 커지도록
가슴펴고 걷는 그 자욱자욱에
승리자의 긍지가 더 넘쳐나도록

저들이 아니냐
우리 날마다 걷는
오늘의 행복한 이 길을
10대에 20대에 우리에게 열어주고
머리가 희어진 사람들이

적땅크가 밀려오면
육탄으로 땅크를 까부시며
이 길을 지켜주고
적화점이 불을 뿜으면
피끓는 가슴으로 화점을 막아
이 길을 넓혀준 그 사람들이

저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해빛이 넘쳐흐르는 등교길들과
희열에 넘친 로동의 즐거운 출근길들을
황금나락 설레는 풍요한 대지의 그 들길들을...

저분들이 지켜싸웠기에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우리 아버지세대의 길이 있었고

저분들이 있었기에
그 어떤 강적도 두렵없이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대의 행복넘친 길도 있나니

로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우리 드리자
자신을 위한 길은
한줄기의 작은 오솔길도 없이
청춘도 생명도 사랑도 깡그리 다 바쳐
오직 한길
영광넘친 조국의 큰 길을 닦으며
고귀한 한생을 빛내인 혁명선배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가
그 얼마나 자랑스런 사람들인가
수령님 가리키신 승리의 한길우에
불멸의 위훈을 떨쳐온 전쟁로병들
궁지높은 승리자의 영예를
목숨으로 가르쳐준 그날의 근위병들

이제 결전의 그날이 다시 온다면
성스럽게 바친 그날의 그 냇이
고결하게 바친 그날의 그 삶이
우리 조국 **김정일**장군님을 사수하여
결사옹위의 총검을 틀어잡고 내닫는
우리앞에 총대처럼 꺾끗이 서있거니

아, 축하를 드리자
조국수호의 길우에
불멸의 자욱을 남긴 로병들에게
어머니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이 나라 후손들을 따라세우며
끝나지 않는 애국의 그 길을 앞에서 걸어가는
영원한 승리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경례를!

타고난 영웅이란 없다. 우리의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영웅들을 형상하면서 그들을 타고난 싸움 군, 리상화된 영웅으로 그리는것자체가 현실에 대한 외곡인것이다. 실지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 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모두가 소박한 로동자, 농민, 학생출신의 병사들이거나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낸 어질고 순박한 인민들이었다.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작품들은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 영웅전사들모두가 이처럼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어떻게 영웅으로 성장하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소설작품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무모한 군사적위협을 감행하고있는 오늘 천출명장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그 어떤 대적이 달려들어도 단매에 쳐물리치는 결전의 길에서 모두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작가의 고통에 대한 생각

김 유 권

자기 작품을 탈고하여 출판에 회부했을 때의 그 흐릿한 심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작가들이 이야기하였다, 몇해를 두고 품을 들여온 작품인 경우에는 정든 자식을 떠나보내는것처럼 서운한 느낌마저 든다는데 대해서도.

장편소설을 편집부에 넘긴 나의 심정도 다를바 없었다.

나이 50고개를 넘어 쓴 첫 장편소설인데다가 최첨단 CNC기술분야의 생활을 담은것으로 하여 후련하기 그지없었다. 터놓고말하여 나 자신도 창작가로서 현실에 뒤지지 않고 우리의 벽찬 생활과 보조를 같이하여 나아가고있다는 위안도 은연중에 가지게 된것이다.

그런데 그후 《돌파하라 최첨단을》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세계적인 CNC기술의 패권을 쥔 우리 나라의 경이적인 현실이 널리 소개되기 시작하자 나는 일단 마무리를 한 소설의 이야기와 인물들이 어쩐지 왜소하고 부족하며 진부하게 생각되는것이였다.

내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부단히 전진해온것이 아니라 취재가 끝난 당시의 시점에서 멈춰서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떠올랐다.

모대기던 끝에 나는 활자화되기 직전의 원고를 찾아가지고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살고있는 연구소로 다시 찾아갔다.

현실의 변화와 그 속도는 나를 놀래웠다.

내가 취재를 끝내고 즐거리를 짜고 집필하고 추고하는 과정에 현실속의 나의 주인공들은 몰라보게 키가 커졌던것이다.

내가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실장은 소장으로 되어 벌써 연구소적인 혁신과제와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CNC화를 추진하고있었다.

소설권내에서 소심한 인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집단의 연구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것으로 설정했던 리남웅이라는 청년의 실지 원형인물은 그사이 조종체제설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내 원고를 낡은것으로 만들어버린 현실은 어차피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였다.

물론 실장의 직위를 소장으로 변경시킬수는 없었지만 그의 안목과 포부, 활동반경을 이전의 주인공보다 더 크게 그리게 되었으며 또한 청년과학자 리남웅의 성격발전과정에도 박사논문과 관련된 생활을 더 보충하게 되었다. 작품에서 취급하는 과학기술적인 내용을 그사이 연구사들이 도달한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린것은 물론이고 젊은 연구사들이 화학기지에 나가 프로그램읽기도구의 판번호를 몇시간만에 한급 높이 갱신하여 써먹었다는 기적적인 사실도 새로 형상권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늦게나마 소설과 현실의 차이를 줄일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로서는 정말 다행스럽기 짝이 없었다.

원고가 출판되어나온 후 나는 부푼 마음을 안고 연구사들에게 소설책을 나누어주었다. 워낙 속독을 하는 수재들이라 장편소설 한권을 서너시간 동안에 다 읽고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그린 소설이여서 자자구구 빠짐없이 품들여 읽었다면서 작가가 그간 고생이 많았겠다고, 잘 보았노라고 재삼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아쉬워하는 점은 나로서도 예상밖이였다.

《선생님, 좀 늦었습니다. 이 책이 한 1~2년 전에만 나왔어도 좋았을걸...》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보고 소설의 속편을 보고 싶다고, 꼭 써야 한다고 한결같이 부탁하고 요구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그들에게 작가로서 빚을 지고 사회앞에 실로 큰 파제를 받아안은 셈이 되었다.

나는 연구소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생각하곤 한다, 전진하는 시대와 우리 작가들의 사명감에 대하여.

내가 이제 새로 쓰는 소설도 것처럼 출판된 뒤에 현실보다 뒤떨어진 작품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도 든다. 하기는 이런 위구심이 결코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아무리 예술적환상과 허구를 발동한대도 전진하는 우리 생활의 거세찬 속도와 그속에서 더더욱 아름답고 위대해지는 우리 인간들을 제때에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려울것 같다.

그 생각만 해도 뿌듯해지는 나의 마음이다. 더불어 다른 생각도 잇달아 꼬리를 문다.

문예사를 돌이켜보면 이와 다른 실패들도 기록되어있는것이다.

어떤 나라 작가는 소설의 제2부를 쓰려고 정들었던 취재지로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갔다가 시정배로 굴러떨어진 원형인물을 보고 절망에 빠져 인간세상과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었으며 그 소설을 중도에서 포기하고말았다고 한다.

실제한 인물을 모델로 하여 예수를 그렸던 한

내 고향 사람들

조 광 철

고향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밤꽃 하얗게 핀 언덕에
오각별 붉은 추모비 하나
그 앞엔 소담한 고향들꽃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때없이 이 언덕 오르내리면서도
나는 모른다 이들의 고향을
이름과 나이 생김생김을
백살장수자 이웃집로인도
이들의 고향을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알고있는것은
고향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을 한고향사람처럼
이 언덕에 자주 올라 그들을 추억한다는것

내 고향 사람들
아이적 시절부터
기쁘고
즐겁고
행복스러운 날

힘들고
피로운
날일지라도
가장 가깝고 친근한 사람들로
언제나 어느때나 함께 산다는것을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한
한마디로 피를 나눈 혈육과도 같은
이들의 삶은
그 얼마나 오래오래 이어지고있는가

이 땅을 지킨 빛나는 삶으로써
벗들과
동생들
사려깊은 스승들과

부모들
누이들
정다운 사람들을
그 얼마나 많이도 이웃하고 사는가

오늘도 이 언덕엔
젖소떼 한가로이 햇풀을 뜯고
장난에 정신팔린 꼬마애들
어머니들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부를 때까지
웃고 떠들며 노래하는 고향

하거니 내 이들의 고향을 알려 하지 않는다
그 고귀한 넋을 태줄로 묻고 사는
고향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품
아아 조국이란 영원한 그 품이
그들의 고향임에야...



화가가 후에 주정뱅이가 된 바로 그 인물을
보고 유다를 그렸다는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경우는 어떤가.

우리의 과학기술 특히 CNC분야는 그야
말로 가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그 담당자들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에 북방의 어느 한 공
장을 찾으시고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안겨주
신 CNC화의 화불이 오늘은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에 활활 타번지고있는것이다.

온 나라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심장
들에 새기고 모든 면에서 현대화되고 CNC화
된 으뜸가는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

운차게 내달리고있다.

공장이 뚫고 나라가 변하고있으며 시대가
격변하는 세월이 바로 오늘이다.

변천되는 우리의 시대를 보는 이 가슴은 정
말 뜨겁다.

나는 생각한다, 전진하는 시대와 작가의 고
충에 대하여.

내가 작가의 사명감을 지니고있는 한에는
언제까지도 이러한 작가로서의 고충은 끝
나지 않을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가슴뿌듯한 긍지감속에 생각한다.

작가의 상상보다 더 빠르게, 더욱 눈부시게
개화만발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취
재의 신들메를 조이는것은 고충이라기보다
기쁨이 아니겠는가!...



신 승 구

1

××수산사업소 지배인 문영철은 요즘 물고기잡이에 신명이 나서 잠이란걸 통 잊다시피 했다.

오늘도 현장사무실에서 잠간 눈을 붙였다가 깨어보니 방금 러멍이 깃들기 시작하는 첫새벽이었다.

새벽빛은 아득한 수평선너머에서 밤새 밝음을 뽐내던 못별들의 자태를 하나둘 지워버리며 가물가물 피어오르기 시작한 노을빛에서 력연히 나타났다.

그는 50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껏 탄력이 꺼지지 않은 두팔을 힘껏 벌려 우드득 기지개를 쳤다.

그리고 창문을 훌 열어제끼고 새벽공기를 한껏 들이켰다. 바다물이 출렁이며 설레이는데 금빛 노을이 흠어지며 부서지며 너울치는 휘넓은 바다 공간에 갈매기들이 아우성친다.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내려다가 물을 차고 솟아오르는 갈매기들, 그것들의 송곳같은 부리에 물린 물고기가 은빛을 발산하며 푸들거린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으니 갈매기 또한 공회전을 모르는 명종이다.

문영철은 컴퓨터앞에 다가앉았다. 밤새 또 쟁쟁 뛰어들렀을 물고기잡이실적을 빨리 알고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다. 이제 시동단추를 누르면 상냥하기 이룰데 없는 컴퓨터서기가 화면에 나타나 물고기잡이실적을 도표로 그려보이며 기쁨을 안겨줄것이었다. 그러나 도표를 보는 순간 그의 흐뭇하던 기분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어획량을 표시하는 도표가 하강선을 굽고있지 않는가?

(영? 컴퓨터가 오동작하는게 아니야?)

그렇지 않다. 최신형량자컴퓨터가 어획량과 같은 지극히 간단한 문제에서 실수할리 없었다.

그는 요즘 어장에서 살다싶이 하는 기사장을 찾아 화면전화기호출단추를 눌렀다.

쭈여뿌린 꽃잎처럼 고기비늘이 점점이 박힌 방수덧옷을 어깨에 걸친 젊은 기사장의 바다바람에 그슬린 구리빛얼굴이 전화기화면에 나타났다.

《찾았습니까? 지배인동지!》

《기사장동무, 지난밤에 물고기잡이실적이 낮아진게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레사롭게 흘러나오는 기사장의 대답에 문영철의 언성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뭘요? 바다에 물고기가 없기라도 하단 말이요?》

《없어서가 아니라 잡을 필요가 없어서지요.》

《그건 무슨 뼈꾸기같은 소리요? 잡을 필요가 없다는건...》

문영철은 기사장이 어장에서 줄곧 밤을 패더니 머리가 돌지 않았나 해서 불깃불깃한 그의 얼굴을 의아해서 쳐다봤다.

기사장은 방수장갑끈 오른손을 들어올려 쿵 가슴을 쳤다.

《지배인동지, 잡기만 하면 뭘합니까? 물고기수송이 걸렸는데. 창고에는 말할것도 없고 부두와 랑동창고에도 물고기가 쌓여 이제 더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잡은 물고기를 부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수송이 걸려 물고기를 못 잡는다— 허 난사로군.)

물고기잡이와 수송간의 불일치를 두고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빨리 화근이 닥쳐오리란 걸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가.

지배인의 피곤실린 부푼 눈두덩우에서 누에눈섬이 꿈틀거렸다.

《사업소기술일군들을 총동원시켜야겠소. 묘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모두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열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술과 경심기사가 제일 극성이지요. 전문일군들의 방조를 받으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니까요.》

《우리 딸애가?》

불현듯 그의 눈앞에 외동딸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어려왔다. 몇해전에 수산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아버지가 일하는 수산기지에서 기사로 일하는 딸애는 문영철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미간을 찌프렸다.

《대학을 갓 졸업한 책상물림의 풋내기가 무슨 일을 치겠대구.》

《풋내기라니요? 경심이는 새 세대의 지식인입니다. 과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련애도 과학적으로 하구요.》

《련애도 과학적으로 한다? 진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요?...》

《언젠가 지배인동지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심이한테 총각을 소개해달라구...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리상이 맞는 미끈한 청년을 척 달고 나타나게 될겁니다. 두고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여보 기사장, 지금 어디 룡담할 때요? 물고기 수송문제때문에 속에 재가 들어앉은판인데...》

문영철은 팔을 뻗 내저었다.

송수화기를 놓자 그의 눈길은 자석에라도 끌리듯 다시금 창너머 바다쪽으로 옮겨졌다.

쉽없이 출렁이며 설레이는 바다, 누가 말했든가, 바다는 잠들줄 모른다고...

얼마나 황홀한 바다풍경인가? 그것을 바라보느라니 아득히 흘러간 옛시절의 한토막이 어제런듯 눈앞에 펼쳐진다.

《지배인동무, 이 바다를 부탁하오.》

언제나 그의 심장속에 살아있으면서 때없이 추억의 대문을 두드려주고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는 절절한 목소리, 그 목소리의 입자는 누구였던가. 그는 이 바다를 위해 탐구의 가시덤불을 헤쳐오다가 그 길에서 생을 마친 김해동연구사였다. 수도의 어느 한 대학에서 연구사로 일하던 그는 동해의 물고기자원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느라

고 한동안 이곳 수산사업소에 내려왔던적이 있었다.

...4월의 해빛이 파도우에서 아롱지던 어느날, 그들은 바다가를 거닐었다. 해동연구사는 바다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며 흥분해서 소리쳤다.

《지배인동무, 나는 이 넓은 동해를 물고기떼로 육식거리게 하려오.》

《동해를? 물고기가 아니라 바다나물이겠지?》

《난 물고기를 녀두에 두고 하는 소리요. 컴퓨터모의실험으로 확증했소. 생각해보오. 겨울이 되면 바다웃층의 물은 온도가 낮아져 밑으로 내려가고 밑층의 미생물들은 웃층의 물이 운반해오는 산소로 활성화되어 유기물질들을 질소와 린 등 무기물질로 분해하지요. 바로 이 무기물질들이 다시 위로 떠올라 바다마름류들의 비료가 되는게 아니겠소? 마름류가 무성하려면 이런 비료가 많아야 그걸 먹고 사는 부유생물들과 물고기들이 많아질 건 뻔한 리치가 아니겠소?... 그러니 바다물속에 산소를 대량적으로 주입하자는거요.》

문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치는 옳은데, 그런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산소를 얻어낸단 말이요?》

해동연구사는 이때라는듯 휴대용컴퓨터를 펼쳐놓고 모의실험과정을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바다에 주입할 산소를 산소분리기로 얻어낸다는건 전기도 많이 들고 설비가 요란하기때문에 실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물표면에 레이자분리막을 형성한다는것이였다.

《레이자분리막?》

《그렇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막이지만 공기가 그 막을 지나가는 사이에 산소농도는 21프로로부터 30프로까지 높아질수 있소. 그걸 바다물속에 주입하면 마름류들의 성장속도를 지금보다 수십배는 더 가속시킬수 있다고 보우.》

컴퓨터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문영철이 왜선지 미간을 찌프렸다. 연구사의 타는듯 한 눈길을 느꼈는지 말았는지 두눈을 꼭 감고 달다쓰다말이 없다.

문영철은 아무래도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퍼그나 동안을 두었다가 시들해서 입을 열었다.

《설사 컴퓨터모의실험결과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마 오랜 세월이... 우리대에 덕을 보기에는 아마...》

해동연구사는 이때라는듯 문영철의 곁에 바투 다가앉으며 그의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내뿜었다.

《그러기에 인공광선으로 그 세월을 앞당겨보자

는거요.》

문영철은 놀라서 휘둥그레진 두눈을 해동연구사에게 주면서 한팔을 뻗 내저었다.

《뭘요? 인공광선을?... 그러자면 가속기실험을 해야 할텐데, 위험하오. 모험이란 말이요!》

연구사의 온화한 얼굴에 탐구의 온갖 풍상고초를 달게 여기는 사람만이 지을수 있는 깨끗한 미소가 피어났다.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찬이슬을 먼저 맞는 법이지요.》

《연구사선생도 참, 누가 새벽이슬을 마다한다오? 그러나 그 찬이슬을 보람없이 맞을 필요는 없지요. 우리 나라 바다에 정착해서 사는 물고기들도 적지 않지만 보다 많은 물고기들이 해류를 따라 무시로 이동하고있다는 사정도 고려해야지요. 기껏 길러놓은 물고기가 다 달아난다면 맹랑한 일이 아니요?》

《그러나 마름류들이 무성하면 그 물고기들이 우리 나라 바다에 더 오래 정착하게 되지요. 숲이 무성해야 칠새들도 더 많이 날아들며 보금자리를 트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옳소. 그러나... 가속기실험만은... 승인할수 없소. 천만번 위험하니까. ...》

문영철은 해동의 지긋은 눈길에 더는 붙들리지 않으려는듯 잔파도가 일렁이는 먼바다만 바라보았다.

《 좋습니다. 연구사업은 과학자의 몫이니 모든걸 저에게 맡기십시오. 》

해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거두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간단하다 소리없이 사라졌던 해동은 얼마후 안해와 일곱살잡이 아들까지 데리고 아예 바다가현장에 내려왔다. 그리고 안해와 함께 낮에 밤을 이어 연구사업을 다그쳤다. 문영철은 해동연구사의 불같은 열정에 감심하여 자기 집 한칸을 내어 주면서까지 연구사업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의 신변이 걱정되어 늘 가슴을 조였다. 마침내 다량의 산소를 바다속에 주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인공광선만 얻어내면 연구사업을 마무리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인공광선을 얻기 위한 가속기실험에서 끝끝내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들은 실험과정에 나오는 파장(일명 《죽음의 파장》이라고도 한다.)을 몸에 받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동해에 물고기자원을 늘이기 위하여, 후대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자기 한몸의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었던것이다. 문영철은 자기때문에 그들부부가 잘못된것 같은 자책감에 가슴치며 통곡했다. ...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머리가 총명하여 《신동》이라는 애명으로 불리우던 소년, 두살잡힌 팔에 경심을 데리고 마당에서 곧잘 놀기도 했는데 그 애까지 피해를 받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밤을 지새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싶어 실험현장에 찾아갔다가 부모들 몰래 실험과정을 지켜보았던 모양이다.

죽음의 파장은 어린 생명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해동연구사가 일하던 공업대학에서는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수도의 병원에 데려다가 온갖 최신치료방법을 다 적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로는 도무지 소식이 없다. 제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전장한 어른들도 건디지 못하는 죽음의 파장을 연약한 어린애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생각할수 있으랴.

그래도 문영철은 행어나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애의 소식을 알아보곤 했다. 하지만...

오후에 문영철은 사업소 파장급이상 회의를 소집했다. 물론 그 회의는 이즈음 널리 보급되고있는 컴퓨터가상현실모임이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각기 제 일터에서 컴퓨터앞에 마주앉아있지만 회의장소에 있는것과 같은 가상현실이 펼쳐져 사람들은 모임에 참가한것과 똑같은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수송문제를 풀겠는가? 개발한 착상을 제기하자!... 단겼던 물목이 터지듯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장 현실에 도입하여 은을 낼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좀처럼 찾아볼수 없었다.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모임을 끝낸 문영철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컴퓨터에 마주앉았다.

인터넷망에서 소개되는 자료에 기대를 걸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식경이나 목록을 뒤적거렸으나 그 어느 자료도 신통한것이 없었다.

(허, 이 일을 어쩐다?)

삼시에 몰려드는 나쁜 피로감에 눈앞이 아찔하여 책상모서리를 잡고 휘청휘청 웃음을 세우는 참인데 누군가의 조심스레 옮겨딘는 발걸음소리가 등뒤에서 밟았다.

따뜻한 체온이 흐르는 만만한 손바닥이 두눈에 살풋이 덮였다.

《누구냐?》

문영철의 두손이 허공에서 허둥거리는 찰나 까르르 웃음소리가 터졌다.

《호호호, 저예요. 아버지 그제 일밖에 모르셔!》

경심의 새물거리는 쌍꺼풀눈이 문영철의 피곤실린 얼굴을 어루쓸더니 살그니 옆에 앉는다.

《왜 왔냐? 바쁜 시간에 일은 많고…》

《아이참, 전 일을 하고있어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거든요.》

날씬한 몸매에 웅달샘같이 그윽한 두눈, 동실한 어깨너머로 시원스레 빗어넘긴 굽실한 머리카락… 시집갈 나이인데도 제 아버지앞에서는 여전히 응석받이그대로였다.

《반가운 소식이라니?》

《아버지를 도와드릴 귀인이 나타났거든요. 유능한 과학자예요. 국제발명전시회에서 1등을 두 번씩이나 했더니 알만 하지요? 우리를 도와줄 좋은 방안이 있는가봐요.》

《그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밖에서 기다리고있어요.》

《귀한분을 기다리게 하다니… 빨리 모셔들이지 않고…》

문영철은 부리나케 방안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거울앞에 다가가 머리로 빗고 넥타이도 바로잡았다.

유명한 과학자라면 나이도 지숙할텐데 큰 사업소 지배인의 체면이 깎이우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경심을 따라들어온 사람은 애젊은 청년이 아닌가.

가냘픈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커보이는 머리, 퇴박이마에 반쯤 흘러내린 머리카락… 무척 낮은 모상인데 어디서 보았던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어장에서 만났던 어로공이었던지, 실습왔던 대학생이었던지…

문영철의 의문실린 눈길이 장한 일을 한듯 새물거리는 경심의 얼굴에 살처럼 날아갔다.

《넌 유명한 과학자선생님을 모셔온다더니?…》

《바로 이 동무예요.》

《그—래?》

문영철은 병싯 열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청년은 《지배인동지, 안녕하십니까?》라고 정중히 자기 소개를 했다.

초면인사치고는 그 얼굴이 지나치게 반가움에 젖은듯싶고 목소리는 기쁨과 환희를 실은 현악기의 울림이다. 가슴속에 묻어둔 속생각을 털어놓지 못해 바재이느것 같기도 했다.

(하, 이 청년이 언제 봤다고…)

문영철은 조금히 물었다.

《그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공업대학 박사원생 김철민입니다.》

《공업대학이라구?》

문영철은 머리를 기웃했다. 공학전문가가 수산사업소에 나타난건 뭔가 방향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혹시 알겠는가? 팔에 경심은 유명한 과학자라지 않는가?

《그래 뭘 연구하려고 하는지…》

《저는 물고기잡이에 배를 쓰지 말자는것입니다.》

《뭘? 배를 안 쓰고 물고기를 잡는다? 하, 희한한 어로방법인걸! 그래도 그물은 있어야겠지?》

《그물도 필요없습니다. 전혀… 공업적방법이니 까요!》

《응?》

문영철은 뻥한 눈길을 상대방에게 주었다. 청년이 바다를 보고 산이라고 한것처럼, 하늘을 보고 땅이라고 한것처럼…

《배도 그물도 필요없다면… 그럼 낚시를 리용한 방법인가?》

《낚시로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없지요.》

《글쎄 말이요. 내 한뼉 바다에서 살아오면서 배도 그물도 필요없고 낚시도 쓰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다는 소린 처음 듣는데… 그것 참 공업적인 어로방법이로군. 물고기잡이는 그렇다치고… 우리 기업소에 당장 걸린건 물고기수송문제인데 그걸 풀 방도는 없는지?》

그러자 이번에도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는 대답이 청년의 도도룩한 입술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다구? 그럼 말해보라구.》

문영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렇게 묻지 않을수 없었다. 그 문제야말로 요즘 문영철의 가슴에 체증처럼 얹혀져 앉으나서나 노상 앓음소리를 터치게 하는 골치거리였던것이다.

《그거야 하늘로 훨훨 날아가게 하면 되지요.》

《하늘로 날아가게 한다? 무엇을…》

《거야… 물고기지요.》

《뭘—라구? 물고기가 무슨 갈매기라고 훨훨 날아간단 말이요. 하… 이 동무가 점점 한다는 소리가…》

문영철의 살집좋은 불편이 움쉴움쉴하다가 억지로 닫겨있던 웃음집이 그만에야 터지고말았다.

《으하하… 하하하… 내 지배인 30년에 별별 소리 다 들어보았지만 이런 기막힌 소린 처음 듣누

만! 동무, 지금 몇살이요?》

《스물일곱입니다.》

(스물일곱이라... 그 시절에는 지나친 환상에 사로잡힐수도 있지.)

문영철은 다시한번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나 청년은 표정을 달리하지 않고 의젓한 자세 그대로다. 오히려 경심이쪽이 억울한듯 대들었다.

《아버지, 왜 웃어요? 이진 과학이예요, 과학!》

《나도 과학이 신비로운 조화를 부린다는걸 모르지 않아. 하지만 물고기가 갈매기처럼 날아갈수는 없는거야. 아무렴! 기술부원이면 제 일이나 똑바로 하거라, 저런 청년을 달고다니지 말고...》

문영철은 새파래서 입술을 옥물고있는 경심에게 사나운 눈길을 쫓 흘기고나서 청년에게 돌아섰다. 아무래도 자기 말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어 타이르듯 말했다.

《동무, 보아하니 학위론문을 쓰는 모양인데 우리 사업소는 동화세계와 같은 그런 연구종자를 받아들이주 없소, 없단 말이요. 어서 다른 사업소에나 가보라구.》

그러나 청년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다. 모욕을 받았다는 표정은 전혀 없고 실망이 어린 눈길로 문영철을 바라보고있다.

《지배인동지, 어제날의 동화세계를 오늘의 현실로 꽃피우는게 과학이 아니겠습니까? 지배인동진 그저 무인조종비행기나 한대 보장해주십시오.》

《무인조종비행기를? 그건 왜?》

《그게 있어야 실험을 할수 있으니까요.》

《실험을?... 혹시 무인조종비행기에 물고기를 실어나르자는게 아니요?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는 격이 되지.》

야유가 깔린 그 말이 필경 청년의 신경을 자극하였을테지만 태도는 여전히 공손하다.

《저, 그런게 아니라...》

《난 동무와 말씨름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충고하건대 학위론문을 쓰겠으면 보다 현실성 있는 종자를 잡을것을 권고하오.》

열물을 삼킨듯 이지러진 경심의 얼굴이 문영철의 눈앞에 돌진하듯 다가들었다.

《아버지, 너무해요, 너무하단 말이에요. 이 동무는 학위나 반자고 그러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연구사업을 하겠어요, 하겠단 말이에요.》

경심은 청년의 손목을 이끌고 문밖을 뛰쳐나갔다.

2

한여름날씨치고는 퍼그나 맑은 날이었다. 끝간데 없는 바다공간은 쏟아지는 햇빛과 물결에 부서지는 반사광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다.

문영철은 사업소전용비행기에 올라 바다우를 날고있었다. 제 눈으로 직접 물고기떼상태를 보고 사색하느라면 수송문제를 풀 실마리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문영철은 바다수면 여기저기에서 죽가마처럼 뿔어번지는 고기떼를 내려다봤다. 얼마나 황홀한 바다풍경인가. 그러나 마음은 어쩔지 불안하기만 하다. 아닌게아니라 저 많은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다는것이 그리고 그것을 배로 나른다는것이 어렵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허허, 박사원생이 엉뚱하지만 옳게 말했어. 그러나 물고기가 갈매기처럼 하늘로 날아갈수는 없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순간 20여년전 김해동연구사와 함께 바다우를 날던 일이 불현듯 떠오른것은 그로서도 어쩔수 없는 마음의 충동이였다.

...그날도 머리우로는 구름덩이들이 마구 쥐여뿌린 솜뭉치처럼 자유분방하게 흘러가고있었다.

탐색기로 바다물속을 관찰하던 해동이 환희에 넘쳐 소리쳤다.

《지배인동무, 보시오. 바다속에 떠살이생물이 왕성해졌소. 마름류들이 수풀처럼 무성해졌구. 바다에 주입한 산소가 은을 낸게 분명하오. 이제 인공광선만 얻어내면 이 바다는 물고기로 넘쳐날거요. 그러니 지배인동문 지금부터 물고기수송문제를 연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우.》

그때 문영철은 어떻게 대답했든가?

《공연한 걱정음...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서 못잡지 잡은 물고기를 나르지 못할가? 난 아이도 낳기 전에 포대기부터 장만할 생각은 없다니...》...

그러니 오늘의 난관은 바로 지배인인 자신의 불찰때문이 아닌가?

이때였다. 바다우에 난데없이 회오리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땡이처럼 뱅뱅 돌며 타래쳐오르는 회오리에 바다물이 끓고 하늘을 가린 뽀얀 물안개가 거대한 물기둥으로 곤두서더니 빙글빙글 회전운동을 시작했다.

문영철의 눈길은 언뜻 하늘가에 쳐들렸다. 푸른 용단같은 곤충색하늘이 아득히 머리우에 끝없이 펼쳐졌다.

(영? 맑은 날에 회오리가?)

바다의 룡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의 이야기

가 현실로 펼쳐졌단 말인가?

문영철의 놀란 눈길이 불시에 일어난 기이한 자연현상을 황황히 더듬었다.

무연한 바다공간에 물안개를 휘뿌리며 솟구쳐오르는 거대한 통의 몸뚱이 회오리기둥이 감때사나운 괴물처럼 대가리를 휘저으며 비행기쪽으로 각 일각 육박해온다.

(응? 저게 뭐가? 도대체!)

문영철은 창황중에 비행사더러 속도를 높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통의 대가리는 놀라운 속도로 비행기를 다쫓아오는게 아닌가? 아무리 속력을 내어도 소용이 없다. 그 괴물이 마침내 비행기뿔무니를 덥석 물었다. 추진력을 잃은 비행기가 그 유평같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한순간 부르르 동체를 떨었다. 문영철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칸막이너머 승객실쪽으로 옮겨졌다. 거기에는 섬으로 가는 사람들도 타고있어 그들의 신상이 못내 걱정되었던 것이다. 아닌게아니라 사람들은 안전띠를 꼭 잡고 몸부림치고있었다.

그런데 놀라서 헤덕비는 승객들과는 달리 두 청년이 삼각다리우에 설치한 무슨 기구앞에서 측정도 하고 기록도 하면서 바빠 돌아치고있었다. 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총각이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몸매가 날씬한 처녀였는데 등실한 어깨너머로 흘러내린 머리태가 비행기의 요동에 토끼뿔을 했다. 뒤모습이 하도 눈에 익어 찬찬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자기 딸 경심이 아닌가? 그리고 총각은 엇그제 찾아왔던 박사원생이고...

(저 애들이? 무슨짓을 하는거야, 도대체!)

생각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귀뺨이라도 치고싶었으나 어쩔수 없었다. 비행기시창옆에 설치한 저 기구가 이 조화를 부리는듯 한데 그러다 사태를 덧긋힐수도 있었다.

문영철은 놀란 눈으로 두 청년을 쳐다보기만 했다. 어쨌든 그들의 손놀림은 민첩하고 정확하다.

두 청년이 기구에서 손을 떼는 찰나 비행기는 양- 하고 급속성을 터뜨리며 앞으로 쑥 나갔다. 승객들은 안전띠에 매달려 다시한번 몸을 흠칠했고 곁에 앉았던 비행사는 모두숨을 내뿜었다.

《후유- 이제 됐습니다. 회오리에 말려들면 어쩔가 했는데... 저길 보십시오. 회오리가 바다속으로 들어가고있습니다.》

뭐? 회오리가 바다속으로?... 회오리가 무슨 고체덩어리라고 바다속으로 떨어져내리겠는가?

회오리는 대기의 밀도차에 의해 생기는 공기의 회전운동이다. 회전운동이 없어지면 회오리는 대기중에 잣아들고만다. 그런데 맑은 날에 회오리는

어떻게 생겼으며 바다속으로 들어간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회오리를 일으킨 에네르기는? 에네르기는 스스로 생기지도 않거니와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운동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그 큰 회오리를 일으킬만 한 거대한 에네르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것일까?...

비행기가 사업소마당에 착륙하자 문영철은 서둘러 땅에 내려 비행기동체를 올려다보았다. 비행기동체우에 검은 물체들이 점점이 깔려있어서 눈여겨보니 물고기가 아닌가? 그러니 회오리를 따라 올라왔다가 도로 바다에 잠겨든것은 물고기였다!

비행기와 바다물면사이의 거리는 수백메터,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물고기가 상승운동을 했겠는가. 불현듯 섬광처럼 마쳐오는 생각이 문영철의 뇌리를 쳤다.

(아하, 그 기구가 회오리발생장치였구나! 그러니 물고기가 회오리를 따라 갈매기처럼 날아갈수 있겠구나. 착상이 놀라운걸!)

문영철은 청년과 경심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생각같아서는 청년을 얼싸안고 등이라도 두드리주고싶은 심정이였다. 스물일곱의 애 어린 나이에 그처럼 기발한 착상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한 청년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탐스러운 열매도 무르익은 다음에야 단맛을 낼수 있지 않는가. 청년의 착상이 아무리 기발해도 아직은 채 익지 않은 과일에 불과했다. 거기에서 오늘일을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났으면...

이리하여 칭찬보다는 욕설을 앞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사업소전용비행기에 몰래 올라 소란을 피우는가? 비행기에 섬으로 가는 사람들이 타고있다는걸 몰랐는가? 연구사업이 무슨 장난인줄 아는가?...

청년은 날카롭고 모진 추궁을 변명 한마디 없이 달게 받았다. 그제 또한 기특해서 문영철은 다시 한번 청년에게 눈길을 주었다. 가냘프고 연약하고 어리무던해보이는 청년, 청년의 그 어디에 그렇듯 놀라운 과학적힘이 숨어있단 말인가, 쇠물처럼 이글거리는 두눈에? 두드러진 뒤킵이마에?... 다시금 청년의 얼굴이 낮익어보인다. 어디선가 꼭 보았던 것 같다.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보기는 어디서 보았겠는가? 류다른 청년이라는 느낌때문이겠지...

그들을 내보낸 다음 문영철은 전화로 기사장을 찾아 박사원생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

며칠이 지났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문

영철은 기술자료가 실린 컴퓨터화면에서 눈길을 땀다. 전화기화면에 기사장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익살맞은 호남아롱의 모습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울기가 서려올라 너부죽한 얼굴이 온통 불깃불깃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기사장동무.》

《성에서 긴급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나쁜 놈들이 우리 바다의 물고기들을 자기 나라 수역으로 유인해가려고 책동하고있답니다.》

《뭐-요?》

《고도과학기술을 리용해서 물고기를 도적질해가려는것이지요.》

문영철의 손이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다.

《고현 놈들, 어떻게 길러낸 물고기라구, 새끼고기 한마리라도 빼앗길수 없단 말ियो.》

《그러자면 지배인동지, 수송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알겠소. 수송돌격대를 못고 잡은 물고기를 화물역으로 운반합시다. 박사원생 김철민동무의 연구사업은 어떻게 되고있소?》

《지금 한창 다그치고있습시다만 아직은...》

《좋소. 그에게 우리 기업소의 기술력량을 전적으로 붙여주어 연구사업을 완성시키도록 합시다, 되도록 빨리!》

전화를 마친 지배인은 직접 철민이를 만나 연구사업을 료해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처에 전화를 했지만 행처가 묘연하다. 그 누구도 박사원생을 보지 못했다는것이다.

최근시간이 지나서인지 실험실에도 몇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도무지 응답이 없다. 잠시 생각하던 문영철은 컴퓨터서기를 호출했다. 박사원생을 찾기 위한 최후수단을 발동한셈이다.

《츠통신을 런결해서 김철민박사원생의 위치를 알리라.》

《알았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츠통신은 반경 2키로메터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할수 있는것이다.

잠시후 컴퓨터화면에 컴퓨터서기가 나타나 김철민박사원생이 가공직장앞에 림시로 꾸린 자기 실험실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문영철은 사무실을 나섰다. 마음이 조급해서인지 걸음발이 절로 빨라졌다.

실험실앞에 이른 문영철은 문을 두드리려다말고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책상우에는 램구의 흔적인양 책들과 도면들이 펼쳐지고 복잡한 공식들을 써넣은 종이장들이 흩어져있는데 철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방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느라니 턱밑까지 이불을 뒤집어쓴 철민이 침대에 누워있지 않는가? 이마에는 물에 적신 수건이 놓여있다.

(영, 앓는게 아니야?)

문영철이 가슴이 철렁해서 창문을 들여다보는데 경심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철민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본다. 경심이까지? 문영철의 눈이 절로 휘둥그레졌다. 경심의 놀란듯 한 목소리가 귀가에 미쳐왔다.

《어마나! 불덩이예요. 매일 밤을 새우니 무쇠인들 견디겠어요? 병원으로 가시자요.》

《그만두오, 감기겠지.》

《하여튼 며칠 쉬어야 해요.》

《쉬다니? 우리는 지금 치열한 격전장에 서있는 거나 같소. 오늘날의 싸움은 과학기술전ियो.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게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소? 전투장에 나선 병사가 몸이 불편하다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되겠소?!》

《...》

《참, 전번엔 지배인동지에게 미안하게 됐소. 무인조종비행기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소전용비행기에 올라 소란을 피웠으니... 우주기지에 설치한 태양렌즈와의 초점이 맞지 않아 회오리발생장치에 태양에너르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으니 출력이 약해질수밖에... 그래서 회오리가 생기다말았거던.》

청년은 러실러실해진 입술을 감뻘며 끓기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참, 그거야 아버지가 무인조종비행기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아무데서나 빨리 실험을 해야 한다고 제가 우겼던게 아니예요. 자, 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자요.》

《병원이라니, 이제 약을 먹으면 나올거요.》

철민은 알약을 입에 넣고 꿀꺽꿀꺽 물을 삼키었다. 침대에서 뛰어내려 팔을 굽혔다 폈다하며 호기있게 소리쳤다.

《보오. 약을 먹으니 벌써 낫지 않았는가? 온몸에 힘이 솟누만. 난 바다의 아들이요. 바다의 아들이 쓰러지는걸 봤소?》

경심은 놀라운 눈길로 청년의 얼굴을 쳐다봤다.

《예? 바다의 아들이라니요? 동무야 수도의 공업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바다를 위해 한생을 바쳤소. ... 그리고 나도 이 바다를 연구하기 위해 해저도시에서 공부했거던.》

《해저도시라니요?》

《우리 나라의 동해에 해저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것을 동무도 알지 않소. 거기에는 병원도 있고 중수소를 원료로 하는 해저핵융합발전소도 있고 살림집도 있지. 그리고 학교도...》

처녀는 놀랍다는듯이 두손을 맞잡았다.

《그러니 거기서 대학을 다녔겠구만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심은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쓰는 총각을 부축해주며 근심스레 다시 묻는다.

《성공할수 있어요? 인공회오리를 만들자면 에네르기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데...》

《그러길래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자는거지. 태양에네르기가야말로 아무리 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무진장한 에네르기의 샘이거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미 우리 나라의 우주기지에 거대한 태양렌즈를 설치했던거요. 그 태양렌즈를 통해 집초되어 변환된 태양에네르기가 지구의 회오리발생장치에 공급되게 되오. 그 에네르기가 회오리발생장치에 닿아 1초동안에 수만번 공기를 돌려주는 회전운동으로 전환되어 공고한 회오리벽이 생기게 되는거요. 난 성공의 열쇠를 찾았소. 이제 모의실험을 한번만 더 하면... 자신이 있소. 난 꼭 성공할테요. 바다의 아들이 물려서는걸 봤소?》

《좋아요. 동무가 바다의 아들이라면 난 바다의 딸이에요. 이제 당장 해보자요.》

《당장?! 동무도 그동안 힘들었을텐데...》

《이자 방금 우리는 결전장에 선 병사와 같다구 하구서두 그래요. 그리고... 난 한생을 동무의 곁에 있어야 해요.》

(뭐? 한생을 함께 있어야 한다구? 그러니 저 애들이 벌써? 그리고 바다의 아들이라는건 또 무슨 소린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바다를 위해 생을 바쳤다구? 그렇다면 그의 부모들은? 혹시 저 청년이 해동연구사의 아들?...)

그리고보니 얼굴생김이 어딘가 모르게 어린시절의 신동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문영철은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어림짐작으로 세월을 더듬어보아도 해동연구사의 아들은 서튼이 훨씬 지났을것이였다. 그러나 박사원생은 20대의 새파란 청년이 아닌가? 그러니 해동의 아들은 절대로 아닐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문영철은 방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정신이 편뜩 들어 창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갓가지 색깔의 신호등들이 깜박거리는 측정장치와 컴퓨터앞에서 두 청춘남녀가 실험에 정신을 집중하고있다.

《태양렌즈의 설치각도를 좀더 조절하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알았어요.》

컴퓨터의 형광화면에 비낀 태양렌즈의 거대한 응자가 서서히 움직여 설치각도를 변경시키고있다.

경심이 컴퓨터앞에 앉아 모의선도를 그리고있었다.

...태양렌즈에서 집초된 태양빛이 레이자선을 타고 지구에 내려와 회오리발생기구의 에네르기변환장치에 닿았다. 그러자 화면에 회오리의 모의선도가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

문영철은 젖어드는 눈길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불같은 젊은이, 자네가 그런 사람이였구만! 뉘 집 자손인지 아들을 잘 두었어.)

3

기사장이 흥분된 얼굴로 지배인실로 뛰어들었다.

《지배인동지, 회오리수송관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도입시험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지배인동지의 의견은?》

《그렇소?!》

요즘 급기야 마음이 동해서 매일, 매 시각 기다려지던 소식이었다.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을 당하고보니 갑자기 덮쳐드는 근심이 싸늘하게 가슴에 서려든다. 회오리수송관이야말로 자그마한 실수도 허용치 않는 현대과학의 정수가 아닌가? 지구와 우주, 육지와 바다, 하늘과 땅이 하나의 유기체로 융합될 때라야 성공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천변만화하는 우주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다, 때없이 변덕을 부리는 대기... 어느 고리가 언제 튀어날지 어이 알랴! 불안한 환영이 눈앞에 얼른 거린다. 어느해인가 돌개바람이 불더니 바다물고기가 거리의 가로수에 그 무슨 신기한 과일처럼 주렁주렁 매달렸던 일이 생각키웠다. 만일 회오리관의 세기가 순간이라도 약해진다면?... 그때는 만사가 끝장이 아닌가.

문영철은 눈을 꼭 감았다. 눈앞에서 어지러운 환영이 줄달음친다.

공중에서 락하운동을 하는 물고기들, 거리바닥에 부딪쳐 부서지고 튕겨나는 물고기살점들...

문영철은 안간힘을 써서 달려오다 멈춰섰을 때처럼 불시에 숨이 가빠났다.

《기사장동무, 우리 좀더 심사숙고하는게 어떨겠소. 그러다 실패하는 날엔...》

《마지막검토실험까지 마쳤습니다. 인공회오리벽의 세기는 유연하면서도 세기에 있어서는 룡

크리트나 철판보다 더 견고하다고 합니다. 이권 대기의 자연현상인 통권현상을 그대로 모방한것이 아니라 현대과학에 기초해서 더 발전시킨것입니다. 그래서 회오리수송관은 맑은 날이건 흐린 날이건 일기에 관계없이 임의의 시간에 리용할수 있습니다. 무인조종비행기에 설치된 회오리발생장치가 회오리통로를 형성하고 부압에 의해 바다에서 빨려올라온 물고기는 통로를 따라 운반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운반하는가 하는것은 회오리발생장치에 얼마만한 에너지를 공급하는가 하는건데 이번 실험에서는 화물역까지만으로 정하자고 합니다.》

문영철은 한손을 쳐들었다.

《가만, 회오리통로안에 부압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10미터이상이야 올라올수 없는게 아니요?》

《그러기에 고기떼주위에는 강한 압력의 인공대기를 조성해두자는겁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수십미터 아니, 수백미터까지의 높이로 상승운동을 하게 됩니다.》

문영철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수 없었다. 기사장은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시각에도 나쁜 놈들이 우리의 물고기를 호시탐탐 노리고있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어서 지시를 펴구십시오.》

지시를 펴구라... 그러나 문영철의 두툼한 입술은 철문처럼 굳게 닫혀있다. 뚜걱뚜걱... 문영철은 창문가로 다가갔다가 직각으로 몸을 꺾어 책상으로 다가왔다.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송수화기의 무게에 못이기기라도 하듯 그 손은 다시 아래로 처져내린다.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곁에서 말하는 기사장의 잔잔한 목소리가 나팔소리처럼 쟁쟁하게 귀가에 마쳐왔다.

《철민동무는 성공을 목숨으로 담보하고있습니다.》

《목숨으로 담보한다구?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요?》

기사장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가 힘있게 내뿜었다.

《자기가 직접 회오리관안으로 날아가겠다고 합니다.》

《뭐요? 회오리를 타고 날아가겠다고?...》

《네, 회오리를 타고...》

문영철의 등골로 찬물이 쏟아져내렸다.

《그건 모험이요. 과학이 아무리 중요해도 인간의 생명과는 바꿀수 없단 말이요. 당장 중지하라고 하시오, 당장!》

갑자기 울리는 화면전화기의 신호종소리에 문영

철은 와플 놀라 눈길을 들었다. 지배인의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것처럼 전화기화면에 박사원생의 모습이 불쑥 나타났다. 그 얼굴색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시험을 앞에 둔 사람치고는 너무도 온화했다.

《지배인동지,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공하게 될것입니다.》

《성공할수 있다? 그걸 어떻게 담보하는가?》

《제가 이제 모의선도를 전송해드리겠습니다. 회오리무지개의 벽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우에 회오리의 모의선도가 나타났다. 바다 한복판에 한끝을 묻고 하늘공간에 휘우듬히 가로결린 회오리가 룩지의 그 어디인가에 닿아있었다. 아닌게아니라 그 회오리관은 대기의 통권현상을 리용한것이긴 하지만 자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것이였다. 갑자기 강한 충격체가 날아오르더니 회오리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 충격체는 회오리벽을 뚫지 못하고 옆으로 튕겨나 저 멀리로 사라졌다. 그러니 그 회오리벽이 든든하리라는것이 한눈에도 헨동하게 알렸다. 그래도 문영철은 주저되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 회오리속으로 사람이 날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했다.

곁에 섰던 기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지배인동지, 이제... 중지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지할수 없다는건 무슨 소리요?》

《철민은 소형패속정을 타고 벌써 바다로 나가고 원격조종장치를 휴대한 경심은 바다가언덕으로 오르고있습니다.》

《아니, 그 위험한 일을... 그래 기사장은 승인한다는거요?》

《승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과학을 생명으로 여기는 새 세대 과학자의 신념이지요. 그 신념은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문영철은 서둘러 화면전화기의 호출단추를 눌렀다.

날바다에 한척의 패속정이 비말을 뽀얗게 날리며 돌진하고있었다. 돌격전에 선 병사인양 키를 총가목처럼 틀어잡은 청년의 두눈에서는 예광탄같은 불줄기가 내뿜인다. 흩어져날리는 머리칼에 반나마 가리워진 뒤통이마, 지나치게 돌출해나간듯한 뒤통리...

(아, 저 머리, 저 기상, 어디서 봤더라?...)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속에 녹슬었던 기억의 대문을 팡! 두드리며 섬광처럼 비쳐오는 생각! 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바다에서 숨졌다고 했지? 정말 저 애가 해동연구사의 아들이 아닐까? 그러

나 다음순간 문영철은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조국에 바치는 그 열정, 그 기백, 신통히도 해동연구사를 닮았지만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는가?!

문영철은 애써 잡았던 구슬이 손아귀에서 빠져 달아나는듯 한 허전한 마음을 달랠수 없었다.

아무튼 회오리관안으로 날아간다는건 생명을 내대야 하는 엄청난 모험이다. 문영철의 뇌리속에 해동연구사의 모습이 회불처럼 불끈 솟구쳤다. 해동연구사의 가속기실험을 제때에 말리지 못한 자책감이 아직도 가슴속에 체증처럼 얹혀져 서리서리 휘감긴 그 웅어리가 수십년세월이 지나도록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문영철이었다. 만일 박사원생의 신상에 자그마한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다시한번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 아닌가.

《여보게, 박사원생! 돌아서라구, 어서!》

《걱정마십시오.》

《실패하는 날엔 어떻게 된다는걸 생각해봤는가?》

《자기 힘을 믿고 조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자기를 바칠 각오를 안은 과학자에게는 실패란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려선다면 이 바다를 위해 한생을 바친 저의 부모들이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문영철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갈린 목청을 터쳤다.

《부모들이 용서치 않는다구? 말하라구, 박사원생, 도대체 자네는 누구인가?》

박사원생의 얼굴에 깨긋한 미소가 조명등처럼 확 피어났다.

《저를 그렇게도 알아보지 못하시다니요? 제가... 제가 바로 김해동연구사의 아들입니다.》

《뭐라구?》

《우리 나라의 해저병원에 있는 랭동치료실에서 랭동상태로 5년동안 잠들어있었지요. 그러니 나이가 젊어보일수밖에요. 조국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아, 네가 정녕 김해동연구사의 아들이로구나. 짐작은 하고있으면서도 나이차이가 눈을 멀게 했어. 그 열정, 그 기상, 어쩌면 그리도 아버지를 닮았느냐? 신동아!》

문영철은 북받치는 환희의 감정에 여울목 터지듯 불을 타고 홀려내리는 눈물도 닦을념을 않고 읊조리듯 중얼거렸다.

(아무렴, 부모들의 뜻을 안고온 너를 모를라구? 알지, 알구말구...)

철민이 찌렁찌렁 소리쳤다.

《지배인동지, 어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나 문영철은 송수화기를 손에 든채 돌처럼 굳어져있었다. 아직 상봉의 기쁨도 나누지 못한 친우의 아들, 그의 신변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길것만 같은 불안감이 가슴에 저며들어 떨리는 눈길을 아득한 바다공간 한끝에 주었다.

철민이가 탄 패속정은 푸른 바다물결과 재빛하늘이 맞닿은 아득한 수평선 저 멀리에 있고 원격조종장치를 휴대한 경심은 푸른 물이 부서져 갈래갈래 비말을 날리는 바다가둔덕에 부동자세로 서있다! 처녀의 머리에 쓴 머리수건이 공격대렬의 기발처럼 펄럭이며 문영철의 시선을 자석처럼 이끌어간다.

그는 자기가 그 공격대렬을 진격으로 불러야 할 지휘관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문영철은 지령마이크를 신호권총처럼 힘있게 잡고 우로 들어올렸다.

《신동아, 경심아, 내 말이 들리느냐?》

《들립니다!》

《들립니다!》

원격마이크에서 울리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설의 룡이 하늘로 올라갈 때 바다에 지동치던 퇴성의 울림같고 처녀의 목소리는 그에 화답하는 메아리같다.

문영철은 망원경을 쳐들었다. 배머리에 우뚝 일어난 철민이가 바다에 뛰어들려고 상체를 우로 솟군다. 휘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 아니, 온 우주를 한손에 휘어잡을듯 한 장엄한 기상... 아, 어쩌면 너는 그리도 아버지를 닮았느냐!

문영철은 눈길을 쳐들었다. 온 우주와 하늘땅, 바다의 설레임도, 갈매기울음소리도... 자연의 모든것이 그 자리에 굳어져 침묵속에 삼킨듯 했다.

《시작하라!》

달아오른 심장의 변죽을 치며 확 뿔겨져나온 파렬음이 얼어붙은 공간을 흔들며 멀리 날바다로, 바다가둔덕으로 메아리쳐갔다. ...

바다위에 회오리가 일기 시작했다. 수억만개의 물방울을 휘뿔어올리며 물보라가 수직으로 곤두서더니 전설의 룡이 거창한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바다물을 차고 솟구치기 시작한다. 잠시후 하나의 미끈한 튼박을 갖춘 회오리가 회전운동을 하는 무용수의 몸에 휘감기는 치마자락처럼 타래타래 감겨돌며 불쑥 바다물위에 떠오르더니 이윽하여 창공에 포물선을 그리며 전진하기 시작했다.

무인조종비행기가 그 회오리의 한끝을 물고 천천히 날았다. 무지개빛을 발산하는 회오리관의 앞머리에는 한손에 송수화기를 들고 팔다리를 활짝

펼친 사나이가 날고있다. 대공을 가로질러 활동처럼 뻗어가는 회오리관, 청춘의 기개를 마음껏 뽐내며 그속을 유유히 날고있는 젊은 과학자, 현대 과학이 이룩한 신비의 창조물을 한동안 넋잃은 사람처럼 바라보던 문영철은 갑자기 몸을 흠뻑했다. 회오리관의 활동이 밑으로 처져내리는듯 한 착각이 들었던것이다. 눈을 비비고나서 다시 세세히 살펴보았으나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회오리중심선이 탄력을 잃은 고무줄처럼 후줄근해진것이 현등하게 알렸다.

(응? 실패? 이 일을 어쩌면 종단 말인가.)

문영철의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툭 떨어져내렸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혹시 조종장치에 고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의 초조한 눈길은 쌍안경속에서 조종장치를 맡은 경심을 찾아 바다가언덕을 정신없이 방황했다. 아니나다를가 경심이가 조종컴퓨터의 건반에서 손을 떼고 손바닥으로 제 눈을 가리고있지 않는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저도 모르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분명했다.

(아니, 저 애가?...)

하늘땅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새까매졌다. 경심에게 빨리 알려야 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가지 않는다. 이때 어디선가 미쳐오는 벽력같은 목소리...

《경심이, 뭘해? 정신차려!》

그것은 회오리관속을 날고있던 철민이가 송수화에 대고 다급하게 웨치는 소리였다.

《어마나!》

경심이가 놀란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조종컴퓨터의 건반을 부리나케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눈앞에 띄여본 다음에야 문영철은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오리관이 다시 우로 쳐들렸다. 다시금 원활한 포물선을 그리며 서서히, 그러나 기세차게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회오리관의 한끝이 화물역의 무개화차에 닿았다.

회오리수송선이 성공했다는 흐뭇한 감정이 봄물처럼 가슴속을 시원히 씻어내렸지만 문영철의 두눈은 여전히 회오리관의 한끝에서 철민을 정신없이 찾고있었다.

잠시후 회오리관에서 빠져나와 땅에 내려선 철민이가 가슴조이며 기다린 못사람들의 초조한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레사로운 일을 치른 혼연한 자세로 천천히 송수화기를 들고 경심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침내 바다에서 빨려올라간 물고기떼가 회오리관을 메우며 무리지어 날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갈매기와 다를바 없었다. 물고기떼가 갈매기처럼 날아간다! 갈매기처럼!

기사장은 걱정을 터뜨렸다.

《지배인동지, 저 회오리수송관이 옛날 선녀들이 타고내렸다는 전설의 무지개처럼 아름답구만요.》

문영철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환희에 젖어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선녀들의 무지개가... 뭘 그리 아름답겠소? 저것이 과학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국의 억만재부가 흘러가기에 자연의 무지개와는 대비할수 없이 훨씬 더 아름답고 황홀한것이겠지요. 지금은 저 회오리관이 화물역까지 뻗었지만 매일엔 우리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뻗어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물고기만 실렸지만 앞으로는 세멘트, 강재, 목재 등 갖가지 제품이 다 실리게 되겠으니 얼마나 희한한 일이요.》

기사장동무, 우리 앞으로 저 무지개를 더 아름답게 꽃피웁시다. 과학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기쁨에 겨워, 감격에 젖어 한동안 부둥켜안고 돌아가던 두 일군은 갑자기 멈춰서서 귀를 강구었다. 부르며 화답하는 청춘남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놔둔 송수화기에서 울려나왔기때문이었다.

《철민동무!》

《경심동무!》

언덕을 향하여 줄달음쳐오르는 총각, 구슬뚱 언덕을 내리는 처녀, 두사람의 거리가 퍼그나 줄어들었는데도 달음질속도는 그냥 한본새다. 다가들던 두사람이 한걸음을 사이에 두고 우뚝 멈춰섰다. 자석에 끌리듯 돌연 두사람의 손이 맞잡히고 그다음에는 그들 또한 회오리가 된듯 빙글빙글 돌아간다. 기폭처럼 나뭇기는 처녀의 빨간 머리수건이 바다에도 비끼고 하늘에도 비끼듯 하다. 그것은 과학탐구의 길에서 활짝 피어난 한쌍의 아름다운 꽃이었다.

《보십시오, 지배인동지.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사위감이 전설의 무지개를 타고 저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전설의 무지개가 아니라 과학의 무지개지요.》

《하하하!...》

《허허허!...》

두 일군은 소리내여 웃었다.

나의 파견장

홍 준 성

낮익은 공장길
눈에 선한 구내길이건만
대학졸업증과 함께
파견장을 안고 가는 내 마음
초행길인듯 설레이누나

붉은넥타이 그 시절에
꽃다발안고 더운밤 싸들고
방직공영웅이었던 어머니 찾아
종종걸음놓던 이 길

대학실습의 그 나날에
끓어진 실오리 잘못 이어
어머니 꾸지람에 눈물이 날 때도
기능공들의 일숨씨 배우러
낮교대이어 밤교대 나가던 이 길

어서 오라 오늘도
정문은 두팔벌려 반겨주고
온 공장의 창문들도
나를 반겨 웃어주는구나
영예게시판 혁신자들의 눈빛도
나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내누나

가 사

방직은 예술이라고 하신
아버이수령님 교시의 깊은 뜻
내 가슴을 쿵쿵 울리고
온갖 꽃 피어나는 천필들은
희망찬 나의 앞날 축복해주는구나

직포기라 소면기라
내가 다 맡고싶구나
젊은시절 어머니가 걷던 그 순회길을
내 하루에 다 걷고싶구나

성스런 로동의 권리가 새겨진
파견장을 안으니
내 키도 마음도 커진것만 같아
나도 영웅 어머니처럼
영웅되어 한생 이 공장구내길 걸으려니

아, 나의 파견장은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주공전선좌지에
조국의 팔로 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의 신임장
선군시대가 준 명령서여라

애국의 마음은 보석처럼 빛나네

윤 경 남

진실한 마음으로 이 땅을 가꿔가자
부지런한 손길아래 메마른 땅 없어라
기름지게 땅을 걸귀 알찬 열매 안아올 때
애국에 바친 땀은 보석처럼 빛나네

강산에 금은보화 가득히 넘쳐나도
창조의 손길없인 막돌과도 같아라
최첨단돌파전에 온넋을 불태울 때
애국에 바친 땀은 보석처럼 빛나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위훈의 자욱없인 생의 보람 찾지 말자
민족의 자랑높이 세계를 굽어볼 때
애국에 바친 땀은 보석처럼 빛나네

아 당을 따라 심장을 불태울 때
애국에 바친 땀은 보석처럼 빛나네

조선속담

바 뽀, 금 뽀

- 궁둥이에서 비파소리가 난다
- 다리에 자개바람이 일다
- 대사집 말며느리
- 문돌찌귀에서 불나겠다
- 부지깽이가 곤두선다

- 짐 벗고 요기할 날 없다
- 한가랭이에 두다리 넣는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아비 죽은지 나흘후에 약을 구한다
- 여드레 팔십리걸음

별하늘—아름다운 랑만의 세계

—단편소설 《나의 희망 별하늘》을 보고—

김 청 송

정말 소박한 이야기이다. 주체99(2010)년 《조선문학》잡지 11호에 실린 단편소설 《나의 희망 별하늘》(김정일 작)은 지방의 크지 않은 공예품 공장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있다.

눈길을 끄는 제목과는 상반되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지도 않는 공예품공장이야기가 나오는데서 저으기 시답지 않은 느낌도 없지 않았던 나는 차츰 소설의 세계에 끌려들어가는 자신을 건잡을수 없었다. 기껏해서 아이들의 장난감따위나 한갓 치레거리의 장식품정도로만 생각하고있던 공예품이라는 세계에 것처럼 중요한 민족성문제, 심각한 최첨단기술문제들과 함께 당이 제시한 경공업발전의 한몫을 맡아안고 끊임없이 비약해가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그리도 아름다운 랑만의 세계가 어울려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보려고조차 할수 없었던 나였기때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단편소설 《나의 희망 별하늘》을 읽을 맛이 있는 작품, 읽히는 맛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들은 생활을 소박하게 형상하면서 예술적품위를 높일줄 알아야 합니다. 형상화되지 못한 소박성은 유지한데로 떨어지며 쓸데없이 멋부리는 형상은 진실하지 못하여 오히려 예술적품위를 떨어뜨립니다.》

그지없이 소박한 이야기를 조화로운 형상으로 엮어나간 이야기전개방식이 눈길을 땔 사이없이 독자들의 마음을 결말에까지 이끌어가는 이 소설의 견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소설의 이야기를 유심히 따져보면 소설은 독자들을 긴장시키는 예리한 갈등이나 첨예한 극성을 띤 정황이나 사건은 찾아볼수가 없다. 보다는 《나의 희망 별하늘》이라는 시적인 제목에 어울리게 내용자체가 매우 서정적이다.

사회생활의 첫 자옥을 땀 잇을수 없는 공장과 그리운 생활의 스승과 벗들속으로 군사복무와 대학시절을 마치고 근 10년만에 돌아오는 주인공의

애뜻한 추억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단편적인 구성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오해선이나 뒤집기식의 사건적인 흐름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심리를 타고 은근하게 펼쳐지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신혁과 잇을수 없는 옛 반장의 딸 옥진이는 신혁이가 공장을 떠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허물없는 오랍누이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은 드살찬 사내 번지기소녀애 옥진이를 숙성한 처녀작업반장으로 변모시켰고 다시 만난 그들사이의 관계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서먹한 남녀청춘들의 야릇한 심리, 이미 세상을 떠난 옥진의 아버지 석남반장에 대한 추억으로 인한 인간적의리와 원칙성사이의 미묘한 감정적마찰이 이루어지게 된다.

등장인물들사이의 이처럼 묘한 감정의 금선을 타고 굴곡있게 내용이 전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작품에서는 우리 문단에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것으로 되었다고도 볼수 있는 전세대들의 공적과 새 세대들의 최첨단기술혁신사이에 제기되는 도의 감문제라든가 우리 시대 청춘들의 희망선택문제 등 수수한 이야기거리들이 또 다른 새맛을 가지고 안겨오고있는것이 아닌가싶다.

작품의 경험은 주제적문제이론이 정당하게 밝히고있는것처럼 단편적인 구성에서도 긴장하고 첨예한 갈등이나 극적인 사건줄거리가 없어도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면 얼마든지 극성과 견인력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라고 생각된다.

소설의 이러한 구성상매력은 또한 읽히는 맛으로 더욱 보충되고 가미되고있다.

물론 소설에서 읽히는 맛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서는 그중에서 세부묘사의 생동성과 어휘표현의 참신성문제에 대해서만 고찰해보려고 한다.

기술준비실 실장 신혁은 적당히 형태나 살린 미숙한 제품을 만들어내놓는데 습관된 공예사들의 낡은 사고를 깨버리기 위하여 매 공예사들의 제품

들을 사진기로 반복촬영하고 《밤마다 그 사진자료를 컴퓨터에 빨아들이고 최신프로그램으로 3차원공간에서 동화상으로 재현시켰다.

대부분 골격의 비례가 맞지 않는 동물들은 우습강스럽게 절뚝거렸다. 그 화면편집물을 보여주자 공예사들은 허리를 접고 웃어댔다. 그리고는 이내 심각해졌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줄곧 병신동물들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까마득히 잊혀졌던 기술학습문제가 자연스레 제기된 것이다.》

보는것처럼 낡은 사고방식과 최첨단현실의 요구, 종업원들을 제발시키기 위한 신혁의 탐구와 노력을 몇문장으로 함축하여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적중한 세부가 묘사되고있다.

이밖에도 작품에는 옥진과 신혁의 감정적련계를 지어주는 매개물인 사과세부, 주인공의 높은 실력을 보여주는 제품의 털질감과 질감칼날흡집과의 련관세부, 제품을 한번 스쳐보고 공예사처녀의 오른손엄지손가락의 상처를 알아차리고 그 배경에 놓여있는 작업규률문제를 포착하여 지적하는 주인공의 조직자적수완에 대한 세부 등 몹이 뚜렷하고 모습이 선명한 재치있는 세부들이 요소와 계기들마다에 잘 선택리용되고있다.

이러한 세부들로 하여 작품의 구성상매력이 작중인물들의 성격적매력과 잘 조화되어 감칠맛을 돋구고있는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씹히는 맛을 돋구어주는 어휘 표현탐구의 측면도 스칠수 없는 좋은 경험이라고 보아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고 밖에 내비칠수도 있게 하는 《창문》이라고 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소설의 창문으로 작가의 언어발을 유심히 살펴해보느라면 새롭고 생동한 어휘구사를 위하여 기울인 작가의 노력이 적지 않게 느껴진다.

《푸른 물결에 산뜻이 미역을 감은 아침해》, 《해종일 뛰놀다가... 참새처럼 포르륵 날아드는》, 《사내번지기》 소녀, 《빔을 대본 흔적도 없이 만 초마냥 뒤엉》 킨 《머리결》 등을 비롯하여 작품에는 어감이 풍부한 우리 말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생큼하고 새맛이 짙은 어휘표현들이 매우 적중하면서도 정확하게 잘 씌여지고있다.

이밖에도 《아름지게 쌓아올리다》, 《쑥하니 귀속을 파고들다》, 《후룩후룩 책장을 뒤적이다》, 《호심처럼 깊어보이는 두눈》, 《소녀시절의 생신하고 청량한 불꽃》과 같은 문구들은 다 작가가 새롭게 탐구하여 쓴 표현들로서 작품의 형상적효과를 한층 높이고있다.

언어구사에 기울인 작가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하여 작품에서는 반복적으로 씌여진 어휘표현들은 거의나 찾을수 없으며 읽을수록 씹는 맛이 새로와지는것이다.

특히 《얼추 던진 돌이 굴뚝에 명중하다》, 《손에 기름이 오르다》, 《3년이면 서당개도 풍월을 짓는다》, 《가슴에 칼질을 하다》와 같은 성구속담들의 능숙한 활용은 구수한 민족적정취를 살려주고 작품의 읽히는 맛을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물론 이 글에서 언급된 우점들만이 작품의 전부인것은 아니며 리상적이고 완성된 명작이라고 할만큼 소설의 사상예술성이 완벽한것은 아니다.

기본인물선을 이루고있는 신혁과 옥진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이 명백하지 못하고 작품의 주제가 어딘가 애매몽롱한듯 한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소설은 새맛이 뚜렷하고 웨침보다 메아리가 큰것이 좋다.

작가의 창작에서 개성적면모가 뚜렷한 보다 훌륭한 기교와 재치가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의 소설문단에 이렇듯 좋은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 별하늘처럼 빛나기를 바란다.

세계유모아

《편지를 읽어주세요》

글씨를 몹시 갈겨쓰는 한사람이 있었다. 한번은 그가 외지에서 안해에게 편지를 보내어 일이 있어 제때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알렸다.

며칠후 안해가 전보를 보내어왔다. 전보문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빨리 돌아와서 편지를 읽어주세요.》

우리 집 웃총어머니

김 석 주

우리 집 웃총에 한 어머니가 살고있습니다
아침이면 자주 베란다에 서서
출근하는 아들을 바래줍니다
현판문을 나서
사람들 물결에 실려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떤 날에는 아래를 향해 허리굽히고
무엇인가 재삼 당부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 명심하거라
—… 그래서는 안된다
—…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소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닐 때에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고
혁신자로 이름난 영웅이 된 오늘도 그렇게 합
니다

습관이런듯 생활이런듯
귀밀머리 희어서도 마음을 쓰며
아침이면 아들을 바래 서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을 알리는 시침처럼 분침처럼

그 어머니 마음을 내 다는 모릅니다
아직도 어머니에겐 장정이 되고 일군이 된 아
들이
마음을 못 놓을 아이처럼 생각되어서일가요
그 무슨 기대일수도 믿음일수도
아니면 아들과 출근길을 함께 걷는 마음일
수도…

어머니는 성장하는 아들과 한생을 걸었습니다
장군님 뜻을 받들어 나라에 크게 이바지한
선군시대의 영웅 박사 애국자…
이들뒤에는 이런 어머니들이 서있는것 아닙니까
이 아침도 어머니는 아들을 바래주며 서있습
니다

자 료

작가 현진건과 그의 소설문학

해방전 일제가 그 어떤 사소한 반일적표현이나 민족적경향에 대하여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던 민족수난의 시기 진보적문학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온 작가들가운데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 현진건도 있다.

현진건(필명 빙허)은 1900년 8월 경상북도 대구에서 현경운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민족성이 강하고 애국심이 높았던 아버지와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옥사한 둘째형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남달리 강하였다.

나라잃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도 항학열이 남달리 높았던 현진건은 1912년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를 다니었으며 졸업후에는 도쿄도이쵸란 드어전수학교에서 도이쵸란드어를 배웠다.

중학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문학수업을 해온 그는 다시 중국 상해로 건너가 공부를 계속하였다.

3.1인민봉기후 조국으로 돌아온 현진건은 신문, 잡지 등 출판보도부문에 취직하여 활동하

였다.

일찌기 일제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슴을 불태워오던 그는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 여러 문인들과 함께 주체25(1936)년 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단연 1위를 한 룩상선수 손기정의 경기성과와 사진을 보도하면서 그의 앞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하는 애국적장거를 단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손기정의 경기성과와 일장기말소 사건을 소개하는 강연을 듣고 모든 유격대원들이 《동아일보》 편집집단이 취한 애국애족적인 립장과 용단에 열렬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었거나 파묻혀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우리 나라 문학사와 예술사 발전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남달리 강하였던 현진건의 반일애국정신은 그가 창작한 20여편의 단편소설과 미완성장편을 포함한 4편의 장편소설들에도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의 작품에 구현된 반일애국정신은 우선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일제식민지통치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느끼게 된다.

작품에 반영된 당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던 일제에 대한 작가의 항거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일제의 삼엄한 보도판제가 실시되고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왜놈들과 그 주구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폭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천대받고 짓밟히는 최하층주인공들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당대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것은 작가가 현실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감정만을 가지고있었던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명을 강요하는 일제에 대한 저주와 분노, 항거의 사상감정을 품고있었다는것을 쉽게 파악할수 있다.

작가는 창작 초기 주로 자신의 생활체험을 위주로 한 단편소설들에서 식민지사회의 불우한 지식인들, 소시민들을 주인공으로 형상하여 현실을 비판하였다.

단편소설 《빈처》에서는 량심적인 지식인의 가난한 생활처지와 운명을 보여주면서 돈과 권세를 못 가진 탓으로 겪게 되는 불행과 그로 인한 서글픈 심리적체험세계를 통하여 식민지사회현실을 깊이있게 펼쳐보이였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는 《빈처》에 비하여 주제령역을 생활세대적범위에서 벗어나 일제식민지통치가 빚어낸 어지러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울분으로 확대시키였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살고있는 이 사회에서 누가 그에게 술을 권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화중도, 하이칼라도 아니》라 바로 어지러운 사회가 권한다는 결론으로 타당성있게 이끌어감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사회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규탄을 표시하고있다.

작가는 창작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면서부터는 단편소설 《운수좋은 날》, 《서투른 도적》에서와 같이 생활난에 허덕이는 최하층인간들의 비참하고 눈물겨운 처지를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비판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안해마저 잃게 되는 《운수좋은 날》의 주인공 김첨지와 가난때문에 억울한 도적루명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서투른 도적》의 주인공 할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당대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결국 작품들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돈

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례지는것은 오직 불행과 고통이라는것을 예리하게 발가내고있다.

다음으로 작품에 구현된 반일애국정신은 왜놈들의 형상을 직접 등장시키고 놈들의 죄악을 폭로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신문지와 철창》에서는 서장집대문가에 버려진 신문지 한장때문에 74살의 로인에게 가하는 일제경찰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통하여 인륜도덕도 없는 일제침략자들의 야수적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로인을 살인강도의 루명을 씌워 류치장으로 끌어가 마구 다루고 몸까지 꺼리낌없이 뒤지는 왜놈순사들의 형상은 우리 조선사람들을 노예나 짐승처럼 취급하고 대하는 일제침략자들의 후안무치한 만행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하여준다.

단편소설 《고향》은 살길을 찾아 해외에서 방랑하다가 9년만에 고국에 다시 돌아온 주인공이 사람도 집도 없이 폐농이 되다싶이 한 고향의 정경을 가슴아프게 회상하는 과정을 펼쳐놓고 있다.

작품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이 파괴되고 고향이 황폐화된 원인이 일제의 략탈기판의 하나인 《동척》에 있다는것을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일제에 대한 끝없는 원한과 증오의 감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작가의 반일애국정신은 다음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애국자의 형상을 창조한데서 느낄수 있다.

장편소설 《적도》에서 작가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의 한사람인 김상렬을 등장시키고 그의 영향하에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주인공 여해와 명화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갱생의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형상하였다.

물론 상렬은 애국자로서의 자질과 품모를 원만히 갖춘 인물로는 형상되지 못하였으나 타락한 여러 인물들을 갱생의 길에 돌려세워주는 긍정적인 물로 형상하고있는데서 작가의 사상적지향성, 반일애국정신을 력력히 감수하게 된다.

작품에 구현된 반일애국정신은 다음으로 상징적인 수법으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한 력사소설에서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대표적으로는 작가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감옥살이를 마친 후에 창작한 력사소설 《흑치상지》(미완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작품은 력사적으로 실재한 인물인 백제의 장수 흑치상지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가 처든 의병의 기치 밑에 수많은 백제인민들이 쫓겨하여 투쟁하는 모

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설은 앞부분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백제인민들의 비참한 운명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이어 민족적의분을 안고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거연히 나선 주인공을 비롯한 백제인민들의 불굴의 모습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역적들의 추악한 몰골과 그들의 비극적말로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흑치상지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칼을 빼든 《애국적인 장군》으로, 인민들속에서 《전설속의 장수》로 떠받들리우는 영웅으로 형상하였을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자기 한몸을 아끼지 않을 결심을 다지며 부하들을 언제든지 겸손하게 존대해주는 인물로 인격적으로도 높이 형상하였다. 흑치상지에 대한 이러한 형상은 양양되어가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영향으로 조국이 해방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반일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는데 작품의 의의가 있다.

작품에 로출된 반침략애국사상과 현실교양적 의의에 질 집한 일제는 제재를 중지시켰다.

작품이 비록 끝까지 발표되지 못하였어도 작가가 지닌 견결한 반일애국정신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현진건의 소설의 형상적특성은 간결하고 독특한

구성과 인간의 내면심리를 생동하게 드러내보이는 묘사, 표현성이 높은 언어구사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생활세태적인 소재로 계기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사회적문제로 점차 확대시켜나아가다가 사건의 마무리에 형상의 력점을 찍어나가는 특성이 보편적이다.

단편소설 《운수좋은 날》에서와 같이 어느때와는 달리 일감이 걸리어 돈을 벌어 《운수가 좋》다고 생각한 날에 인력거군인 주인공이 안해를 잃는 형상을 대치시켜놓고 가난하고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운수좋은 날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단편소설 《까막잡기》, 장편소설 《적도》를 비롯한 일부 작품에서와 같이 자연주의적경향이 농후하며 인물의 성격이 전형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운명처리에서 신중한 약점을 발로시키는 결함도 적지 않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세계관적미숙성과 창작방법상 제한성으로부터 산생되는 필연적인 형상으로 볼수 있다.

이처럼 작가 현진건은 반일애국정신이 강한 진보적인 작가로서 해방전 진보적문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리 광 일

자 료

썩어빠진 미국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장편소설 《도금시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마크 트웨인(본명 썬뮤엘 령그혼 클레멘즈, 1835—1910)은 개인리기주의가 판을 치고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작용하는 썩어빠진 미국자본주의사회를 누구보다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수십여 편의 진보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여 그를 세계면전에서 폭로비판하였다.

미주리주의 가난한 백인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소년로동의 길에 나선 그

는 10여년은 인쇄공으로, 4년간은 미씨씨피강에서 수로안내원으로 일하면서 미국사회의 《변영》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남북전쟁(1861—1865)과 금광개발현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미국사회의 반동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인쇄로동을 하면서 글을 쓰는데 뜻을 두게 된 그는 1862년부터 기자생활을 하면서 정의의 필봉을 들고 미국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날날이 폭로하는 기사, 론설들을 수많은 써냈다.

1865년 단편소설 《짐 스마일리와 그의 뛰여오르기로 소문난 개구리》를 발표하여 기자로서만이 아니라 소설작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렸다.

수십년간의 창작기간에 그는 《도금시대》(1874), 《톰 소야의 모험》(1876), 《왕자와 거

지》(1882), 《허클베리 핀의 모험》(1884) 등과 같은 장편소설들과 수십여편의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여 미국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정치의 부패성을 폭로하고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사회를 비판함에 있어서 매관매직행위가 판을 치는 정치제도, 퇴물행위가 성행하는 국가와 법기관들의 썩어빠진 리면에 대하여 강렬히 폭로규탄하였으며 그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도금시대》를 들 수 있다.

장편소설 《도금시대》는 미국에서 급속한 《번영》의 시대, 《황금의 시대》로 불리우던 19세기 60~7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미국사회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있다.

소설은 동부사람인 주인공 필리프 스텔링의 운명을 그리고 있다.

필리프 스텔링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은 변호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곧 루스라고 하는 처녀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려고 하나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돈벌이꿈을 안고 서부변강으로 찾아간다.

당시 서부변강은 아직 미개척지로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개척자들이 물밀듯이 쓸어드는 곳이었다. 그는 광맥을 찾아 헤매이나 성공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다. 그는 몇번이나 단념하고 동부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눌러앉는다.

락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그는 마침내 큰 탄광주가 되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다.

그러자 그는 일약 《큰 인물》로 되어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뿐 아니라 그가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말까지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개선장군이 되어 동부로 돌아온 그는 루스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이다.

이외에도 소설에서는 대좌 셀리루스, 상원의원 딜루오르티, 워싱턴 호킨스와 같은 정치계, 기업계의 《요직》 인물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풍자적내용도 담고 있다.

작품은 우선 《황금바람》의 소용돌이속에서 철저히 황금만능만을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길을 찾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미국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기형화시키고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 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필리프 스텔링은 당시 미국신흥

부르주아들, 벼락부자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극심하게 부패되어가는 미국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있는 인물로 형상되고 있다.

그는 모든것이 돈에 의하여 지배되는 미국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사랑도 쟁취할수 있다는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언제나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곧 자신의 명예이고 행복이며 사랑이다. 돈을 벌기 위하여 그 무엇도 가리지 말자는것이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있는 사상이였으며 미국사회를 휩쓰는 돈에 대한 갈증과 그로 인한 약육강식의 법칙은 바로 그의 유일무이한 인생관이었다.

작품에서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제 혼자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와 황금에 대한 탐욕,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성과 약탈성, 투기성과 조폭성을 주인공의 성격적특질로 그리고있으며 이와 같은 특질들을 체질화한 수천수만의 필리프들이 미쳐날뛰는 당대 미국현실을 《도금시대》로, 황금미치광이들의 시대로 풍자조소하였다.

작품은 또한 대좌 셀리루스, 상원의원 딜루오르티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이전의 그 누구도 감히 비판하지 못하였던 미국정계, 기업계의 위선과 타락, 온갖 추악한 모습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딜루오르티는 거대한 재벌이며 정치활동에 참가하는 상원의원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양심을 저버린 가장 탐욕적인 부르주아였고 가장 악질적인 반동정치인이었다.

딜루오르티는 자신을 미국 《민주주의》체제의 유일한 《인재》로 생각하며 자기의 돈주머니를 불굴수 있다면 그 어떤 비법적인 문제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킬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잡군이다. 마치도 최면술사와도 같은 교묘한 처세술과 속임수로 많은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을 속여넘기며 《활동》을 벌려나가는 그의 형상에는 반동적인 미국정치가들의 추악한 모습이 체현되어 있다.

대좌 셀리루스도 딜루오르티에게 짝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도 역시 남의것을 공짜로 가질수만 있다면 그 어떤것도 가리지 않는 무제한한 탐욕심을 소유한 인물로서 딜루오르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을 《행실이 바르고 도덕이 있는》 높은 인격의 소유자로 자인하는 교활한 위선자라는것이다.

셀리루스와 딜루오르티의 형상은 당대 미국현실이 감출래야 감출수 없던 모든 흠집들이 체현된

인물형상으로 되고있으며 개인기업들의 략탈을 미국부르조아의 도덕규범에 배치되지 않는것으로 인정하고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오던 미국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이렇게 작품에서는 두 인물의 형상을 통하여 미국정치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든지간에 그 허위와 위선, 탐욕과 략탈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도 기울지 않게 똑같은 정치협잡, 사기군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미국정치제도의 반인민성을 날낱이 까밝히고있다.

작품에서는 국회에서 토의되는 안전들모두가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주머니를 불구어주기 위한 협잡문건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밝힘으로써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미국 자본주의의 양면성과 반인민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있으며 여러번에 걸치는 미국회의원들과 그의 가족들의 사치하고 허영에 찬 생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미국의 정치인들이야말로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저 하나만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추물들이며 그들의 활무대인 미국정치제도는 반인민성을 체현한 반동적인 사회기구에 불과하다는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일련의 특징들을 나타내고있다.

작품에서는 우선 다양한 인물관계속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가면서 작품의 사상해명에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은 필리프와 루스관계, 셀리루스와 딜루 오르티의 관계, 워싱턴 호킨스와 대좌 셀리루스와

의 관계, 필리프와 셀리루스의 관계 등 인물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 관계속에서 주인공인 필리프와 루스와의 이야기를 주선으로가 아니라 상원의원이나 대좌와 같은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선으로 끌고나감으로써 미국에서 정치인들, 기업가들의 공모결탁과 그들사이의 공동적인 착취와 략탈행위를 생동한 형상속에서 폭로비판하고있다.

작품은 다음으로 풍자적인 언어형상을 잘 살리고있다.

작품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본질적 제한성도 내포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작가의 계급적제한성으로 인하여 미국사회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부르조아지배계급의 리론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는 결함이 나타나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치도 한 두명의 정치인들때문에 《그렇게까지》 된것처럼 그리면서 미국사회의 본질을 그 근본까지 파헤치지 못한 결함도 발로시키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미국에서 《물질적번영》의 허황성과 기만성, 반동적정치제도의 반인민성과 략탈성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부르조아번영의 새시대 — 《황금시대》라고 일컫던 19세기 60~70년대를 황금미치광이들이 날뛰는 《도금시대》라고 풍자함으로써 19세기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기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있다.

김 은 희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7호 (루계 제765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7월 1일								
발	행	주체100(2011)년 7월 5일								

7-1629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